

碩士學位論文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Pattern에
대한 分析 및 展望

1991 年 11月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管理 專攻

尹 榮 相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Pattern에 대한 分析 및 展望

指導教授：洪 鳳 春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1 年 11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管理 專攻

尹 榮 相

論文認准書

尹榮相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1年 11月 日

主審教授

俞平光



副審教授

李基宗



副審教授

李錫中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1節 研究의 目的	1
第2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1
第3節 研究의 構成	3
第2章 多國籍企業의 發展過程	5
第1節 多國籍企業의 生成動機	5
1. 生成起源	5
2. 生成動機	6
第2節 多國籍企業의 生成理論	11
1. 微視的 理論	12
2. 巨視的 理論	16
第3節 企業의 多國籍化 發展段階理論	20
第3章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企業化 現況에 대한 分析	25
第1節 概 要	25
1. 概 況	25
2. 動 機	26
第2節 製造企業의 海外進出 現況分析	28
1. 概 況	28
2. 產業別 現況	34
第3節 製造企業의 發展段階別 分析	53
1. 產業別 海外投資 推移分析	53
2. 製造業 海外進出企業	56

3. 海外進出企業の 清算現況	58
4. 製造業과 他産業과의 比較	60
第 4 章 韓國 製造企業の 多國籍化 展望	63
第 1 節 多國籍化의 問題點	63
1. 主體側面	63
2. 管理側面	66
3. 現地經營側面	68
第 2 節 多國籍化의 推進方向	70
1. 投資對象國別 戰略	70
2. 支援制度의 強化	73
3. 投資企業側面의 改善方向	75
4. 製造業 海外直接投資 展望	84
第 5 章 結 論	89
參考文獻	93
ABSTRACT	101
附 錄	103

圖 表 目 次

〈圖1〉	權益의 關係와 紛爭의 範圍	13
〈圖2〉	國際經營에 의한 力學關係	14
〈圖3〉	製品週期에 따른 多國籍企業의 立地	19
〈表1〉	製造業 海外投資現況	26
〈表2〉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	27
〈表3〉	製造業의 10大 海外投資對象國	31
〈表4〉	製造產業別 海外投資推移	55
〈表5〉	製造業經營의 成果	56
〈表6〉	現地法人(全業種)을 통한 輸出入 動向	57
〈表7〉	製造業 海外生産 比率	57
〈表8〉	派遣要員 賃金 現況 및 雇傭效率	57
〈表9〉	製造業 現地法人 雇傭效果	58
〈表10〉	業種別 清算現況	58
〈表11〉	製造業 海外投資 撤收 事例	59
〈表12〉	業種別 海外投資現況	61
〈表13〉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全業種)	62
〈表14〉	現地經營上の 問題點	68
〈表15〉	現地政策上の 不利한 點 및 有利한 點	69
〈表16〉	對開途國 海外投資의 危險과 對策	72
〈表17〉	製造業 年度別 海外投資展望	85
〈表18〉	製造業의 期間에 따른 產業別 比率(投資基準)	87
〈表19〉	製造業 海外直接投資 產業間 展望	87
〈表20〉	製造業 產業別 海外投資展望	87
〈表21〉	地域別 海外投資展望(2000년도)	88

〈圖表1〉	件數 및 金額別 海外投資現況	28
〈圖表2〉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30
〈圖表3〉	平均投資規模	32
〈圖表4〉	投資規模別 現況	33
〈圖表5〉	飮,食料品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34
〈圖表6〉	飮,食料品 投資規模別 現況	35
〈圖表7〉	纖維,衣服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36
〈圖表8〉	纖維,衣服 投資規模別 現況	37
〈圖表9〉	신발, 피혁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38
〈圖表10〉	신발, 피혁 投資規模別 現況	39
〈圖表11〉	木材家具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40
〈圖表12〉	木材家具 投資規模別 現況	41
〈圖表13〉	종이인쇄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	42
〈圖表14〉	종이인쇄 投資規模別 現況	42
〈圖表15〉	석유화학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43
〈圖表16〉	석유화학 投資規模別 現況	44
〈圖表17〉	비금속광물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45
〈圖表18〉	비금속광물 投資規模別 現況	46
〈圖表19〉	1次金屬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47
〈圖表20〉	1次金屬 投資規模別 現況	48
〈圖表21〉	조립금속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49
〈圖表22〉	조립금속 投資規模別 現況	51
〈圖表23〉	기계장비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	52
〈圖表24〉	기계장비 投資規模別 現況	52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 擴大되기 시작한 海外直接投資는 1960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美國 및 英國의 多國籍企業들에 의해서 主導되어 왔으나 1960年代 후반부터는 淸々々々한 變化가 일어났다. 이러한 變化의 主要 內容은 1960年代 末부터 日本 및 西獨의 海外直接投資가 크게 增加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開發國企業들의 海外直接投資가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第3世界 海外直接投資라고 불리우는 이같은 開發國企業들의 海外直接投資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놀라운 工業化를 이룩한 이른바 新興工業國家群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韓國經濟도 1980年代들어 急速한 開放化 推進과 더불어 海外直接投資進出이라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海外投資는 우리 經濟의 狀況과 國際經濟의 環境變化에 따라 그 樣態를 달리하며 꾸준히 伸張되어 왔다. 특히 1986년에 對外的으로 經濟環境이 急激하게 變化한 가운데 國際收支黑字時代로 轉換된 以後 企業自體의 成長戰略도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輸出主 導政策에 의한 成長을 推進해 온 우리 經濟는 先進國과의 貿易摩擦 增大 및 對外環境 變化에 對應하기 위하여 海外直接投資戰略에 積極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87年 以後에는 急速한 原料切上과 賃金上昇 등 國內生産 原價가 上昇하고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의 開放化 壓力이 가중되면서 製造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는 급증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韓國은 지난 30年間 輸出主導型 工業化를 추진함으로써 急速한 經濟成長을 달성하고 新興工業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製造業은 電子, 自動車, 纖維 등 여러분야에서 世界的인 生産, 輸出國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經濟는 製造業의 對外競爭力이 약화되고 成長活力이 떨어지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1986년부터 製造業成長이 輸出增大보다는 內需에 의존하는 傾向으로 바뀌었으며, 全體 經濟成長도 製造業보다는 建設이나 서비스業에 의해 主導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主力輸出產業들의 競爭力도 이제 限界에 直面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

다. 즉, 纖維産業은 人力難과 高賃金에, 電子製品도 價格競爭力 喪失로 製品輸出의 收益性 下落 그리고 自動車도 日製와의 競爭力이 악화되면서 輸出勢가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輸出不振의 主要因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난 3年餘 동안 賃金이 거의 두배 수준으로 上昇하였으나 勤勞意慾과 作業能率は 오히려 減퇴되었다.
- ② 賃金과 人力의 흐름이 建設, 서비스業 등 非製造業 分野에 집중됨으로써 製造業部門의 相對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 ③ 人力難과 高賃金을 技術開發로 克服해야 한다는 當爲性은 강조되어 왔으나, 政府와 民間企業의 技術開發投資가 미흡하였고 그 동안 추진해 온 公共研究開發도 產業界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限界가 있었다.
- ④ 이와 함께 道路, 港灣 등 社會間接資本의 投資不足으로 企業의 生産 및 投資活動을 위축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 ⑤ 後發工業國(中共을 포함한 Asian 諸國)들의 세계시장으로의 輸出増大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⑥ 先進工業國들의 非關稅障壁 強化 및 블록 經濟化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韓國 企業들이 이상과 같은 國際市場의 環境下에서 輸出力을 回復하고 保護貿易의 障壁을 克服하려면 單純輸出段階를 넘어선 海外直接投資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先進諸國의 新保護貿易主義에 대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의 完全開放時代에 대비하기 위하여 韓國企業도 적극적으로 海外市場에 진출하여 列強의 國際企業과의 競爭에서 生存 및 成長해 나아가야 한다. 本 研究는 이상에서 언급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先進諸國 企業들의 多國籍化 過程에서 개발된 諸 理論과 經驗들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韓國 製造企業의 國際化 過程을 分析하고 問題點을 발견하여 이를 解消하는 方案을 模索하고 提示함으로써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方向設定에 한 政策的 代案을 提供하려고 한다.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文獻的 接近方法을 통하여 多國籍企業의 概念과 本質, 그리고 多國籍企業의 發展過程의 理論的 側面을 考察하고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過程 및 動機 그리고 海外直接投資 pattern에 관하여는 實證的 接近方法을 사용한다. 그러나 時間的, 經濟的 制限 때문에 實證的 研究은 第2次 資料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다. 實證的 研究範圍는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研究에 한정한다. 시기적으로는 韓國 企業의 최초의 多國籍化 時期인 1968년부터 1991. 6. 30까지의 海外直接投資 資料를 分析하여 앞으로의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方向을 提示하는데 限定하였다.

第 3 節 研究의 構成

本 研究論文은 總5章으로 構成하였다.

第1章 序論에 이어, 第2章에서는 多國籍企業이 理論的 發展過程을 考察하였다. 한편 여기에서는 多國籍企業의 生成過程 및 動機를 살펴보고 成長發展하는 論理的 發展過程을 알아본 後 그의 理論的 背景을 考察하였다.

第3章에서는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現況에 대한 分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및 海外直接投資 動機分析, 그리고 製造企業의 產業別 海外直接投資 現況을 分析하였다. 여기서는 海外進出 製造業의 經營成果도 다루었다. 第4章에서는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전망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推進方向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第5章에서는 本 論文의 전체적인 要約 및 韓國 製造企業의 外國進出을 위한 方案을 結論으로 제시했다.

第 2 章 多國籍企業의 發展過程

第 1 節 多國籍企業의 生成動機

1. 生成起源

1960年代의 產物인 多國籍企業은 그 紀元이 古代 베니스 商人들이 形成한 企業體들 및 17·18世紀에 盛行했던 英國,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大規模的인 貿易擴張에서 시작한 다. 또한 産業化와 工業化로 인한 過剩生産의 經濟問題가 深化되자 先進工業國들은 植民地를 통하여 이 問題를 解決하려고 했다. 美國의 경우, 1849년에 契約되어 5백만달러의 美國資本으로 建設된 파나마 鐵道가 美國最初의 대규모 直接投資였다.¹⁾

第2次 世界大戰이 종료된 後 大多數 植民地國家가 政治的 獨立을 爭取함으로써 企業의 生産活動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나라에 걸쳐 展開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科學技術革命에 의하여 生産力이 크게 發展한 美國에서 急速히 發展되었다. 그 후 1957-1958年 不況以後 經濟는 정체속으로 빠져 過剩資本을 輸出해야 할 必要性을 안고 있었으며, 經濟成長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開發途上國들은 이들에게 유리한 投資市場이 되어 있었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 資本主義 國家들은 單純히 自國에서 生産된 上品을 外國에 販賣하거나 또는 販賣를 위한 사무소를 外國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海外에서 子會社를 設立하여 在外生産을 展開하였다. 이 過程에서 多國籍企業은 競爭力과 金融支配力의 集中化, 그리고 生産과 交易의 國際化와 國際分業化를 定着시켜 나갔다.²⁾

이와 같이 多國籍企業이 本格的으로 生成될 要素를 마련해준 것은 第2次代戰後 世界經濟의 變化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

1) Mira Wilkines, *The Emerge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American Business Abroad from the Colonial Era to 1914*,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 23.

2)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多國籍 企業의 利害와 對應,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所, 1982, p. 11.

3) 金鍾淳, 多國籍 企業論, 三英社, 1975, p. 9.

安台鎬, 金澤完, 國際經營論, 博英社, 1975, p. 26.

이러한 관점에서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世界經濟의 秩序改編이다. 여기서는 統一的인 經濟秩序, 先·後進國間의 經濟的 依存性, 世界市場 및 世界市場價格의 形成, 美國의 經濟的 主導力 등을 들 수 있다.
- ② 新生獨立國의 등장과 獨立市場體制의 붕괴이다. 여기서는 戰後 經濟援助의 증가와 그 性格變化를 들 수 있다. 新生國의 獨立은 곧 이들 國家의 自立化 및 工業化를 수반하게 되고 先進國이 新生開途國을 돕기 위한 經濟協助體制가 형성되는 契機가 조성되었다.
- ③ 世界市場의 分割과 급속한 技術革新이다. 戰後 世界經濟는 美國의 獨占的 市場支配體制로 再編되었지만, 1950年代에 와서 西유럽과 日本 등의 經濟復興과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라 世界市場은 分割되기 시작했다. 또한 工業化의 急速한 發展에 따라 技術開發 및 導入과 研究開發投入은 國際競爭力을 좌우하는 지름길이 되었다.
- ④ 각종 블럭經濟圈의 發展과 非關稅障壁이 강화되기 시작함으로써 EEC를 비롯한 經濟統合으로 地域經濟圈이 생성되었고, 美國經濟의 상대적 퇴조에 따라 先進國으로부터 非關稅障壁이 대두되었다.
- ⑤ 2次大戰後 IMF 體制와 GATT 體制는 外換 및 資本의 自由化, 貿易制限의 철폐라는 世界的 趨勢에 발맞추어 開放經濟가 성숙하게 되었다.

2. 生成動機

多國籍企業의 生成動機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경제의 변천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1950년대, 1950년대말, 1960년대 이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다.

먼저 1950년대의 세계경제의 변천과정⁴⁾을 보면, 2次大戰後 資本主義 經濟는 科學技術革命에 따라 生産力이 急速하게 증가하였으며, 美國은 2次大戰 中の 전쟁특수품 以後에도 1940年代 後半에 國內의 戰後復興품과 海外市場의 復興需要품으로 生産力이 高水準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1948-1949년에는 불황에 직면하였지만, 한국전쟁 때문에 군수품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 그 후 다시 1953-1955年 사이에 중간불황에 처했지만 1955年 以後 오토메

4) 尾崎彦朔, 奥村次 編, 多國籍 企業と 發展途上國, 東大出版會, 1979, pp. 5-8.

玉琥鍾, 多國籍 企業經營論, 法文社, 1982, pp. 5-8.

이선 設備의 導入과 合成化學·電子工學을 중심으로 技術革新投資를 함으로써 다시 본격적인 投資붐을 맞게 되었다.

1957年 以後부터 1958년까지 美國經濟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진행되면서 設備의 成長率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海外市場에서도 戰後에 經濟復興과 달러부족을 해소한 EC 諸國과 日本의 강력한 經濟的 挑戰을 받게 되어 美國의 世界市場에서의 絶對的 優位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IMF와 GATT 體制가 성립되었으며 先進諸國間의 相互投資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두번째로 1950年代末에 이르러 두드러진 현상은 多國籍企業의 展開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1957-1958年の 不況以後 資本主義 世界市場은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美國獨占企業을 선두로 各國의 거대한 獨占企業들이 多國籍化 프로그램을 밝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IMF와 GATT 體制의 成立에 따라 貿易·外換의 自由化가 실시되어 資本主義 世界市場의 통일성을 회복함으로써 自由世界內에서 先進資本主義諸國間에는 相互投資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세째로 1960年代 以後 세계경제의 현상은 多國籍企業의 擴散으로 귀결된다. 이 시기 이후부터 美國은 물론 日本에서도 1960年代의 多國籍企業은 급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日本은 1959년부터 1964년까지의 期間으로서 이 期間에는 동남아시아 諸國에 外資에 대한 輸入體制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들 地域, 특히 태국에 대한 投資가 급격히 증대된 시기이다. 그러나 中南美 地域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경향이 점차 농후해져가고 政治的 不安定이 야기되는 등 投資環境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들 地域에 대한 投資는 다소 감소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중동, 아프리카, EEC 諸國에 대한 投資가 증대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美國의 海外直接投資는 1950年代 後半에急速히 成長하였는데, 특히 美國의 海外直接投資 중 製造業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몇가지 이유⁵⁾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60年 以前에 美國製消費財의 外國市場進出을 엄격히 제한했던 關稅, 輸入割當 및 通貨統制措置 緩和

5) N. Fatemi, T. Phalle and G. Keefe, The Dollar Crisis,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Press, 1963; U.S. Chamber of Commerce, Multinatioanl Coporations, Comittee on Finance, U. S. Senate Feb., 21. 1973, 93rd Congress, First Session, pp. 633-34.

- ② 現地製品에 대한 輸送料引下(이로 인하여 西獨・英國에서 生産費의 실질적 引下를 가져왔다)
- ③ 大多數 企業으로 하여금 더 매력있는 投資機會를 찾아 海外投資로 전환케한 耐久財産의 超過能力
- ④ 美國보다 經濟成長이 빠른 나라에서의 製造業投資를 통한 高利潤 獲得에 대한 기대
- ⑤ 美國달러의 國際的役割, 資本移動을 촉진시킨 1958년의 非居住者에 대한 주요 유럽 통화의 교환성 회복
- ⑥ 外國貿易의 障壁, EEC의 創設과 확대된 市場에서의 域內關稅의 철폐에서 利益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 ⑦ 美國內市場을 대상으로 生産된 것보다 費用이 덜드는 단순화된 모델의 각종 耐久財에 대한 外國 消費者의 선호
- ⑧ 일부 국가에서 特許權의 保護를 위하여, 그리고 권리침해를 주장하기에 필요한 法的地位를 확보하기 위하여 企業에게 現地生産을 요구하는 特許法
- ⑨ 어떤 나라에서의 비교적 낮은 法人所得稅와 보다 관대한 減價償却制度, 어떤 경우에는 直接投資資本의 유입을 자극하기 위한 特許稅의 부과와 그밖의 財政的 誘因
- ⑩ 收益의 變動을 피하기 위한 生産物 種目の 多樣化의 필요성
- ⑪ 美國産業에 대한 反트러스트法의 압박⁶⁾

또한 1965년부터 1969년까지의 期間으로서 海外에 대한 企業進出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요한 投資擴大 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國內企業에 필요한 勞動力의 부족 때문에 勞賃이 싼 自由中國에 대한 進出이 두드러졌다.
- ② 한편 이 무렵부터는 태국에는 主要企業의 進出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同國에 대한 投資가 감소되었고 1965년을 기점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대한 製造業의 進出이 크게 증가하였다.
- ③ 1966년부터 1967년까지에는 캐나다와, 페루에서 銅鑛山開發을 위한 投資가 대폭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美國에 對美主要輸出品製造業의 販賣會社나 支店의 擴大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6) U. S. Department of Commerce, Policy Aspects of Foreign Investment by U. S. Multinational Corporation, Jan., 1972, p. 14.

1970年代는 資本自由化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海外投資가 地域別, 業種別로 多樣化되었다. 특히 美國을 위시하여 先進國들의 獨占業體들이 市場爭奪戰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흐름속에서 多國籍企業의 生成 및 擴散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生成動機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歴史的인 側面에서 살펴보면 多國籍企業은 海外直接投資로부터 생성된 것이며 天然資源指向型의 投資誘因, 市場指向型의 投資誘因, 生産要素指向型의 投資要因 등이 그 動機가 되고 있다. 이러한 誘因들에 의한 資本流出은 外國子會社의 기초를 이루었고 이들은 최근에 이르러 母會社와 더불어 世界를 그 生成과 市場의 터전으로 보는 企業으로 發展하였다. 그러나 海外直接投資가 필연적으로 多國籍企業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美國會社는 外國에 設立된 海外會社를 所有하고 있었다. 이들의 多國籍企業과의 차이점은 子會社에 대한 統制와 活動의 統合面에서 찾을 수가 있다.

1950年代 以前에는 海外의 子會社들이 母會社에서 마치 독립된 것처럼 活動하였다. 비록 母會社가 몇 가지 주요 부분 특히 財政面에서 終局的인 統制를 가하긴 하였으나, 子會社는 스스로 특유한 商品을 生産하고 獨立的인 生産技術을 구사하여 그들 자신의 市場去來方式을 채택하고 그들 스스로의 資金計劃을 자유로이 집행하였다. 子會社의 자율로부터 集中化된 統制와 統合으로의 移轉으로 참다운 의미의 多國籍企業이 生成되었고, 이로 인해 多國籍企業이 미치는 세력에 대하여 現地國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直接投資의 증가 이외에 政府의 諸般政策은 投資의 形態와 方向을 결정하고 多國籍企業의 成立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貿易에 대한 政府의 規制는 投資를 한층 더 매력있게 만들고, 市場을 확대하고 개설하려는 政府의 政策은 多國籍企業의 形成을 촉진시켰다. 貿易障壁 등 去來의 制限은 投資의 移動을 가속시켰으며, 多國籍企業의 기초를 확장시켜 주었다. 또한 制限의 除去는 여러 子會社들을 연결하여 多國籍企業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때, 一般的으로 企業外的 要因인 環境要因과 企業內的 要因인 經營要因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多國籍企業이 生成된다고 볼 수 있다.

環境要因을 살펴보면, 오늘날 國際關係는 雙務主義로부터 第2次大戰 以後에는 多國籍主義로 變遷하여, 利益機會를 찾아 各國의 産業과 企業이 直接去來 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으며 無償 및 有償援助, 技術協力, 地域間 經濟協力 등 經濟協力強化가 多國籍化를

촉진시켰다. 또한, 美·蘇兩大陸勢力的 對立으로 인하여 西方諸國은 集團安全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政治, 軍事, 經濟的 同盟關係를 형성하여 緊密한 紐帶를 유지함으로써 多國籍化를 촉진시킨 要因이 되었다. 開途國들도 經濟的 自立을 위하여 外國投資誘致에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自由貿易地帶를 설치하는 등 各種 稅制上, 金融上 特惠를 부여하였는데 이 또한 多國籍化의 促進要因이 되었다.⁷⁾

經營上 要因에 의한 多國籍化 動機를 살펴보면, 마케팅 側面에서는 既存市場의 확대 혹은 競爭會社로부터의 市場防衛 등의 市場保護戰略이 主要因이었다.⁸⁾ 生産的 側面에서는 勞賃의 低廉, 原資材 確保의 容漁 및 유리한 立地條件 등에 의하여 第3國으로 進出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또한 財務的 側面에서는 各種 關稅 및 稅金의 免除, 資本 利益金의 자유로운 移轉과 償還, 輸入國의 資本市場을 통한 容漁한 資本調達과 輸出融資 등의 惠澤을 얻을 수 있다. 全般的 經營上的 要因을 살펴보면, 最高經營層의 海外進出 意慾과 通信, 輸送 등의 발달에 따라 世界 어느 곳에서라도 利潤의 追求가 可能하게 되며, 우수한 經營管理技法을 現地에서 活用할 수 있게 되고 産業技術이 보다 낙후된 곳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企業의 多國籍化가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企業들이 多國籍化하는 것은, 첫째, 國內運營에서 追求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目的을 追求하기 위해서이다. 즉, 企業體의 生存, 利益, 賣出額, 市場占有率, 企業環境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 등에 관하여 國內市場에서 달성가능한 것 이상을 海外市場에서 달성하려는 것이다. 어느 企業이든 國內에서 運營하는 것보다 利益이 적을 경우에는 海外進出을 거릴 것이며, 最高經營層의 海外進出 意慾이 아무리 크더라도 國內에서 確保할 수 있는 利益機會를 멀리하면서까지 海外進出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多國籍化 되어야 실현할 수 있는 目的, 즉, 海外建設, 海外生産, 海外資源開發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開途國들의 海外直接投資 目的은 投資國 및 投資國의 經濟環境, 投資業種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先進國에 대한 直接投資는 保護貿易主義的 輸入規制措置를 극복하여 海外市場을 確保하고, 한편으로는 子會社를 통해 先進國의 첨단기술을 흡수하려는 복합된 動機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전자, 금성사, 삼성전자 등의 美國 및 유럽 現地生

7) 安台鎬, 金澤完, 前掲書, pp. 39-40.

8) E. J. Kolde., *International Business Enterprise*, op. cit., pp. 163-168.

潘柄吉, 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85, pp. 26-34에서 再引用.

産工場の設立이 그 좋은 例이다.

둘째, 後發開途國에 대한 投資는 後發開途國의 人件費가 낮다는 점과 子會社를 통하여 後發開途國의 保護貿易障壁을 뚫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後發開途國의 풍부한 資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開途國에서 海外投資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免稅, 減稅 등 各種 投資誘因은 海外市場에서의 利益機會를 찾는 多國籍企業에게 좋은 動機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에 海外投資가 집중되어 있음은 주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춰, 우리나라의 企業들도 불리한 世界企業環境과 競爭位置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海外市場指向的인 成長 및 發展戰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⁹⁾

- ① 우리나라 經濟와 企業의 海外依存度는 80% 정도로 世界的으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 ② 우리나라 企業들은 國內企業環境과 海外金融環境의 변화에 적극적인 자세 세제로 適應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도, 海外市場 進出·介入을 확대하고 多國籍化할 필요가 있다.
- ③ 우리나라 經濟와 企業의 성장주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④ 우리나라 企業들이 國際經營과 多國籍化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經濟의 開放體制化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⑤ 우리나라 企業들은 다른 第3世界 多國籍企業들을 상대로 그들의 本社國市場 및 第3國市場에서 效果的으로 競爭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기 위해서도, 海外市場 進出·介入과 多國籍化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⑥ 오늘날의 世界趨勢로 보아, 적어도 有數한 企業들의 경우 世界市場을 무대로 하여 活動하는 것은 正常的인 企業活動에 속하지, 결코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第 2 節 多國籍企業의 生成理論

多國籍企業의 發展過程에 대한 研究는 1950년에 윌킨스(M. Wilkins)에 의하여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는 一國의 國際計定과 海外投資와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에 있어서

9) 潘柄吉, 國際經營論, 博英社, pp. 19-23.

否定的인 見解를 제시하고 海外投資活動을 행하고 있는 産業 및 企業經營者들의 動態的 行動을 강조하고 있다.¹⁰⁾

또한 찬들러(A. D. Chandler)는 企業의 國際經營活動을 고찰하는데 있어 各 發展段階別로 적절한 組織과 改編을 중시하고, 經營戰略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企業의 經營活動에 있어 環境에 대하여 動態적으로 適應·挑戰하는 多國籍企業 經營者의 態度를 중요시하고 있다.¹¹⁾

多國籍企業에 관한 研究를 2開國 베이스(base)로 최초의 先驅的 研究를 시도한 學者는 바로우(E. R. Barlow)였다. 바로우는 1953年 美國에 의한 對멕시코 投資를 구체적인 事例를 들어 열거하고 海外直接投資와 間接投資(證兼)를 區別하는 基準으로서, ①生産物에 대한 統制, ②海外子會社の 最高經營人事의 任免과 昇進, ③會計組織과 財務報告에 대한 統制, ④現地事業活動의 확장에 관한 意思決定 등 네 가지 主要 政策領域을 지적했다.¹²⁾ 이러한 바로우(E. R. Barlow)의 分析研究는 英國의 더닝(J. H. Dunning)에 계승되어 「英國製造工業에 대한 美國의 投資에 관한 理論的·實證的 研究」¹³⁾를 파생시켰으며, 多國籍企業과 受容國과의 상호간의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도구로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企業의 多國籍化에 대한 定形화된 一般理論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몇가지 主要 理論들을 고찰해 보면 대충 다음과 같이 微視的 接近理論과 巨視的 接近理論으로 兩分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微視的 理論

(가) 適應·力學關係的 理論

國際經營學的 側面에서 體系的 展開를 한 페이어웨더(J. Fayerweather)의 多國籍企業

10) Mira Wilkines, The Emerge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1) A. D. Jr. Chandler, Strategy and Structure, M.I.T., 1962.

12) E. R. Barlow, Management of Foreign Manufacturing Subsidiaries, 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ool, 1953, p.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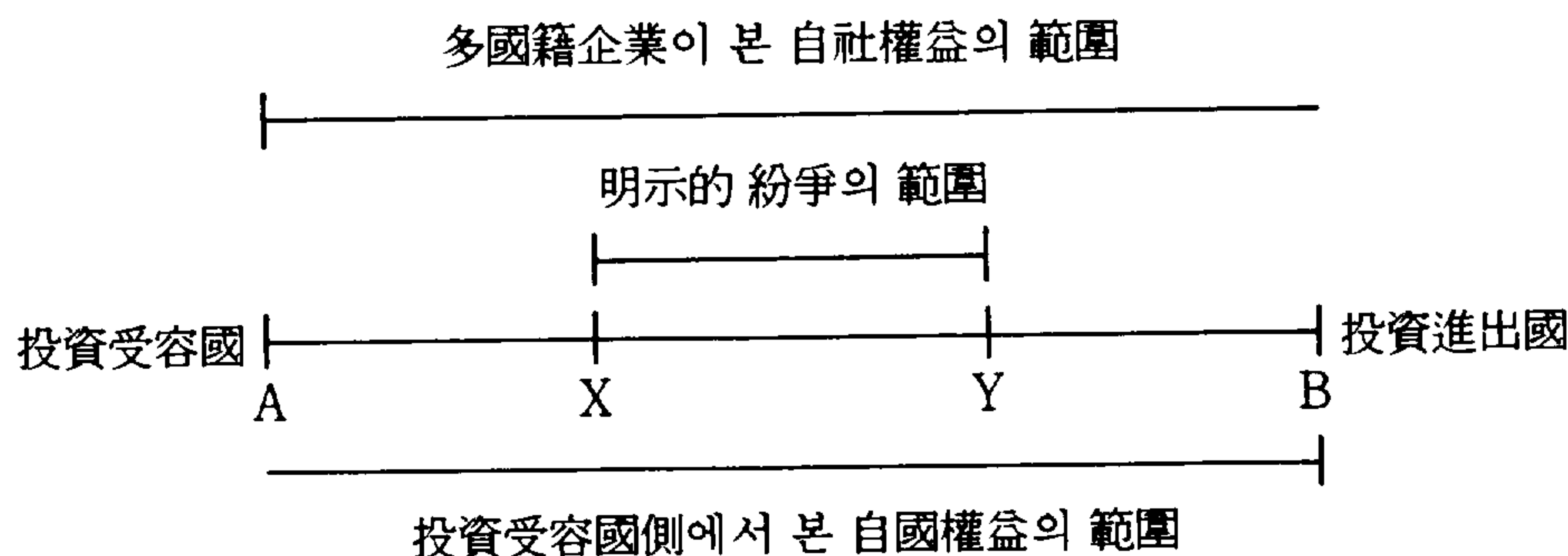
13) J. H. Dunning, American Investment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London : Allen & Unwin, 1985

에 관한 理論도¹⁴⁾ 높이 評價되고 있다. 그는 國際經營이란 2開國 以上에서 經營活動을 展開하는 것으로 定義하고 國境이라고 하는 要因을 重要時하고 있다.

國際經營學的 側面에서 國境을 초월한 多國籍企業의 經營活動은 그 活動主體가 되는 多國籍企業과 投資受容國社會와의 相互作用이 발생하게 되는데 適應과 革新의 두가지 상충된 戰略的 問題가 대두되고 投資受容國의 내셔널리즘과 國益間에 對立하게 된다. 이러한 對立을 解決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제시된 政策論이 適應·力關係的 方法論이다. 投資受容國 및 多國籍企業이 그들의 권익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多國籍企業 및 投資受容國의 適應範圍인 第3의 文化가 파생된다.¹⁵⁾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圖1〉과 같다.

〈圖1〉 權益의 關係와 紛爭의 範圍



資料 : J. Fayerweather,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A Conceptual Framework* N.Y. McGraw-Hill, 1969, p. 107.

第3의 文化의 파생은 投資受容國 및 多國籍企業이 그들의 權益인 AX 및 BY를 X점과 Y점까지 진전시키고 노력하는 데서 생긴다. 또한 XY를 점하는 明示的 紛爭을 適應的 接近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力關係가 그것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力關係에 의한 國際經營 活動은 〈圖2〉에 나타난 바와 같이 諸機關, 諸그룹과의 力關係의 저항에 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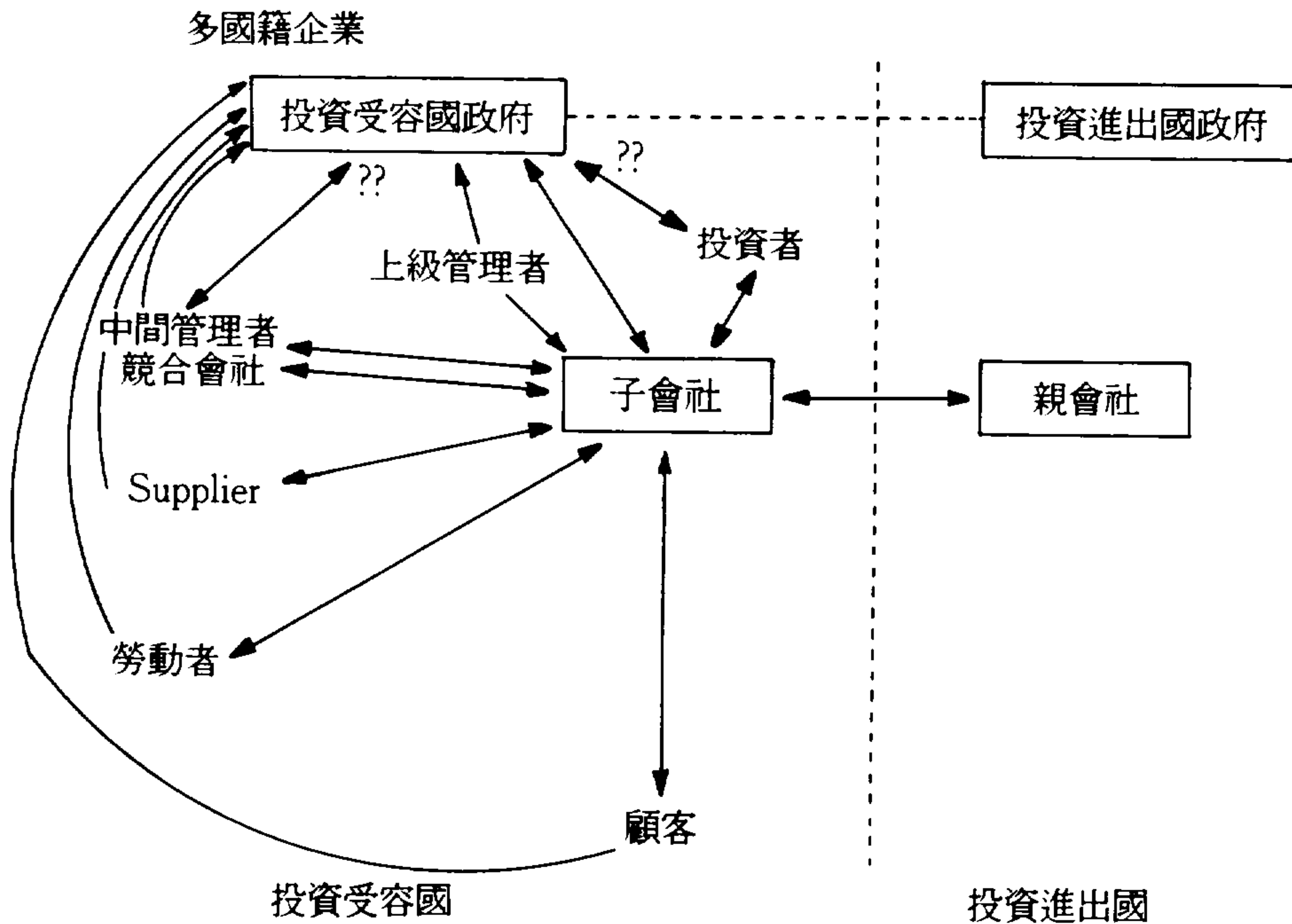
14) John Fayerweather,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A Conceptual Framework*, N.Y. : McGraw-Hill, 1969, pp. 1-5.

15) Ibid, p. 112.

여기서 제3의 文化라함은 국제협조를 상징하는 노력이며, 투자국과 수용국사이에 파생되는 융합된 새로운 文化를 의미한다.

여 전개되는데 이러한 力關係의 均衡이 붕괴될 때 마찰이 발생하고, 내셔널리즘이나 國益의 高揚이 발생된다. 페이어웨더는 이와 같은 多國籍企業의 國際經營活動의 概念把握方法은 力關係的 接近方法¹⁶⁾이라고 부르고 있다.

〈圖2〉 國際經營에 의한 力學關係



資料 : J. Fayerwesther. *op. cit.*, p. 118.

이 逆關係가 붕괴될 때 마찰이 발생하고, 내셔널리즘과 국익의 고양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이 直接投資를 행하는 경우 投資受容國側 逆關係的 適應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多國籍企業이 直接投資를 행하는 경우 투자수용국의 내셔널리즘과 국익과 투자수용국의 直接投資에 대한 내셔널리즘과 국익간의 逆關係的 적용이 상호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여 순수 국제경영학의 경영활동의 본질을 多國籍企業을 중심으로 그 동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直接投資에 의한 제3의 문화의 파생에 이어서 기술 및

16) Ibid., pp.113-125.

소득·문화수준 등이 대등한 先進國간에 성립될 수 있으나, 先進國간의 상호 直接投資와 先進國과 後進國間에는 그 성립이 명확하고 또한 내셔널리즘과 국익은 무시하게 되는 현실세계에서 이 이론은 그 설득력이 부족하고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內部化理論(theory of internalization)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 및 존재이유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러그만(A. M. Rugman)의 內部化理論(theory of internalization)¹⁷⁾도 중요시되고 있다.

내부화란 多國籍企業 내에 시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지만 多國籍企業이 불완전시장에 대체하는 내부시장을 창설하고 자원배분과 유통상의 문제를 경영관리명령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때 기업내부 가격은 기업의 조직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내부시장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시장과 똑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多國籍企業에 의한 내부화의 행동을 국제적 차원까지 확장해서 多國籍企業이 무역거래를 대체하게 되는 외국시장의 참가방식으로서 라이선싱보다 直接投資를 선호하는가를 설명한 이론이다. 즉 多國籍企業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자신의 시장우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내부조직화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多國籍企業이 기업특수적 우위를 내포하는 최종물의 생산판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식 및 기타 우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라이선싱은 지식의 우위를 확산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直接投資의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이 이론은 多國籍企業이 국제경영학의 측면에서 불완전시장을 이용한 투자단계에서 輸出·라이선싱보다 直接投資를 선호하게 된 동기를 규명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多國籍企業을 輸出·直接投資·라이선싱 등의 각각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한 단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의 거래비용, 정보와 지식 등에 대한 우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所有政策이나 危險分散을 위하여는 더욱 이 이론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17) A. M. Rugman, , International as a Genral theory for FID : A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6, Heft 2, 1980. 러그만 외에 내부화 이론을 다국적 기업 측면에서 연구를 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S. H. Nymer (1960); 다국적 기업 연구에 시장불완전 도입.

H. Johnson (1970); 다국적 기업 연구에 정보개념 도입.

P. J. Buckley & M. Casson (1976); 중간재 시장의 내부화.

2. 巨視的 理論

(가) 折衷理論

그 후 더닝(J. H. Dunning)은 多國籍企業에 의한 對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分野에서 Leading 學派의 리더로서, 그는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際生産活動을 理論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 아직까지의 諸理論들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합화한 折衷理論(the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을 제창하였다.¹⁸⁾

더닝은 이와같은 구조변화를 망라하는 理論을 주장하고, 이 결과 既存理論과의 折衷의 必要性을 주장하고 있다.¹⁹⁾ 즉, 企業은 對外直接投資에 의해서 國際生産活動에 참가하게 되고 國際生産의 접근을 전통적 輸出 및 라이선싱(licensing) 活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決定하는 條件으로서 더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條件은 當該産業이 外國企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企業의 特殊的 優位(firm's ownership specific advantage)²⁰⁾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인데, 이 企業特殊的 優位로서는 各種 經營資源에 대하여 企業이 갖고 있는 評價能力이다. 둘째 條件은 企業이 지속적인 優位를 유지하기 위한 上記 企業特殊的 諸資源은 外國企業에 대한 讓渡 및 貸與, 즉 外部化 하는가 혹은 自社 그룹內에서 專有, 즉 內部化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것인데, 더닝은 이것

18) J. H. Dunning, "Explaining Chan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In Defense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41(No), pp. 269-296.

19) 多國籍 企業에 대한 既存理論으로서,

- ① 맥도갈(G. D. A. MacDougall)의 利潤率隔差理論(theory of different benefits and costs)
- ② 앨리버(Robert Z. Aliber)의 資本比率隔差理論(theory of difference capitalization rates)
- ③ 小宮隆太郎의 經營資源移轉論(theory of international transfer of management resources) 등이 있다.

申東洙, 多國籍企業論, 貿易經營社, 1982, pp. 74-98.

20) 더닝이 제시한 企業特殊的 優位로서,

- ① 규모와 확립된 地位, 製品, 또는 過程의 多樣化, 分業과 特化의 優위를 이용 하는 능력, 독점력, 양질의 자원과 이용, 所有權으로서의 技術, 商標, 生産營利, 組織마케팅 시스템, 연구. 개발(R&D)능력, 人的 資本의 蓄積과 經驗, 政府保護, 情報, 投入力, 시장에 관한 보다 우월한 지식 또는 유리한 조건에서의 接近評價力.
- ② 要素賦存, 市場 및 政府의 측면에서 본 國際的 上達를 이용하는 능력, 위험을 분산하는 능력 등을 들고 있다.

J. H. Dunning, op. cit., p. 276.

을 內部化 인센티브(incentive)라고 부르고, 이 內部化 인센티브가 그 對應하는 企業能力 여하에 따라서 國際事業活動에 대한 最適參加方法이 決定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그리고 세번째 條件은 生産據點을 本國에만 두지 않고 外國에 입지하는 경우에 上記의 諸優位를 유리하게 향유할 수 있는 立地特殊的 諸變數를 들고 있다. 企業에 의한 國際生産에 대한 投資는 어떤 國家의 企業에 의해서 企業特殊的 優位가 클수록 內部化 인센티브는 크다. 따라서 對外直接投資도 선호하게 된다는 理論이 折衷理論이다.

이와 같은 折衷理論의 特徵은 多國籍企業의 國際生産에 관한 理論이지만 同理論에는 國際事業活動의 주요한 投資方式, 즉 對外直接投資와 輸出 및 라이선싱 등의 契約에 따른 諸資源의 移轉이 모두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과, 主要投資方式을 多國籍企業이 선호할 때 그 基準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나) 寡占理論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는 不完全한 競爭市場에서 이루어지며 直接投資의 원인을 獨占的 優位性에서 구명한 理論으로 킨들버거(C. P. Kindleberger)²²⁾와 하이머(S. Hymer)²³⁾가 주창하였다.

하이머는 本 理論을 產業組織論的 接近方法으로 구명을 시도함과 동시에 로손(R. Rowthorn)과 더불어 相互浸透論까지 發展시키고 있다. 하이머는 產業組織論的 接近方法을 통한 相互浸透論을 설명하기 위해 로손과 함께 다음과 같은 寡占모델²⁴⁾을 사용하였다.

$$G_s > G_e \geq G_p$$

G_s : 美國系 子會社의 成長率

G_e : 美國系外 子會社의 成長率

G_p : 美國本社의 成長率

21) J. H. Dunning, *ibid.*, p. 276.

22) C. P. Kindleberger, *American Business Abroad*, Yale University Press, 1969, P. 13.

23) S. Hymer, "United States Investment Abroad", A Paper Presented to the Thir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Sydney, Aug. 1970, p. 16.

24) S. Hymer and R. Rowthorn, *Mutination Corporation and International Oligopoly; The American Challenge*, A Symposium, The M. I. T. Press, pp. 71-72.

上記 모델에서 美國의 多國籍企業은 $G_e \geq G_p$ 이기 때문에 유럽企業으로부터 挑戰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유럽企業은 $G_s > G_e$ 이기 때문에 美國企業의 挑戰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直接投資는 不完全市場에서 이루어지고, 直接投資의 誘因은 獨占的 優位性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水平的 投資, 즉 同一系列의 製品을 海外에서 生産하기 위한 投資는 投資進出國 및 投資受容國의 市場構造가 寡占的 特性을 갖는 産業部門에서 重點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寡占理論을 背景으로 하는 하이머의 多國籍企業의 概念은, ①相互投資나 ②企業經營組織의 全世界的인 확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는 相互浸透를 促進하고 相互依存의 관계로 發展하게 된다. 따라서 하이머는 多國籍企業의 多國籍化 過程은 國際寡占的 市場分割을 目標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過程은 民族國家의 主權을 무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에 의한 全世界的인 組織, 戰略網의 확충은 生産據點의 確立, 子會社 群의 結속과 抗衡세력을 저지하려고 하는 執權的 시스템의 構築으로 보고 있다.

(다) 製品壽命週期理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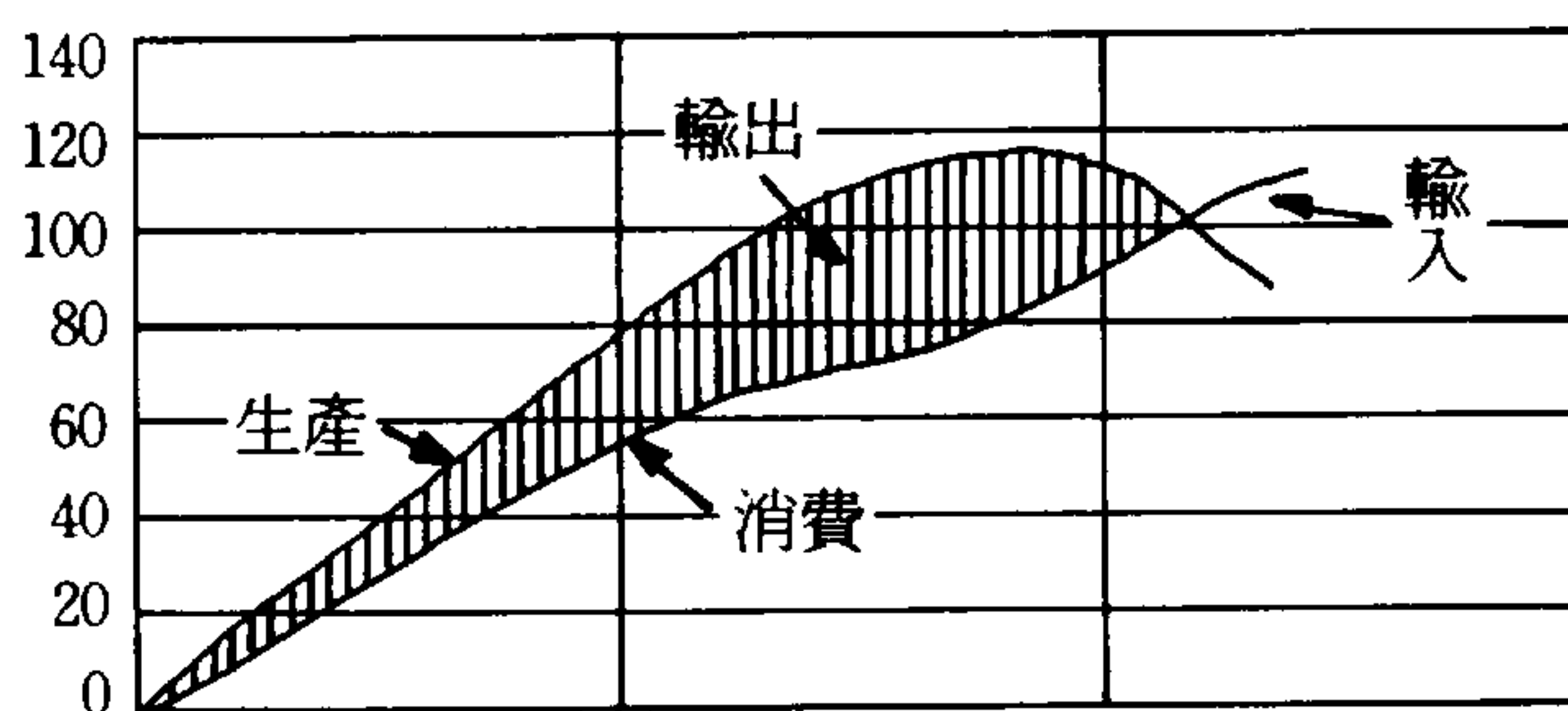
허쉬(S. Hirsh)가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그 후 버어논(R. Vernon)과 스토바우(R. B. Stobaugh)²⁵⁾가 완성한 것으로 國際貿易 및 投資理論의 기초가 되었던 比較生産費理論에 製品週期를 適用시켜 動態的 生産立地理論으로 發展시킨 것이다. 즉 先導的 工業國, 貿易依存도가 높은 先進國 및 低開發國에 대한 各 生産要素의 相對價格의 量과 生産要素의 投入度を 믹스함으로써 製品壽命週期の 세 가지 段階, 즉 導入期, 成長期, 成熟기에 따른 製品生産의 最適立地를 구하고자 전개한 理論이다.

이 모델에 의해 美國의 製造企業型 多國籍企業의 成長過程을 生産據點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작성한 假說圖가 다음의 〈圖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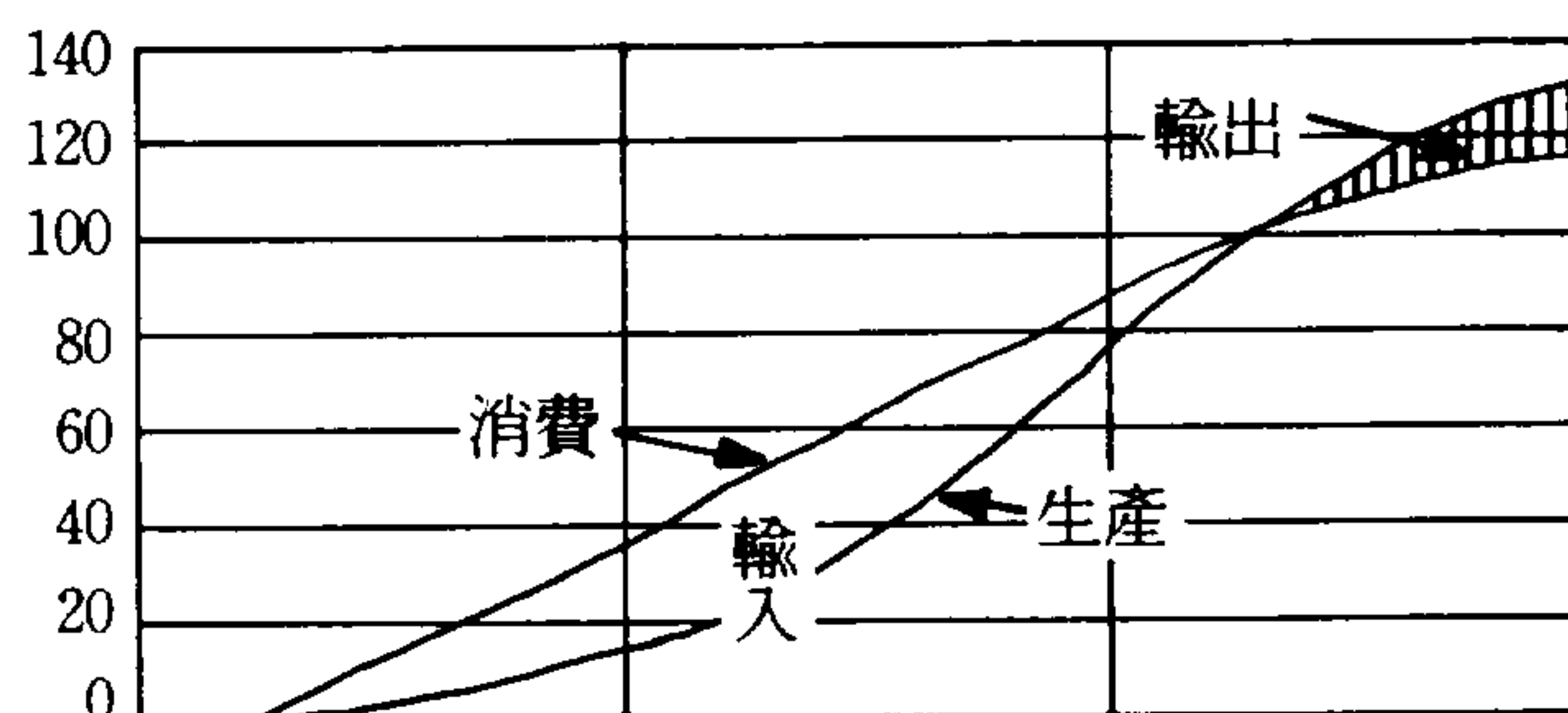
〈圖 3〉에서 橫軸은 製品壽命週期の 段階에 의한 製品, 즉 新製品, 成熟製品, 標準製品을 나타내고 縱軸은 當該製品의 生産額과 消費額을 나타내고 있다.

25) 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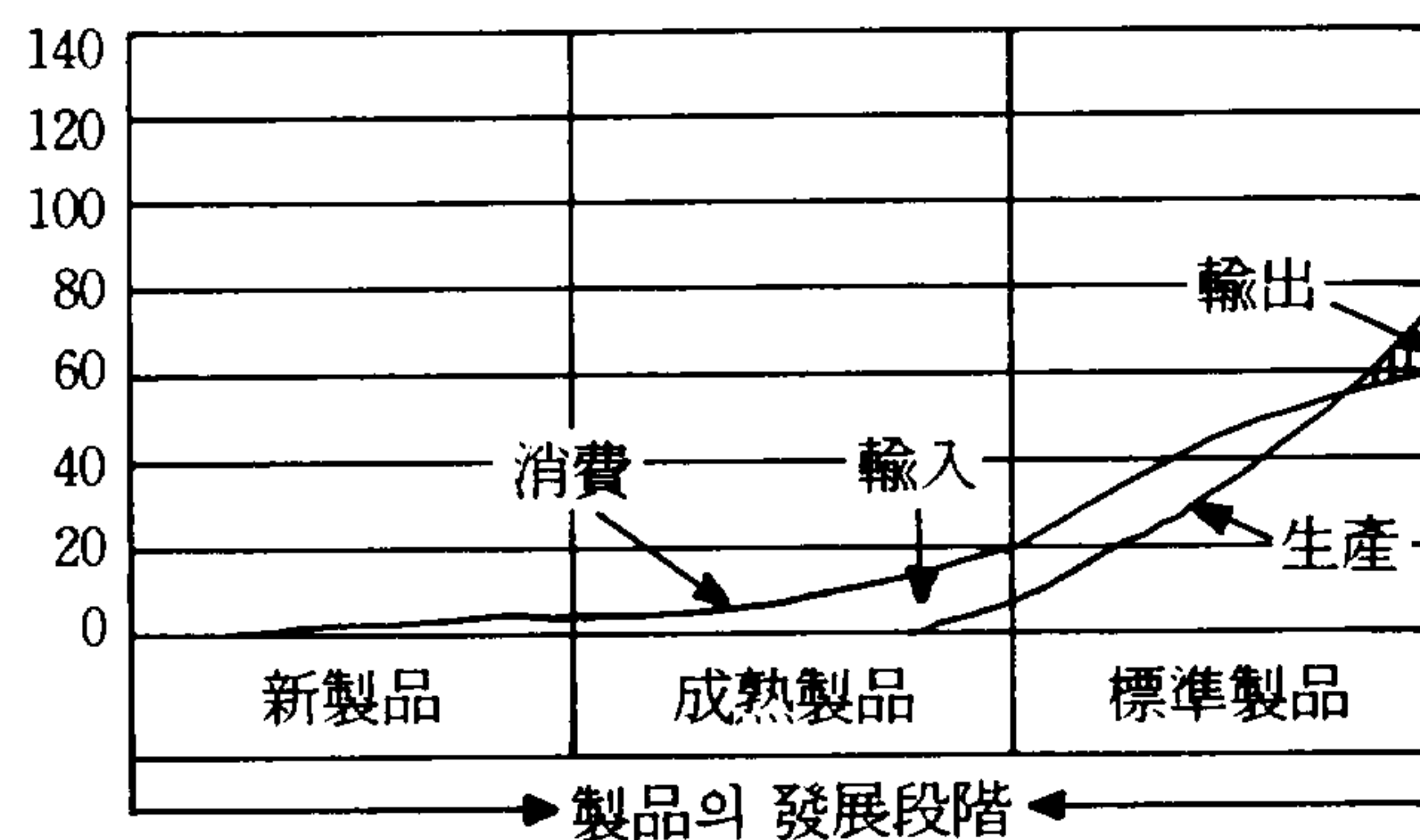
〈圖3〉 製品週期에 따른 多國籍企業의 立地



餘他の 先進諸國



低開發諸國



資料：R. Vern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of Economics*, LXXX, No.2(May, 1969), p. 199.

上記圖表에서 新製品은 처음에 美國에서 生産되어지고 급속히 成熟製品으로 發展하게 된다. 이 成熟製品은 美國에서 다른 나라로 輸出되지만 그 후 生産立地가 美國 이외의 先進國에 移轉되어 중국에는 오히려 이들 製品을 輸入하는 입장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標準

製品이 되면 生産立地는 低開發國으로 이전되어지게 된다.

첫째로, 新製品 開發段階에 있어서 新技術은 不安定하고 新製品은 市場에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規模의 利益을 충분히 향유할 수 없고, 製品 賣出額의 급격한 증가도 없으며, 價格에 대하여 非彈力的이다.

그러나 新製品의 開發은 美國市場이 가장 유리한데, 그 이유는 美國市場이 가장 높은 평균소득의 消費者로 구성되어 있고 高度의 技術開發能力과 풍부한 資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成熟期에서는 製品標準化가 어느 정도 진전됨에 따라 大量生産方式에 의한 規模의 經濟의 利益을 향유하고, 賣出額이 증가하는 반면 新規 參加企業이 증가하고 生産者의 競爭이 격화된다. 그 결과 需要는 價格에 대하여 彈力的으로 되고 製品코스트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製品差別化의 경향을 띠는 것도 아니다.

셋째로, 標準化製品의 段階에서는 新製品이나 成熟製品의 段階와는 달리 研究開發活動이나 經營能力의 重要性보다도 未熟練勞動이나 半熟練勞動이 필요하다. 따라서 産業立地上은 低賃金の 開發途上國이 競爭上 優位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製品壽命週期 理論에도 問題點이 있다.

이 PLC 理論은 傳統的 國際貿易理論에서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PLC에 기초하여 전개된 近代 國際貿易理論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고, 技術格差와 賃金格差에 의한 美國系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를 實證적으로 규명하고는 있으나, 이 理論이 技術優位性에 입각한 PLC 변동이 低賃金 코스트의 이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資本集約的 産業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技術格差와 賃金格差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技術革新에 수반하는 低賃金 貿易의 成立條件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第 3 節 企業의 多國籍化 發展段階理論²⁶⁾

企業이 多國籍化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論理的 段階를 거쳐야 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 볼 論理的 段階들은 모든 企業體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러한 段階를 거쳐서 發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 일

26) 潘柄吉, 國際經營論, 博英社, pp. 19-23.

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企業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論理的 段階를 거쳐서 發展했고, 그러한 論理的 段階를 거친 企業들이 성공하고 있다. 그 發展段階는 다음과 같다.

(1) 間接輸出

生産企業體가 처음으로 海外市場에 進出할 때는 가장 基本的으로, 商品을 輸出하는 戰略을 活用하며, 그 중에서도 間接輸出로부터 시작한다. 그러한 企業體는 輸出果 정도의 本社機構가 本社國에 위치한 輸出中間商・駐在外國人 바이어 등 國內輸出中間業體를 통하여 商品을 外國에 보내는 것이 間接輸出이다.

生産企業體의 販賣去來는 本社國에 위치한 輸出中間業體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本社國內의 輸出中間業體들이 실제로 外國의 現地輸入・流通業體나 現地企業體・實需要者에게 商品을 直接輸出販賣를 한다. 이와 같이 間接輸出은 가장 단순하고 수동적인 海外市場 進出・介入戰略 이다.

(2) 直接輸出

直接輸出은 生産企業體가 海外市場에 있는 現地輸入・流通業體, 商社企業體, 實需要者 등을 상대로 商品을 直接去來로 輸出販賣하는 것이며, 必要에 따라서는 現地輸入・流通業體와만 直去來를 하고 그가 現地の 商社企業體・實需要者 등에게 販賣하는 것을 말한다. 直接輸出을 할 정도의 生産企業體는 本社機構로서 輸出部를 운영하는 것이 普遍的이며, 現在의 輸出規模가 크거나 앞으로 海外市場 進出・介入을 확대할 計劃이 있을 경우에는 海外支社를 運營할 수도 있다.

(3) 技術的・管理的 노우하우의 輸出(國際라이선싱・國際技術提供・國際管理契約)

輸出로 일단 海外市場에 進出・介入하여 海外市場에서 運營하는 데 대한 經驗과 專門的 識見을 쌓은 企業體가 전환할 수 있는 다음 段階는 海外라이선싱・技術提供・管理契約 등을 활용하는 이른바 노우하우를 輸出하는 段階이다. 노우하우의 輸出을 하는 企業들은 주로 追加的 利益을 얻고 生産施設과 原資材를 라이선싱契約・技術提供契約・管理契約에 끼워서 販賣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지만, 海外直接投資와 같이 상당한 企業資源의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進出・介入을 하기 앞서 特定市場國에 대한 市場情報를 피이드백 받을 目的으로 活用한다. 우리나라의 企業들은 이러한 戰略이 主要戰略이 되지 못한다. 一般的으

로 우리나라 企業들의 技術的·管理的노우하우는 國際水準에 다소 떨어지므로, 우리나라 企業體들은 直接輸出을 하는 段階로부터 자체적으로 海外마케팅을 하는 段階로 轉換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4) 海外마케팅子會社를 통한 國際마케팅

生産企業體·綜合貿易商社 등 業體들이 자체적 海外마케팅을 하는 段階로 전환하는 것은, 특히 마케팅 側面에서 海外市場國들에 대한 개입과 침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다. 여기부터 特定企業體는 단순한 輸出만을 하던 段階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國際마케팅을 하는 段階로 돌입하게 된다.

한 企業體가 自體的 海外마케팅을 할 정도가 되려면, 本社의 海外運營機構를 海外運營本部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 企業體가 輸出만을 할 동안 海外市場國에 있는 現地輸入·流通業體가 대신 수행하던 販賣, 販賣서비스, 貯藏 등의 諸機能을 直接 맡아서 수행할 海外마케팅子會社를 반드시 現地法人體로 설립하고 運營해야 한다.

本社에 소속된 海外運營本部는 海外市場國에 위치한 現地마케팅子會社에게 商品을 直輸出하고, 그 子會社는 市場國內에 설립한 自體的 流通支社를 통해서 商品을 顧客들에게 販賣할 수도 있고 現地商社企業體·實需要者 등에게 直接販賣할 수도 있다. 그 結果로 企業體는 市場國의 마케팅環境에 맞추어서 子社商品을 直接 마케팅할 수도 있고 現地 流通經路에도 깊이 介入하기 때문에 賣出額 增大뿐만 아니라 市場情報 피이드백도 效果的으로 실현할 수 있다.

(5)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海外單純生産活動을 展開하는 多國籍企業

自體的 海外마케팅을 할 때에 비하여, 企業體가 現地生産子會社를 運營하게 되면 海外市場國에 더욱 많은 企業資源을 投入하여 企業的인 차원에서 介入을 확대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에 따르는 利點이 많다. 예를들면, 그 企業體는 本社와 本社國에서 直輸入한 原資材와 現地調達한 原資材를 합하여 現地市場需要에 맞게 製品을 改造·改良하여 生産·販賣할 수 있다. 그에 따르는 生産費, 物的流通費 등도 절감할 수 있다. 市場情報도 신속히 經濟的으로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完製品輸入에 대한 現地市場國의 規制와 障壁을 迂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多國籍企業體들은 대부분 이 段階에 와 있다.

(6) 海外直接投資을 擴大하여 海外統合生産活動을 展開하는 多國籍企業

(5)번과 같은 企業體가 다음으로 전개해야할 段階는 海外直接投資을 확대하여 여러 主要市場國 및 地域市場에서 統合된 製造活動을 展開하고, 그 企業體의 海外運營을 전담하는 本社國內子會社인 國際運營本部會社를 運營하는 多國籍企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多國籍企業들은 汎世界的 利益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多國籍經營의 모든 側面(生産, 마케팅, 財務, 人事, 研究開發 등)을 統制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7) 海外基地會社 및 海外運營會社 등을 거느린 多國籍企業

特定企業體는 海外運營을 통괄하는 子會社인 하나의 基地會社를 海外에 설치 運營할 수 있다. 또한 世界の 主要地域市場別로 여러 개의 海外基地會社를 運營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명칭은 地域本部會社라고 한다.

海外基地會社의 主機能은 製造・販賣・用役 등 多様な 分野에 걸쳐 地域市場別・市場國別로 一線企業活動을 담당하는 海外子會社를 위시한 다수의 海外運營會社를 管理的으로 統制하는 데 있다.

(8) 汎世界的 多國籍企業 내지 汎世界企業

한 企業이 多國籍化하는 마지막 段階는 本社나 本社國의 概念을 초월한 汎世界的企業 내지 世界企業으로 發展하는 것이다.

汎世界的 多國籍企業은 그 始發이 어느 나라이건 本社를 그 始發國에 두거나 또는 始發國을 本社國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始發國內에 설치한 企業體는 그 開發國만을 서어브 하도록 하고 동시에 海外市場國別 내지 地域市場別로 多數의 海外運營會社들을 運營하는 方法을 취한다. 世界的으로 여기까지 發展한 企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第 3 章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現況에 대한 分析

第 1 節 概 要

1. 概 況

韓國의 製造產業界에서는 序論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最近에 와서 급속도로 企業의 國際化 趨勢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韓國 企業의 海外 直接投資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家電·電子·自動車·鐵鋼·纖維·신발 다양한 業種의 企業이 연달아 海外企業進出에 나서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인도 및 홍콩 등 극소수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韓國 製造業의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海外直接投資의 規模도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968년 이후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 直接投資는 〈圖表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每年 增加하여, 1991년 6월 30일 現在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總 投資額이 12억 8,979만 3천 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론 韓國의 海外直接投資는 그 規模에 있어서 先進國에 크게 뒤지고 있음이 사실이나 그 增加速度는 오히려 先進國을 능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특히, 1987년에는 前年度에 비해 그 增加率이 125%(金額基準)나 되며, 1988年을 제외하면 그 增加率은 幾何學的으로 늘어나고 있다.²⁷⁾ 1991년 6月末 現在 韓國의 製造業部門의 海外直接投資는 629件에 12억 8,979만 3천 달러로, 이는 韓國 全產業業種에서 가장 큰 投資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韓國 製造業中 海外法人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300만불 이상의 기업만 하여도 〈附錄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50餘個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1년 6월 30일 현재 각 업체들이 韓國銀行에 투자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投資額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韓國의 海外投資가 대부분 小規模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몇몇 企業을 제외하고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 의미가

27) 韓國銀行外換管理部, 우리나라의 海外投資, 1988, pp. 4-5.

없을 수도 있으나 韓國 製造業들의 대표적인 海外投資 사례를 나타내줌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製造業의 海外進出 現況을 把握하고 豫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表1〉 製造業 海外投資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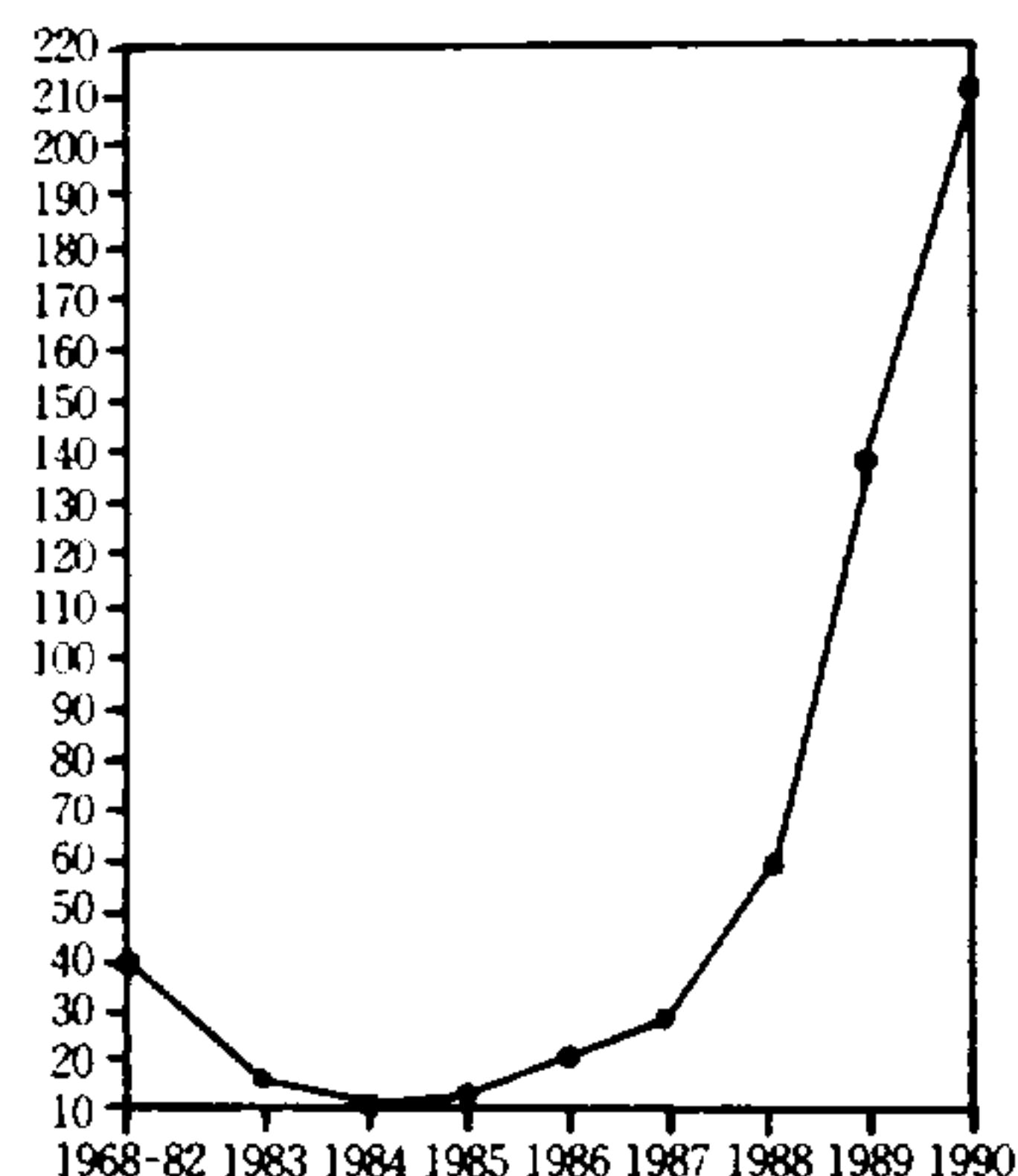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년도	건수	금액
1968-82	42	42,875
1983	14	26,479
1984	10	13,428
1985	11	20,105
1986	20	70,104
1987	32	157,746
1988	64	74,500
1989	136	223,091
1990	212	545,099
1991. 6. 30 (누계)	629	1,289,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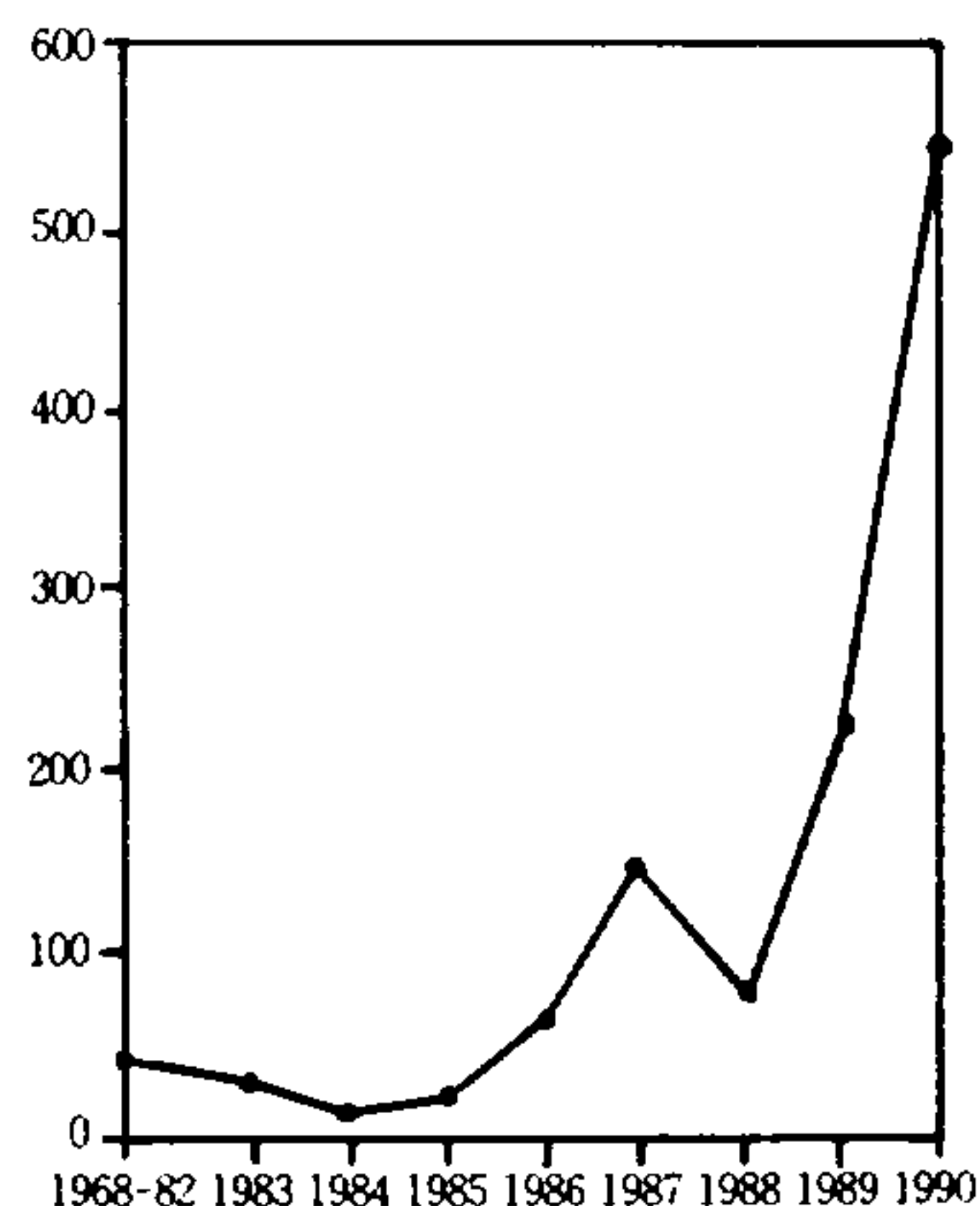
註：1) 總投資基準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1991. 6. 30 累計는 韓國銀行,
海外投資法人現況)

[件 數]



[金 額]



2. 動 機

海外直接投資는 資本, 技術 및 經營의 패키지인 經營資源의 이동현상으로서 기본적으로는 投資의 限界利益이 낮은 國家에서 높은 國家로 移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動機나 目的은 投資國의 對內外的 經濟事情은 물론 投資企業의 經營戰略 및 現地國의 投資環境 등 복합적인 要因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大韓商工會義所에서 128개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韓國製造企業들의 海外直接投資動機는 새로운 販賣市場의 개척과 投資地

域의 既存市場 保護를 目的으로 한 市場指向的 動機(35.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貿易 規制를 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第3國을 통한 迂廻輸出을 目的으로 한 경우, 수용국의 한 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회피, 그리고 現地の 낮은 生産費를 이용하기 위한 경우 등 生産 效率指向的 動機(33.7%)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

또한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國內生産에 필요한 原資材 조달을 위해서(13.3%), 母企業이 개발한 기계,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그리고 시대에 뒤진 母企業의 기계설비 판매를 위해서도 海外直接投資를 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러나 投資地域의 先進技術 및 經營能力을 습득하기 위해서 投資하는 경우는 4.4%에 불과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가 주로 生産費 및 賃金이 저렴한 東南亞地域과 같은 低開發國地域에 生産비절감효과를 위해 集中 投資되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表2〉 韓國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

單位 : %

投資動機	內 容	比 率
市場指向的	○ 投資地域의 既存市場 保護 ○ 새로운 販賣市場 開拓	35.3
生産效率指向的	○ 貿易規模를 가하는 第3國에 迂廻輸出 目的 ○ 受容國의 韓國商品에 대한 輸入規制回避 ○ 現地の 낮은 生産費 이용	33.7
資源 確報的	○ 國內生産에 필요한 原資材 調達	13.3
技術·機械販賣的	○ 母企業이 開發한 機械, 技術販賣 ○ 時代에 뒤진 母企業의 機械設備 販賣	13.3
先進技術習得的	○ 投資地域의 先進技術 및 經營能力 習得	4.4
計		100.0

資料: 大韓·서울 商工會議所, “國內企業의 海外直接投資實態分析 및 隘路點 調査”, 1987, 6., p. 11.

28) 商工部, 中小企業振興工團,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投資 現地法人의 運營現況實態分析”, 1988. 8. pp. 29-118.

第 2 節 製造企業의 海外進出 現況分析

1. 概 況

製造業 海外投資의 産業別 分布를 보면 〈圖表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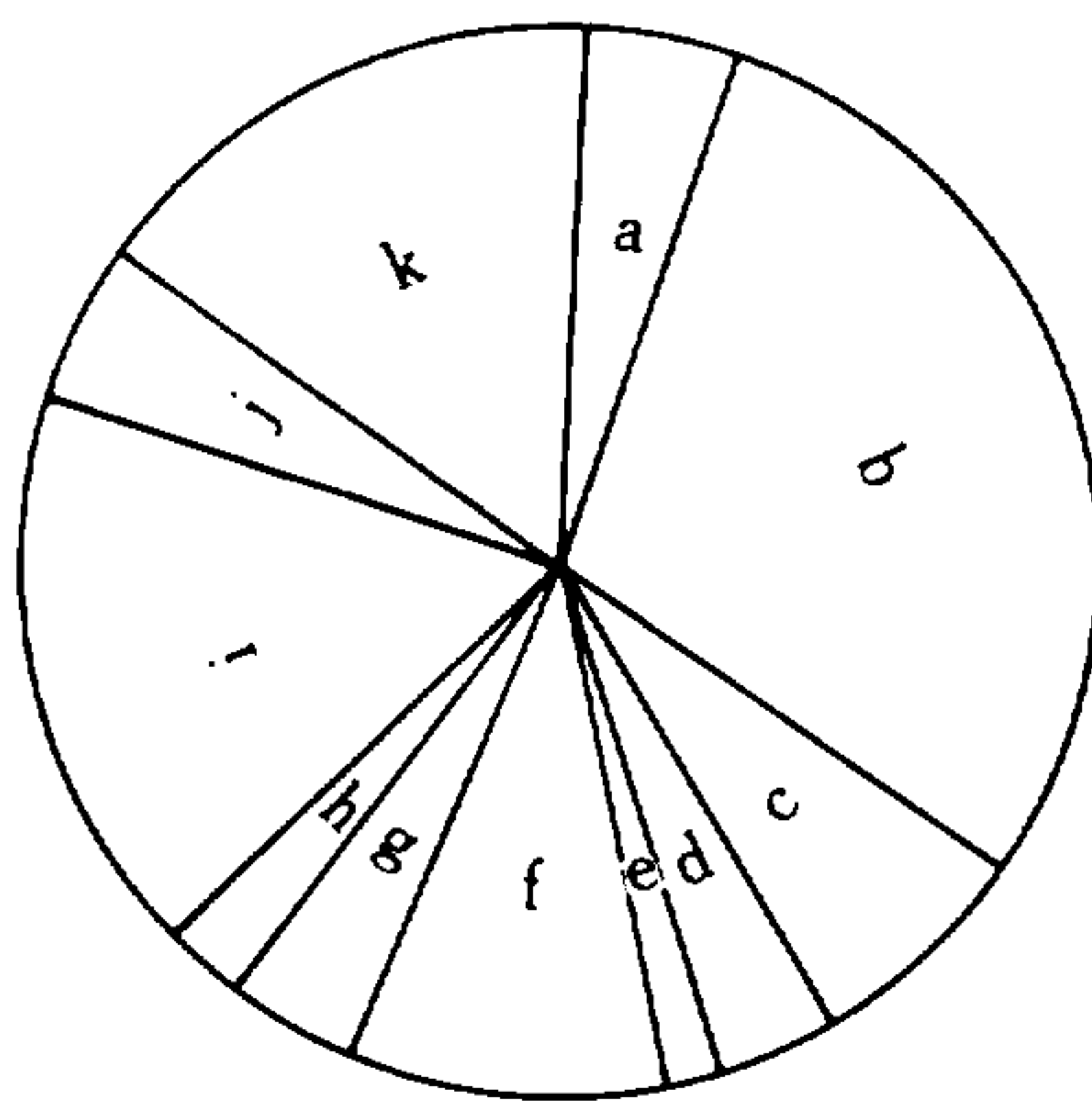
〈圖表1〉 件數 및 金額別 海外投資 現況

單位：件, 천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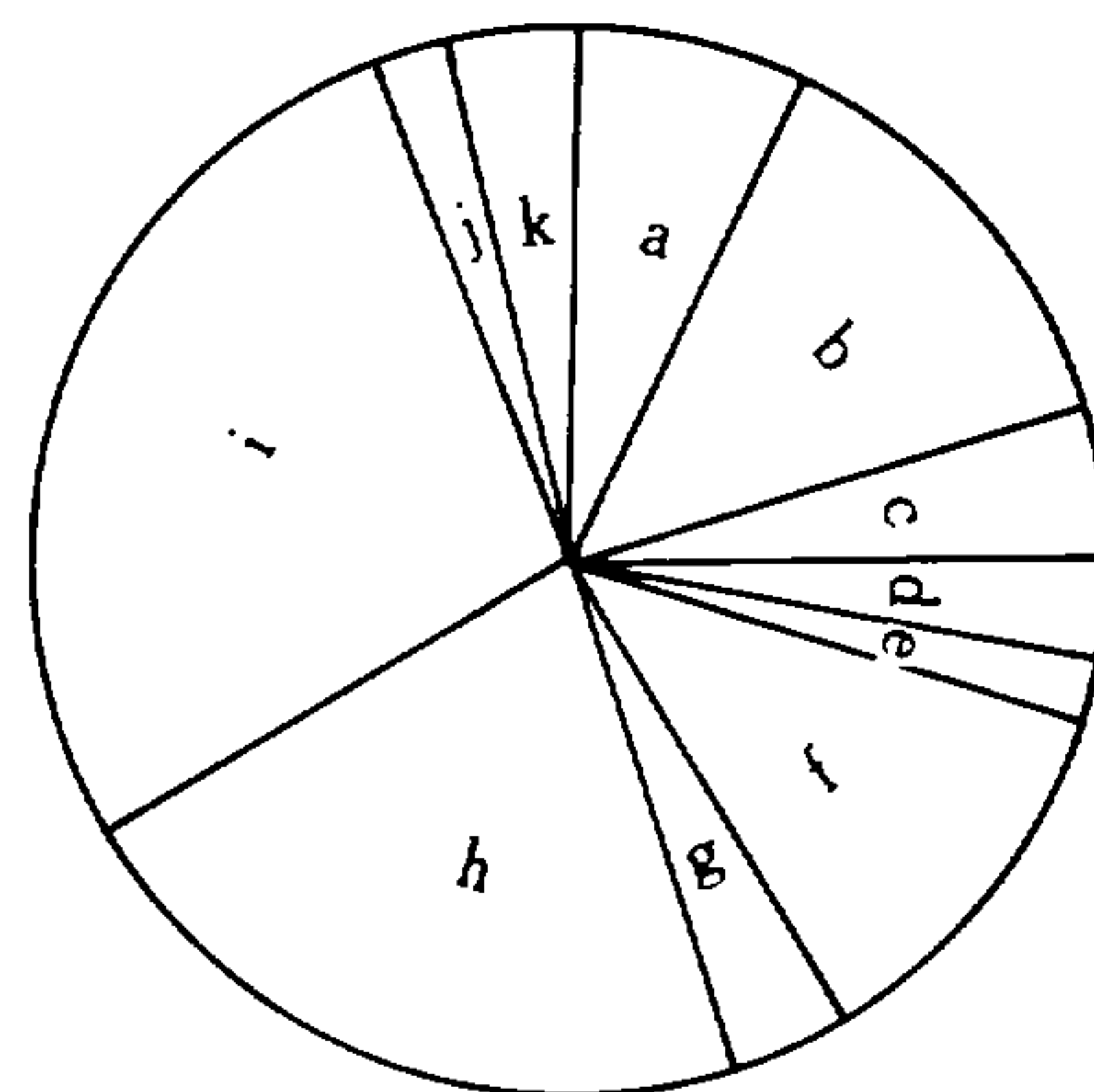
구분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기타제조	합계
건수	32 (5.1)	179 (28.6)	46 (7.3)	26 (4.1)	10 (1.6)	65 (10.3)	23 (3.7)	12 (1.9)	112 (17.8)	28 (4.5)	96 (15.3)	629
금액	88,231 (6.8)	180,817 (14.0)	54,504 (4.2)	41,500 (3.2)	24,040 (1.9)	167,181 (13.0)	47,741 (3.7)	260,708 (20.2)	343,154 (26.6)	28,124 (2.2)	53,793 (4.2)	1,289,793

$$\chi^2 = 267.29 > \chi^2_{10,0.05} = 19.6751$$

[件 數]



[金 額]



a: 음·식료품 b: 섬유의복 c: 신발가죽 d: 목재가구 e: 종이인쇄 f: 석유화학
g: 비금속광물 h: 1차금속 i: 조립금속 j: 기계장비 k: 기타제조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1991. 6. 30 현재 件數基準으로 전체 629건중 섬유·의복이 179, 조립금속이 112, 석유화학이 65, 신발·가죽이 46, 음·식료품이 32, 기계장비가 28, 목재·가구가 28, 1차금속이 12, 종이 인쇄가 10, 그외 기타합계가 96이다. 件數基準으로는 纖維·의복이 전체의 28.5%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다음은 조립금속 部門으로 17.8%를 차지하

였고, 석유화학이 10.3%를 차지하여 製造業 海外投資는 纖維와 縫製관련업종 그리고 電氣・電子 업종인 조립금속 部門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다시 金額基準으로 보면 조립금속이 全體投資 12억 8,979만 3천달러중에서 3억 4,315만 4천달러(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1차금속으로 2억 6,070만 8천달러(20.2%)이고, 그 다음은 纖維 및 의복으로 1억 8,081만 7천달러(14.0%), 석유화학 1억 6,718만 1천달러(13.0%), 음・식료품이 8,823만 1천달러(6.8%), 신발・가죽이 5,450만 4천달러(4.2%), 비금속광물이 4,774만 1천달러(3.7%), 목재・가구가 4,150만달러(3.2%), 기계장비가 2,812만 4천달러(2.2%), 종이・인쇄가 2,404만달러(1.9%), 그리고 기타업종이 5,379만 3천달러(4.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纖維・縫製類 등 勞動集約의 輕工業과 家電製品을 포함한 조립금속업종이 원화절상, 임금인상, QUOTA규제 등으로 인한 經營難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海外生産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1차금속중에서 포항제철이 미국 델라웨어에의 投資額은 1억 2,587만 5천달러나 되며, 이는 1차금속전체의 48.3%를 차지해 1차금속이 製造業 海外投資 중에서 20.2%나 차지하고 있다.

産業別 海外進出을 展望하자면 우선 纖維・縫製類등 勞動集約의 輕工業과 家電製品을 포함한 조립금속은 國內外的 經濟的 與件이나 經濟外的인 市場의 불안전요인 등이 존재하는 한 海外生産의 比率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生産기지의 海外이전은 계속될 것이다.

纖維・縫製류는 제3국에서 QUOTA우회輸出로서 활로를 찾고, C.TV., 電子 레인지, 냉장고, 음향기기 등의 조립금속업종은 現地市場에 직접 침투하여 組立生産을 하거나 후진국 등 제3국에 進出하여 現地市場과 輸出市場을 개척하고 있다.

기타 資本集約 또는 勞動集約産業인 1차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학 중에서 수입규제 品目은 現地組立을 차례로 시도할 것이고 그외에 勞動集約生産部門은 수평으로 國際分業시켜 生産原價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각 生産部門마다 전문화하여 부가가치를 많이 創出할 수 있는 국가로 移轉해 나가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외에 최종소비재상품, 음・식료품이나 기타 일반잡화는 市場의 특성에 맞게 쉽게 개발 보급하기 위해 現地에서 生産하는 방법을 많이 考慮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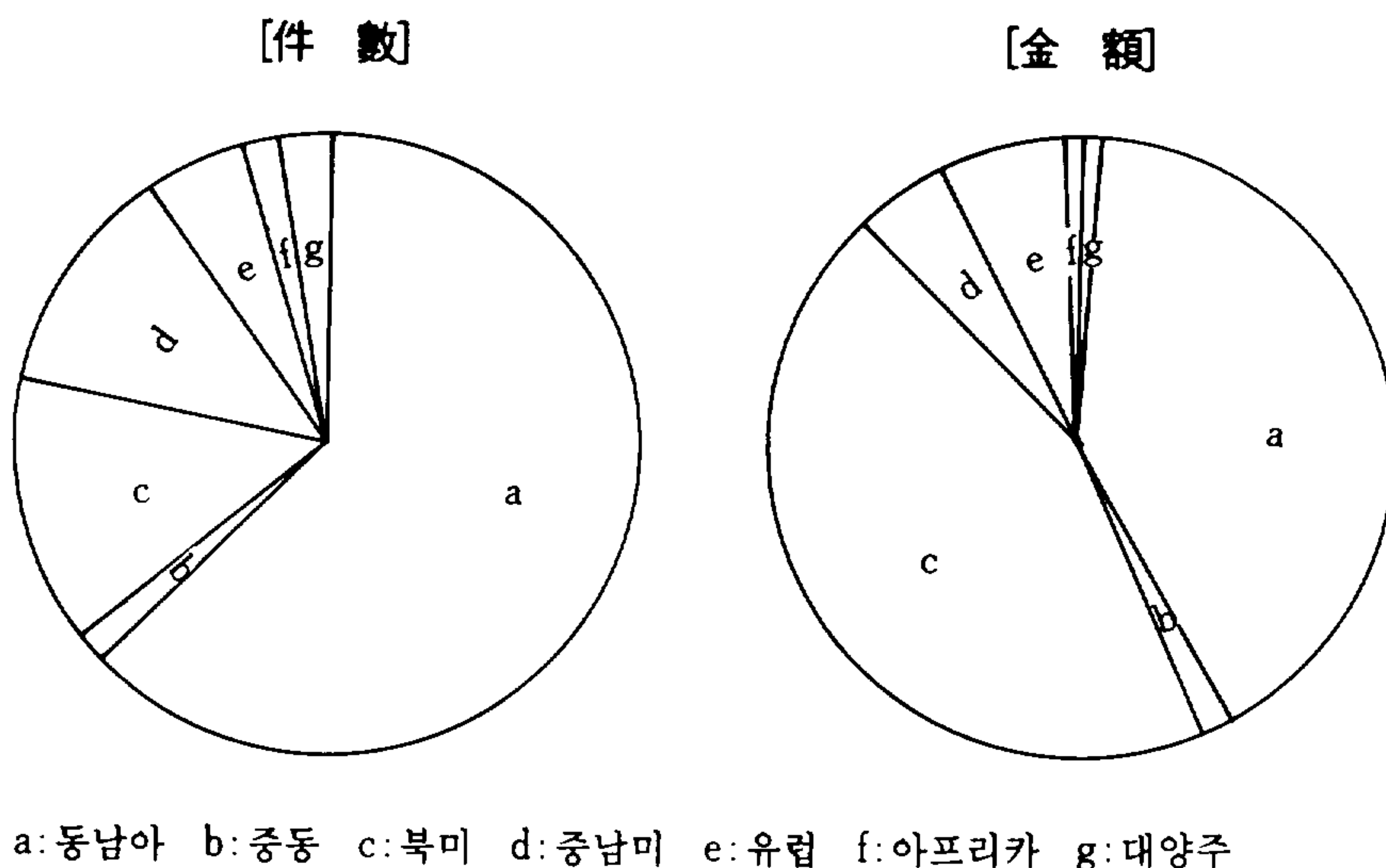
製造業 海外投資 現況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의 〈圖表2〉와 같다.

〈圖表2〉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單位：件, 천달러, %

지 역	동남아	중 동	북 미	중남미	유 럽	아프리카	대양주	계
건수	397 (62.9)	7 (1.1)	96 (15.2)	70 (11.1)	31 (4.9)	11 (1.7)	19 (3.0)	629
금액	537,117 (41.6)	17,437 (1.4)	566,005 (43.9)	59,753 (4.6)	86,498 (6.7)	12,342 (0.9)	10,641 (0.8)	1,289,793

$$\chi^2 = 1,292.64 > \chi^2_{0.01} = 12.5916$$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件數基準으로는 전체 629개 海外進出企業중에서 東南亞 進出企業이 395개로 무려 63.1%나 되고, 北美가 96개로 15.2%, 中南美 地域이 70개로 11.1%이다. 이와 같이 東南亞, 北美의 두 地域에 85.5%가 집중되어 地域적 偏重 進出傾向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다시 金額基準으로 하면 中南美 地域은 전체적으로 볼 때 4.6%로 아주 미미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北美地域은 전체의 43.9%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89년 이후 계속 下落趨勢에 있어 東南亞의 41.6%와 거의 맞먹는 占有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件數와 金額基準에서 地域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地域마다 특정 進出産業業種이 偏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海外生産業種中에서 纖維, 衣類를 生産하는 小規模의 中小企業들이 中남미 특히 카브리해안 군도국에 다수의 中小企業들이 集中的으로 進出하고 있어도 金額上으로는 아주 적다.

東南亞地域도 마찬가지로 纖維, 衣類와 기타 縫製製品 및 一般雜貨類가 많이 進出해 있고, 이들은 대부분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이고 投資金額도 아주 小規模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件數로는 製造業 總件數의 절반이 훨씬 넘지만 金額으로는 그에 훨씬 적은 41.6%에 불과하다. 그러나 北美 地域은 자동차, 電子, 電氣, 鐵鋼 등 대부분 大規模의 資本投資를 필요로 하는 資本集約産業이 進出하고 있어서 件數로는 15.3%로 매우 작지만 金額上으로는 다른 어떤 製造業 보다도 많은 43.9%를 차지한다.

東南亞地域 특히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디아 등은 公업화추진과 市場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어 生産費 節減을 위한 勞動集約的産業이라도 現地市場을 目標로 한 一般잡화류나 現地工場化의 기초를 위한 資本財 生産企業의 進出이 늘어났기 때문에 件數면에서 63.1%라는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北美地域은 貿易國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한 輸出이 現地の 代替生産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鐵鋼, 電子, 컴퓨터 등의 大企業進出과 우리국민이나 동양계 소비자를 위한 라면 및 기타 음식료품과 衣類系統의 中小企業進出이 계속 擴大될 것이다.

中南美地域은 더 이상 進出할 마땅한 국가가 없고, 中東은 이란, 이라크의 휴전협정, 이란의 과격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사망, 걸프전의 종식 등으로 國際關係가 완화되면 폐허가 된 국가건설에 製造企業이 많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製造業의 10대 海外投資對象國을 보면 다음 <表3>과 같다. 1991년 6월말 현재 件數基準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에 145건으로 가장 많은 投資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表3> 製造業의 10대 海外投資對象國(1991. 6. 30 현재)

건 수 기 준		순 위	금 액 기 준	
건수(건)	국 명		국 명	금액(천달러)
145	인 도 네 시 아	1	미 국	336,985
101	미 국	2	인 도 네 시 아	232,582
51	중 국	3	캐 나 다	229,020
45	말 레 이 지 아	4	말 레 이 지 아	89,564
44	태 국	5	필 리 핀	64,351
41	필 리 핀	6	태 국	42,260
27	스 리 랑 카	7	영 국	35,253
25	과 테 말 라	8	중 국	34,495
13	북 마 리 아	9	스 리 랑 카	28,953
12	캐 나 다	10	과 테 말 라	19,317

註：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 現地法人 現況(1991. 6. 30)

이 미국으로 101건, 중국이 51건, 말레이시아 45건, 태국 44건, 필리핀 41건, 스리랑카 27건, 과테말라 25건, 북마리아나 공화국 13건, 그리고 캐나다 1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偏重投資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를 金額基準으로 보면 미국에 3억 3,698만 5천달러로 가장 많은 投資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件數면에서는 10위에 그쳤던 캐나다가 金額면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86년 7월 중순 投資金額 1억 2,905만 9천달러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에 投資하는 등 대부분 1차금속 및 조립금속업종에서 대부분 거액의 金額이 投資된 것에 기인한다.

위의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製造業의 평균 投資規模는 1991년 6월 30일 현재 205만 달러로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製造業 전업종에 걸쳐서는 1차금속의 평균투자규모가 2,172만 5천 달러로 가장 크고 조립금속부문이 그 다음으로 크다. 한편, 건수면으로는 179건의 製造業中에서 가장 많았던 纖維・衣服部門의 平均投資額은 101만 달러로 이부문의 海外投資는 대부분이 小規模의 投資였음이 드러났다.

製造業 海外進出業體의 投資規模는 다음의 <圖表4>와 같다. 1991년 6월말 현재 629件中 66%인 415건이 1백만달러이하의 小規模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전체의 95.4%가 5백만달러이하의 小規模 PROJECT에 속해 있어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 投資한 HACI(1986. 7. 10)와 포항제철이 미국에 投資한 PSAC(1984. 9. 2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投資規模가 先進國의 많은 多國籍企業의 國際生産活動規模와 비교하면 아직도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의복, 신발・가죽, 기계・장비같은 業種에는 平均投資規模가 겨우 1백만달러 수준이고 1차금속과 組立金屬部門을 제외한 전종목이 2백만달러 내외수준에 머물고 있다.

<圖表3> 平均投資規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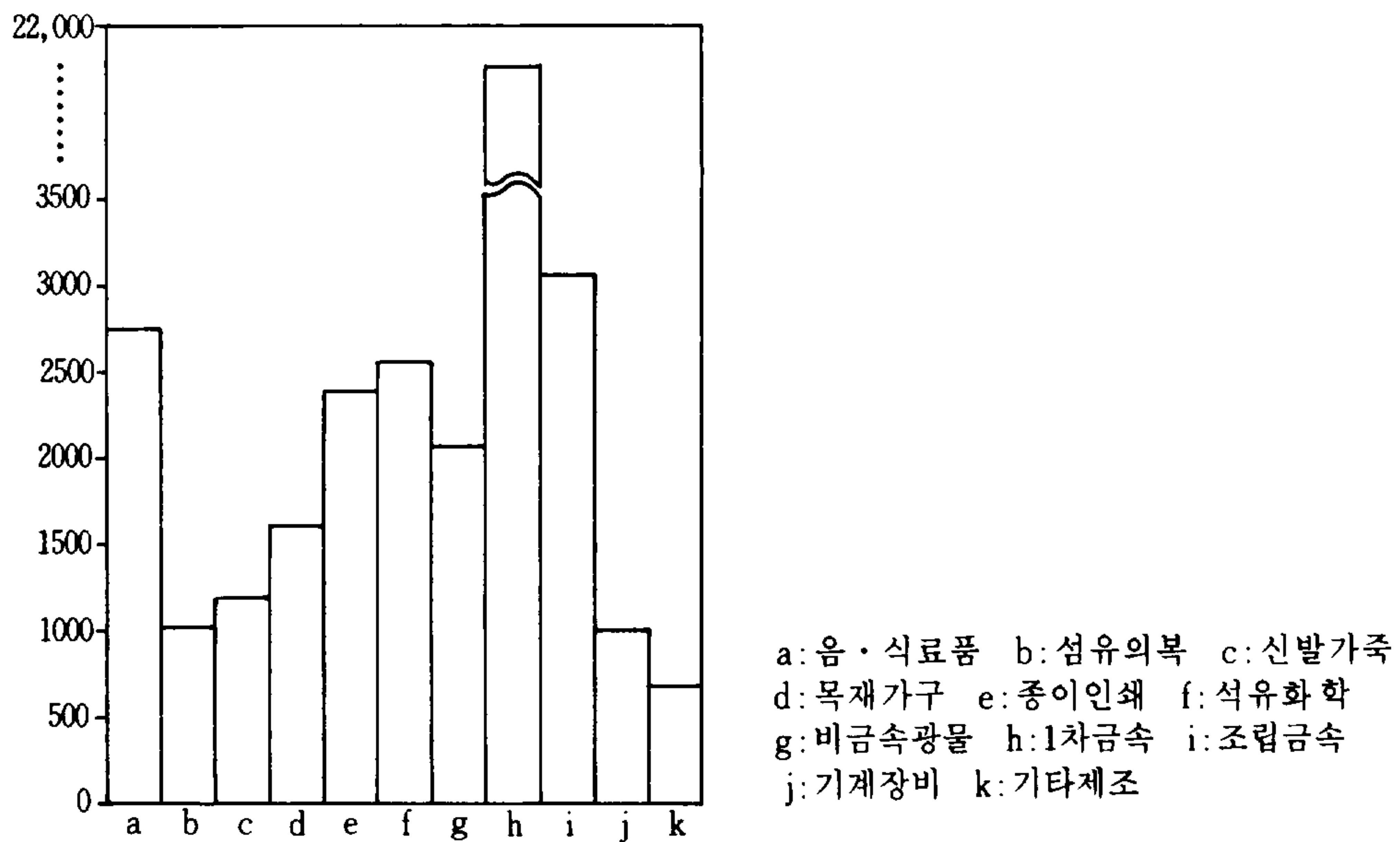
單位：천달러

산업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기타제조	합계
규모	2,757 (3)	1,010 (9)	1,185 (8)	1,596 (7)	2,404 (5)	2,572 (4)	2,076 (6)	21,725 (1)	3,063 (2)	1,004 (10)	560 (11)	39,952

註：1)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2) 괄호안은 규모순위임.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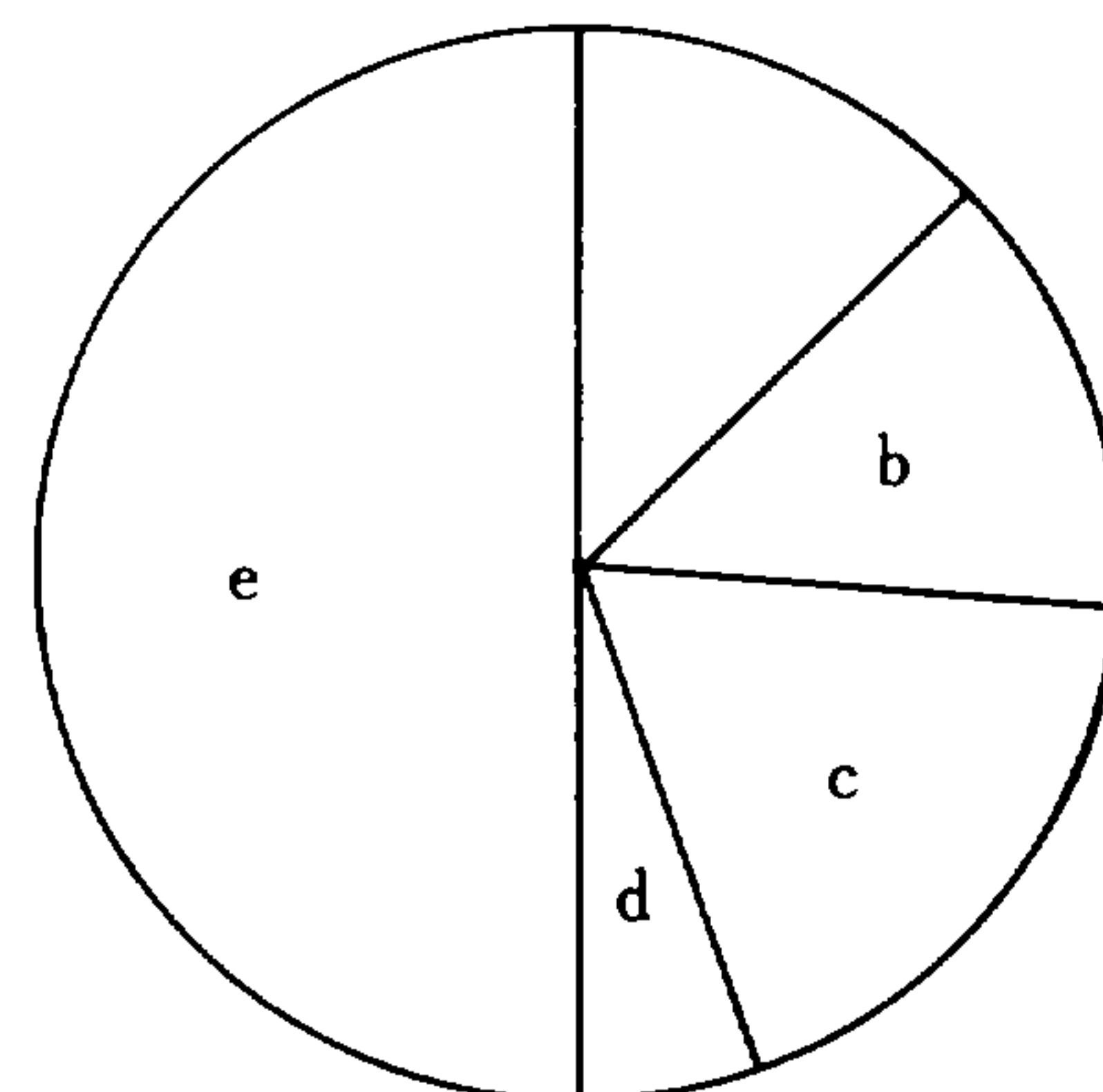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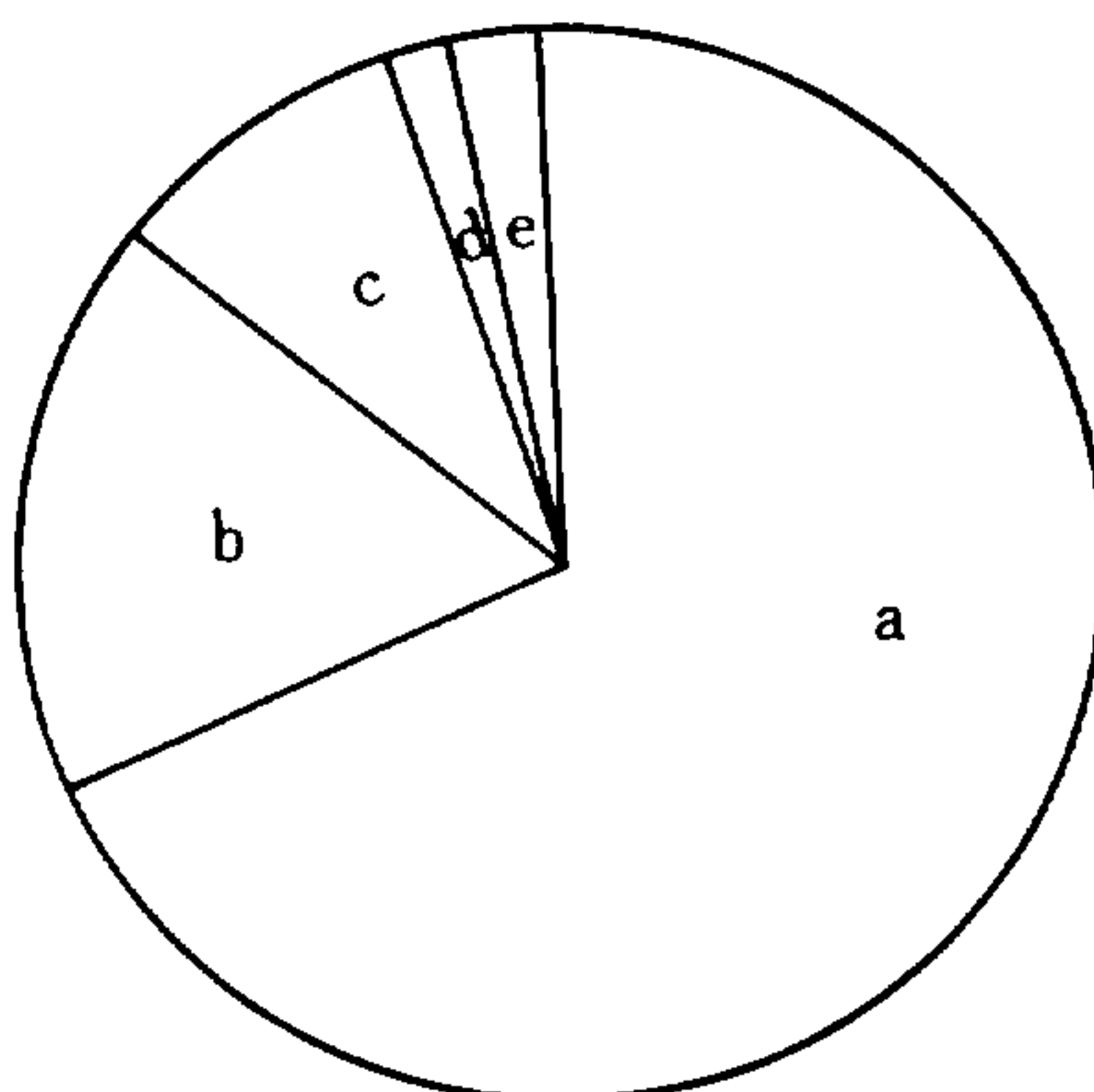
〈圖表4〉 投資規模別 現況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15 (66.0)	173,578 (13.6)	117 (18.6)	172,331 (13.4)	68 (10.8)	229,198 (17.8)	11 (1.7)	74,540 (5.8)	18 (2.9)	640,146 (49.6)	629	1,289,793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10,000이하 e: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2. 産業別 現況

가) 飲, 食料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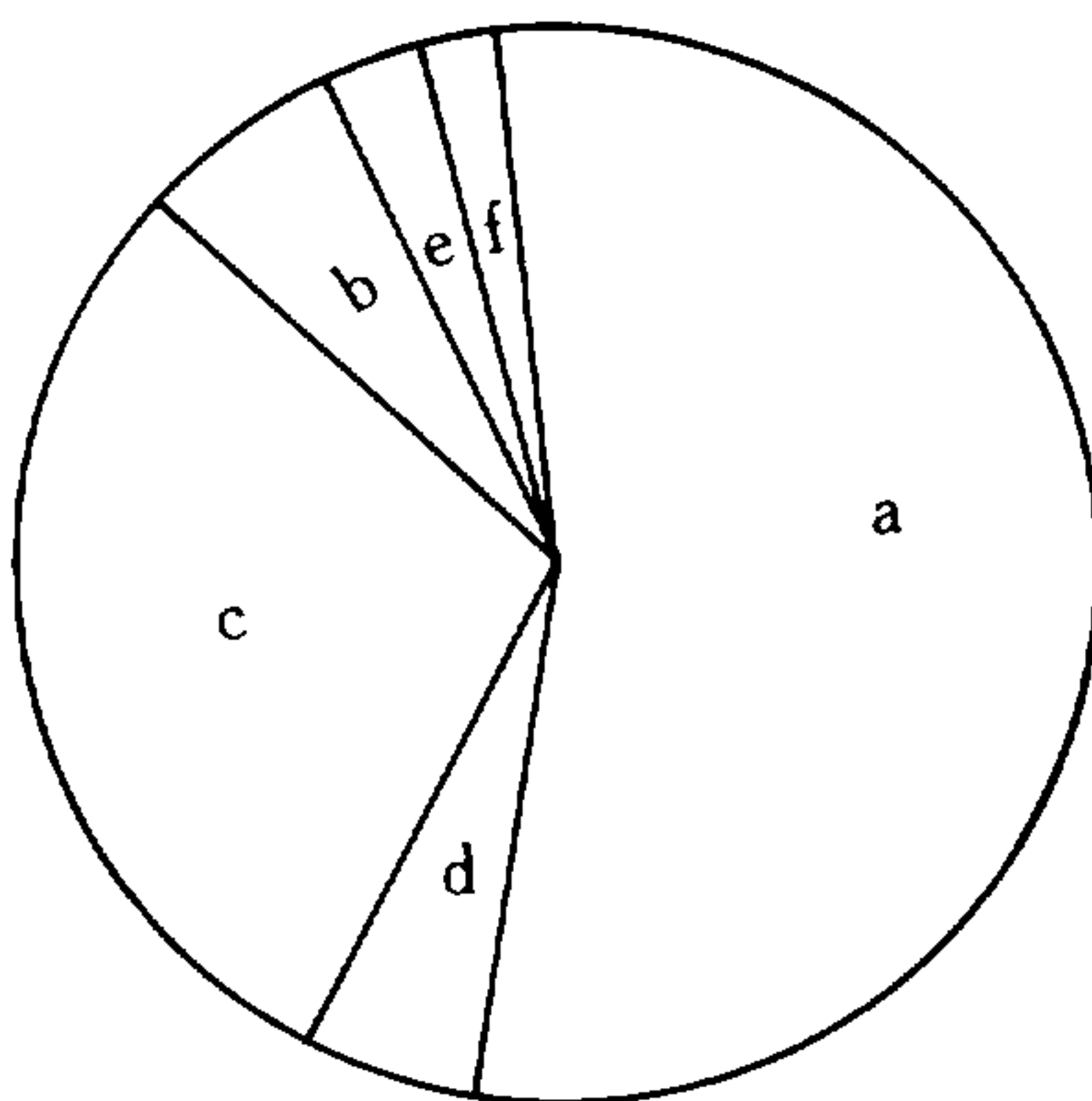
飲・食料品の 海外進出은 주로 技術保護 및 企業經營戰略의 變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飲, 食料品の 總 投資件數는 32件으로 金額에 있어서는 8,823만 1천달러이다. 飲, 食料品の 地域別 現況은 다음 〈圖表5〉와 같다.

〈圖表5〉 飲, 食料品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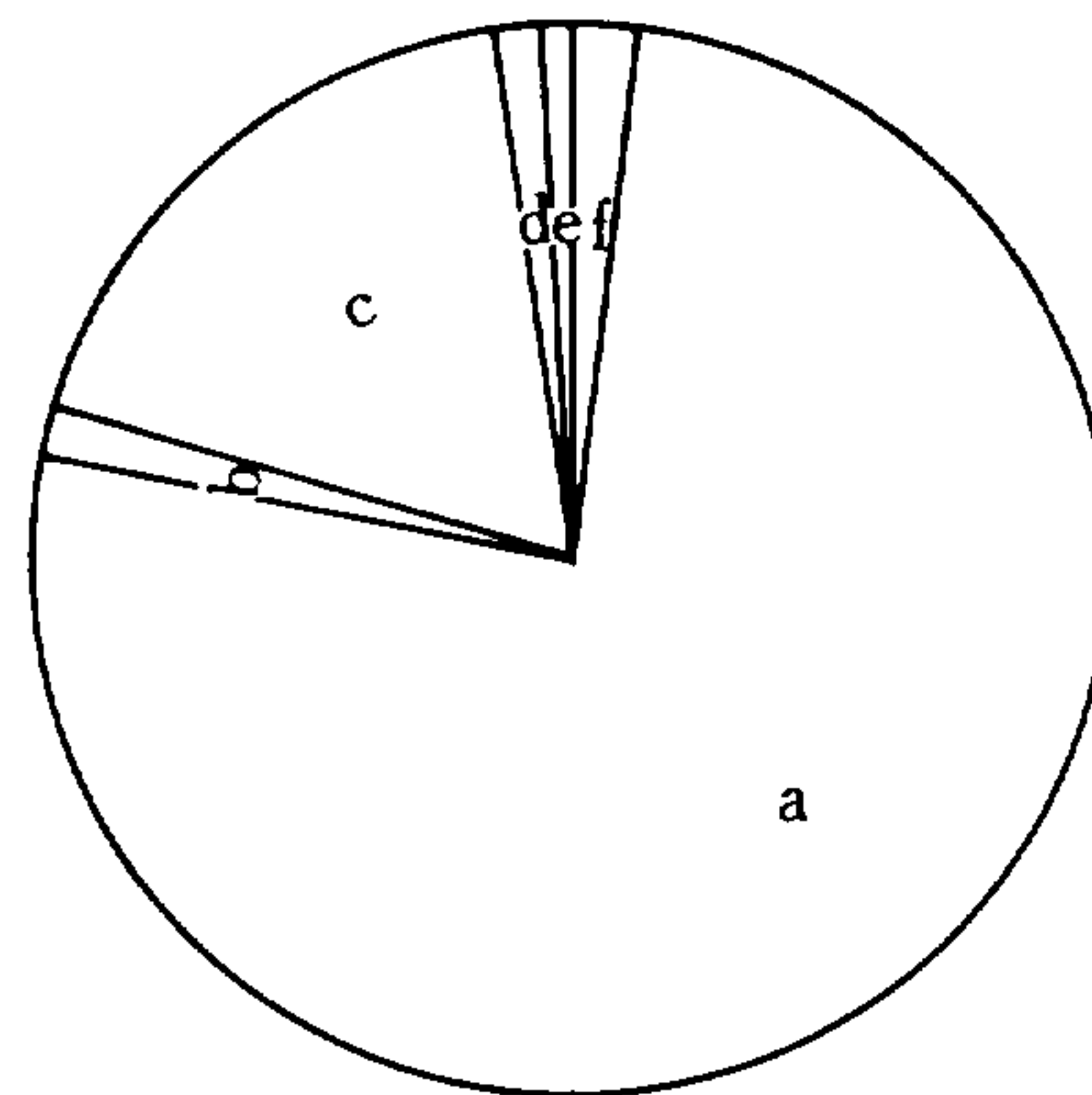
單位 : 件, 千달러, %

동 남 아		중 동		북 미		중 남 미		유 럽		대 양 주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8	72,629	2	568	9	13,458	2	480	1	122	1	974	32	88,231
(56.3)	(82.3)	(6.3)	(0.6)	(18.7)	(15.3)	(6.3)	(0.5)	(3.1)	(0.1)	(3.1)	(1.1)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중동 c: 북미 d: 중남미 e: 유럽 f: 대양주

註 :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飲, 食料品の 總投資 件數 32件 中 18건인 56.3%가 東南亞 地域에 集中되고 있다. 그리고 北美 地域에 9件이 投資되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飲, 食料品の 投資는 東南亞와 北美地域에 84.4%가 投資되어 심한 偏重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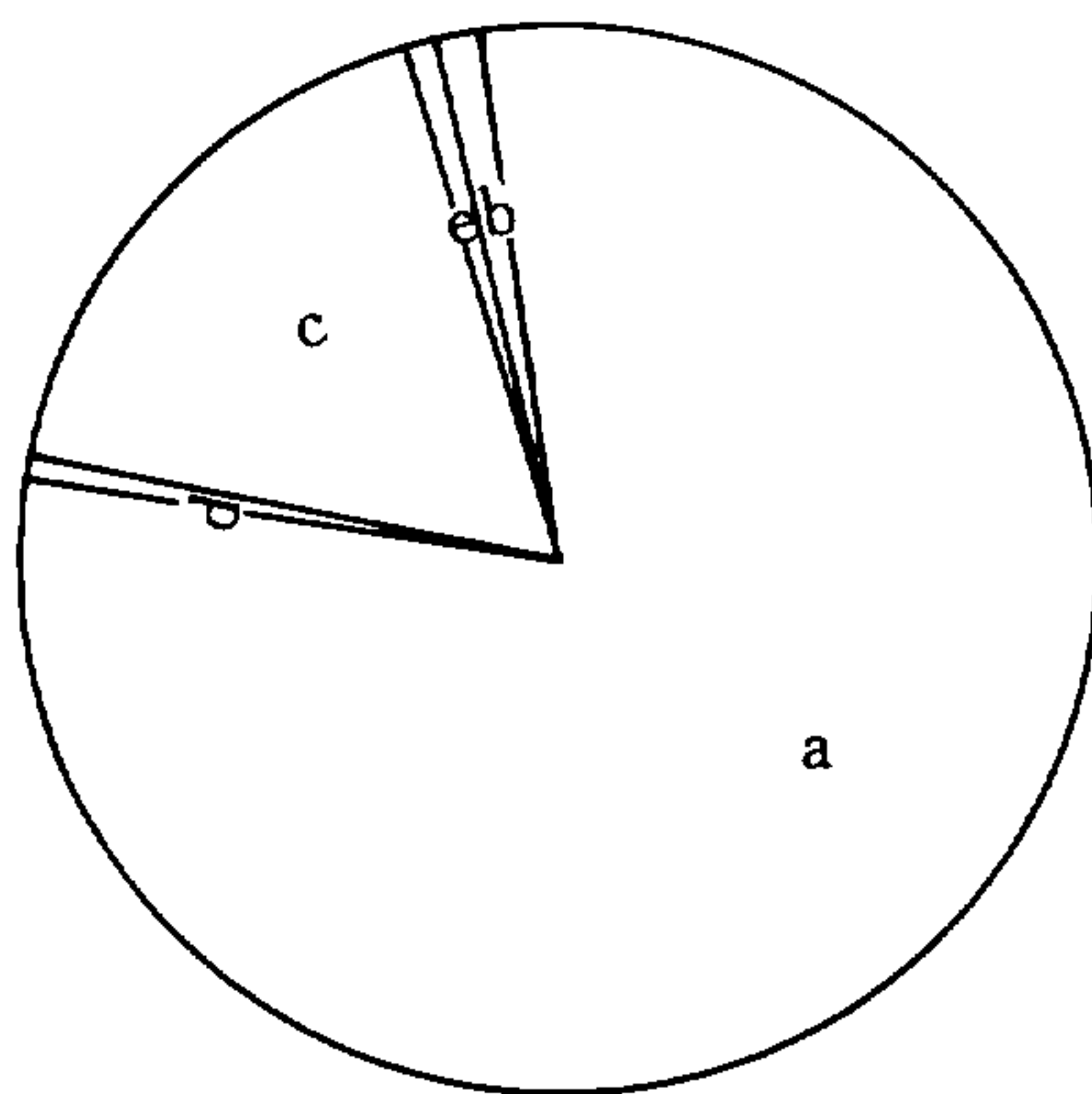
한편 이를 投資規模別로 보면 다음 〈圖表6〉과 같다.

〈圖表6〉 飲, 食料品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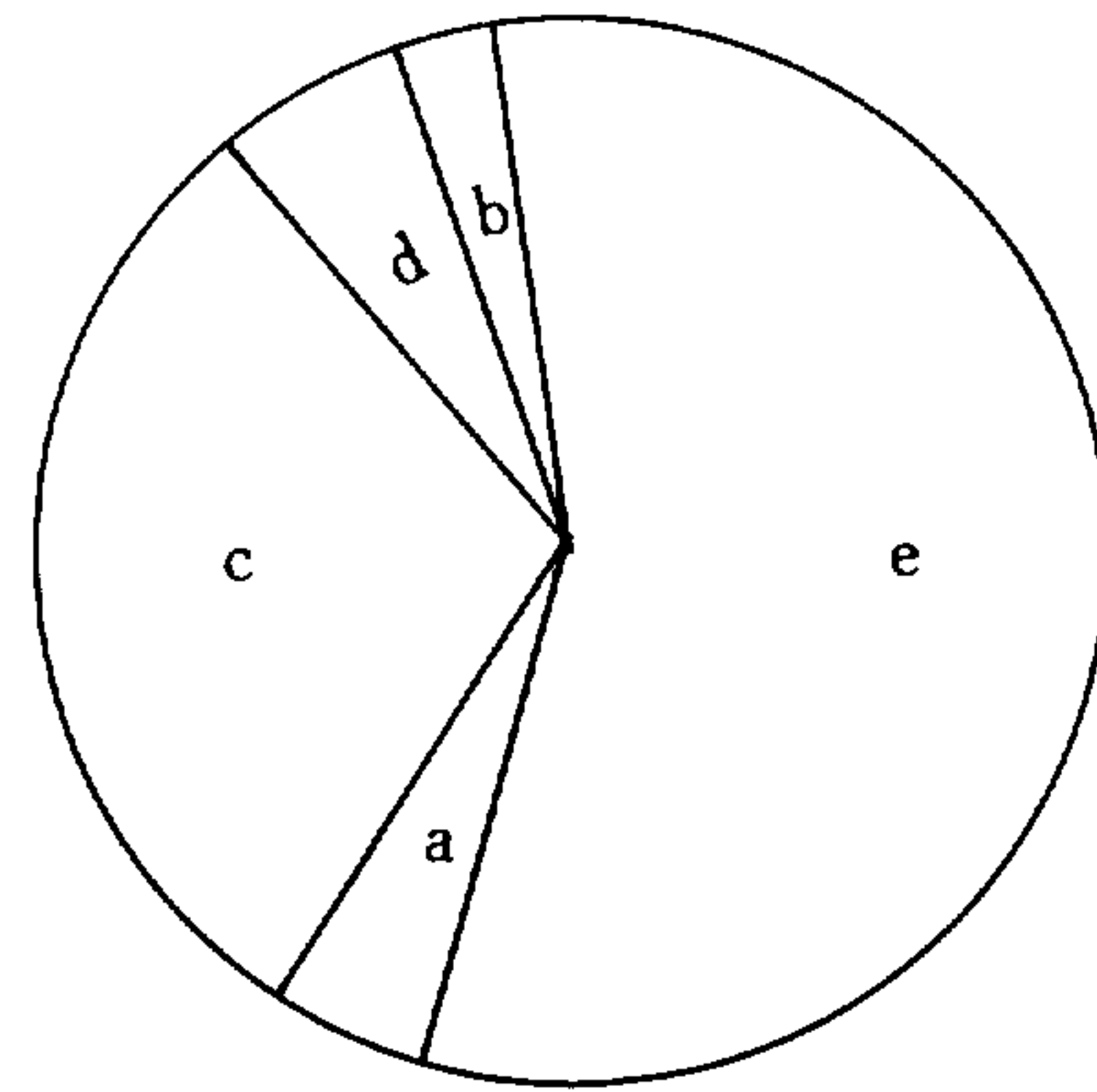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22 (68.8)	8,084 (9.1)	2 (6.3)	2,406 (2.7)	5 (15.6)	19,985 (22.6)	1 (3.1)	5,233 (5.9)	2 (6.3)	52,550 (59.6)	32	88,231	2,757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 10,000이하 e: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飲, 食料品の 海外直接投資는 대부분 1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投資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32건중 22건인 68.8%가 1백만달러 이하이다. 음, 식료품의 평균投資규모는 275만 7천달러로 이는 다른 業種에 비하여 비교적 큰 投資規模에 속한다.

음·식료품부문에서는 미원이 1969년 1월 인도네시아에 投資한 조미료공장(3천 7백 5십 5만달러)과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이 인도네시아에 投資한 조미료공장과 LYSINE(1천 5백 만달러)이 代表的인 큰 規模의 海外直接投資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飲, 食料品에 관한 한 韓國의 企業은 全般的으로 輸出開始 段階로서 先進國 進出에 있어 比較優位를 갖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또한 投資規模에 있어서도 先進國의 多國籍企業들처럼 대규모 投資가 이루어지기는 여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과 더불어 라면, 두부, 간장이나 천연건강식품 등의 토속적인 상품은 先進國에서도 동

양계를 中心으로 細分化된 市場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가공품, 식용유지, 기타 음식료품은 국민들의 口味에 맞도록 食品을 開發하는 現地 合作投資를 통한 技術 習得을 考慮해 볼 수 있으며, 後進國 進出의 경우에는 시장개척과 아울러 생산비 절감, 현지의 원, 부자재 이용을 할 수 있는 품목도 적극개발하여 投資해갈 수 있을 것이다. 飮, 食料品の 유망업종으로는 라면, 두부, 간장, 조미료, 제빵, 과자, 껌, 어묵, 수산물가공, 인삼, 천연건강식품, 유가공품, 식용유지 등이다.

(나) 纖維, 衣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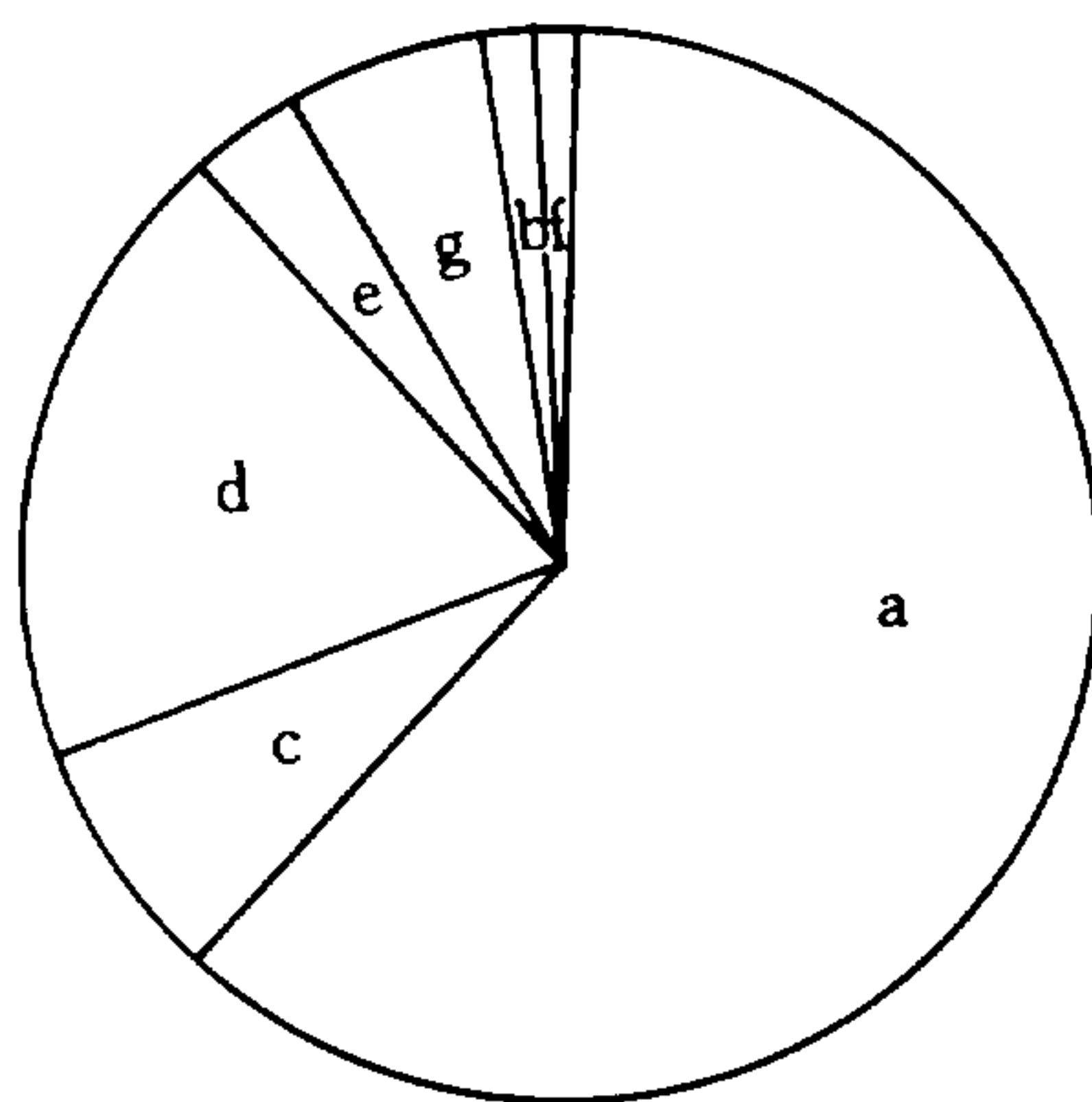
纖維, 衣服의 海外直接投資의 增大는 주로 原貨折傷, 勞動賃金의 上昇, 輸入規制의 強化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纖維, 衣服의 지역별 投資현황은 다음 <圖表7>과 같다.

<圖表7> 纖維, 衣服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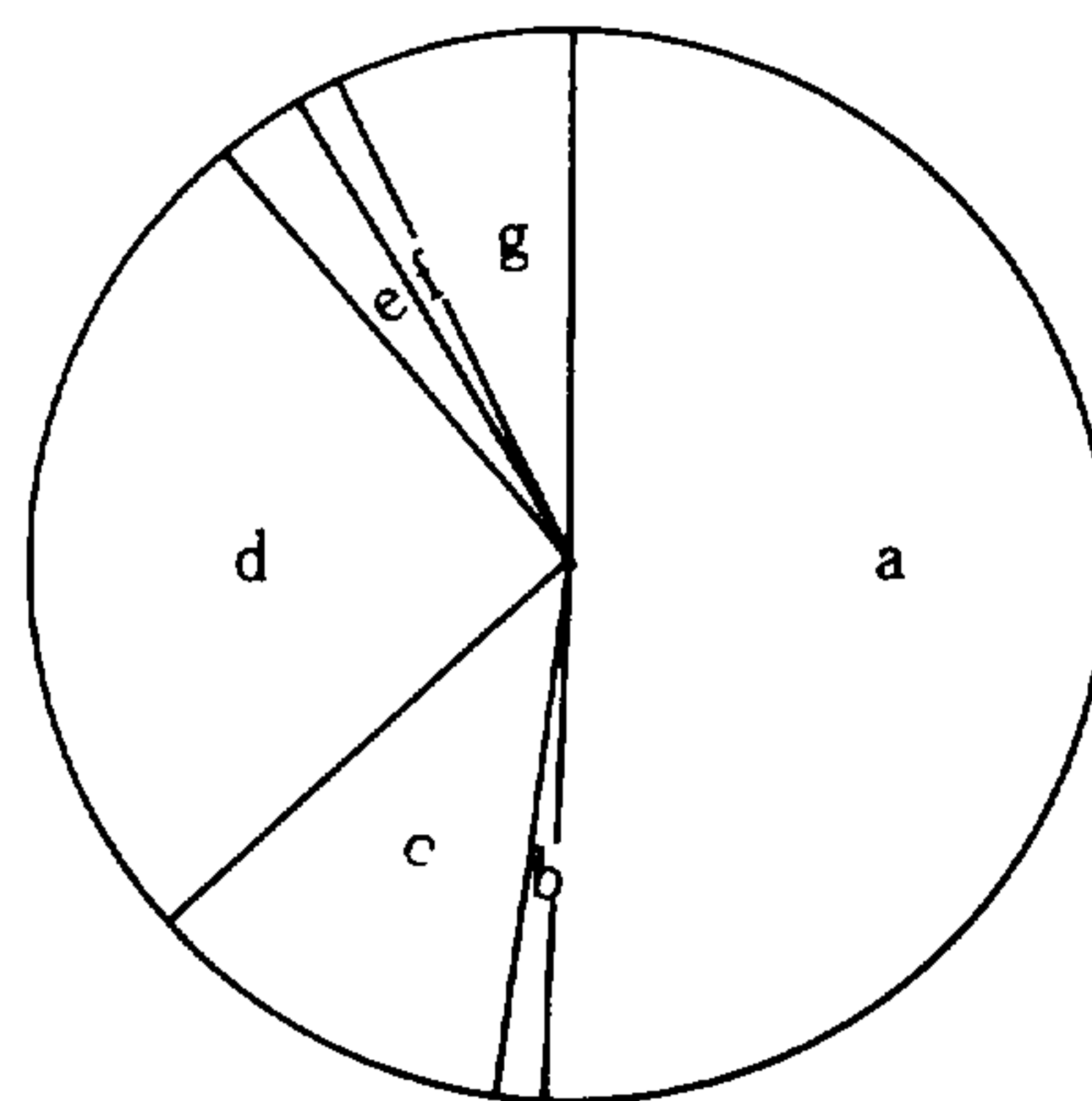
單位 : 件, 천달러, %

동 남 아		중 동		북 미		중 남 미		유 럽		아프리카		대 양 주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0 (50.3)	95,681 (52.9)	1 (0.6)	263 (0.1)	16 (8.9)	23,131 (12.8)	57 (31.8)	51,481 (28.5)	2 (1.1)	1,700 (0.9)	1 (0.6)	1,145 (0.6)	12 (6.7)	7,416 (4.1)	179	180,817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중동 c: 북미 d: 중남미 e: 유럽 f: 아프리카 g: 대양주

註 :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纖維, 衣服의 海外進出은 덕성무역이 1978년 스리랑카에 進出을 始初로 하여 동남아 중 남미지역에 집중 投資되고 있다. 纖維, 衣服의 총海外投資는 179건에 1억 8,081만 7천달러가 投資되었다. 이중 90건이 동남아에, 그리고 57건이 중남미에 投資되어 이 두지역에 投資된 건수는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도 이 두지역에 投資된 액수는 1억 4,716만 2천달러로 전체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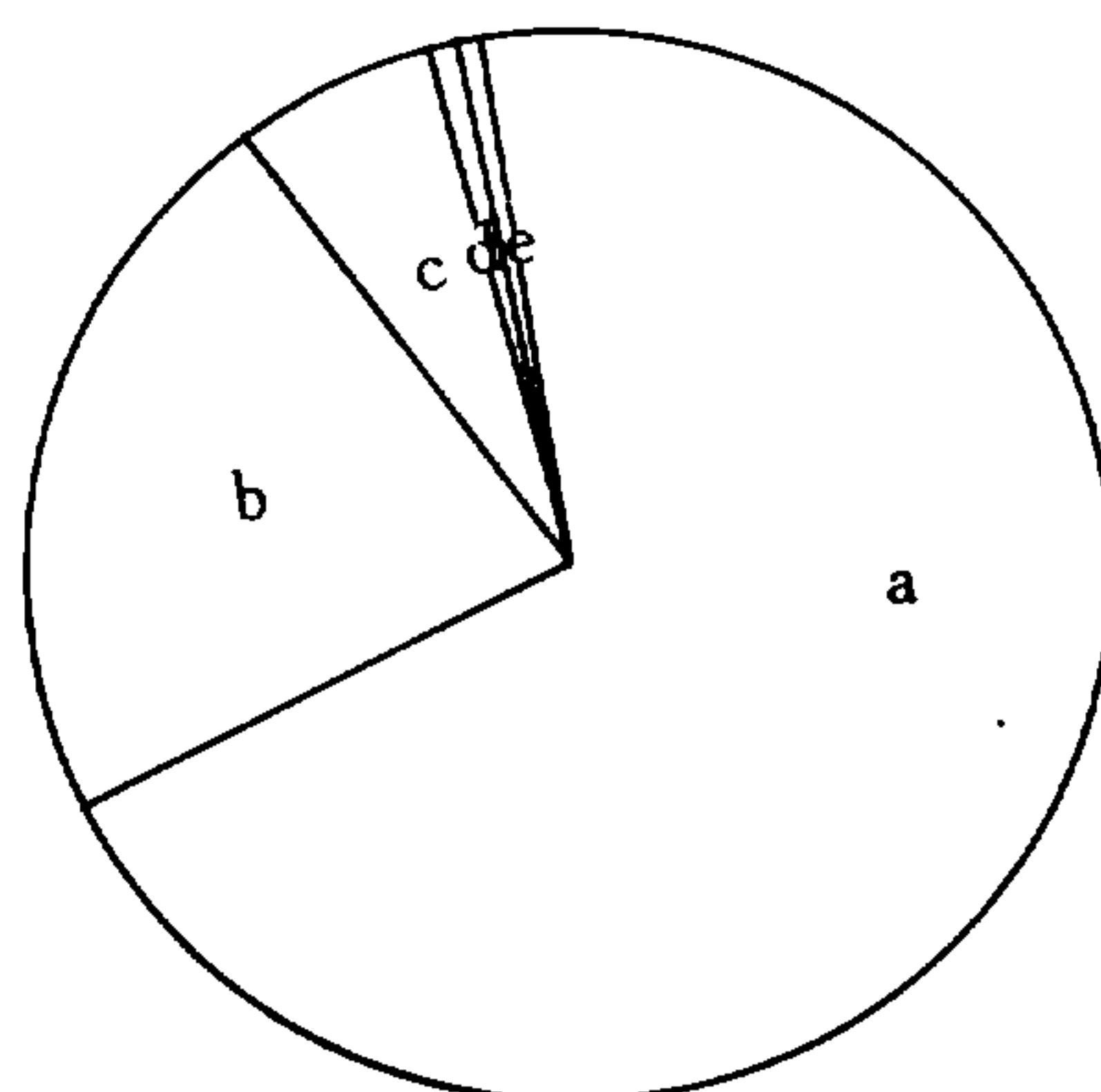
投資規模別 현황은 다음의 <圖表8>과 같다.

<圖表8> 纖維, 衣服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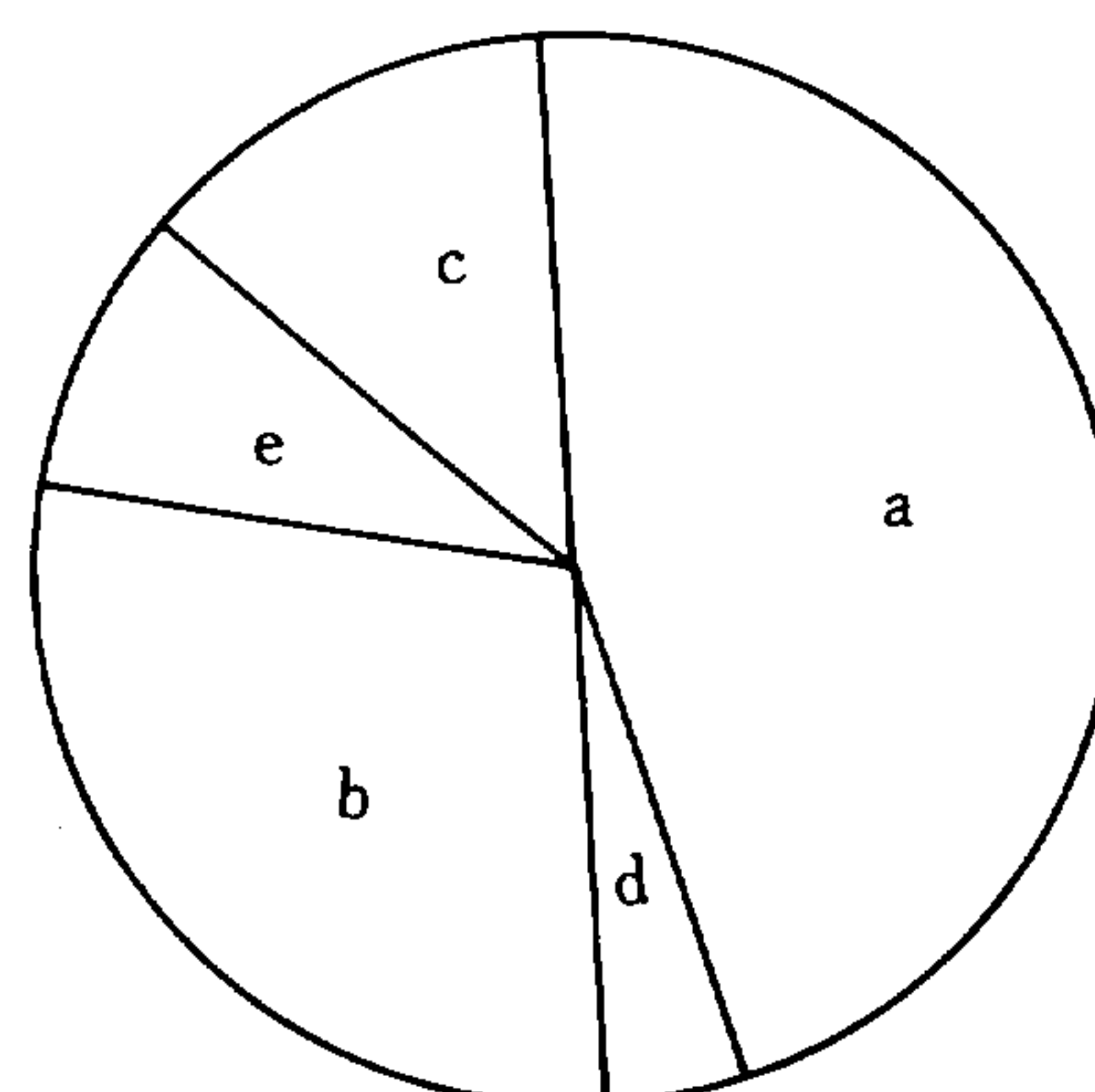
單位 : 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125 (69.8)	58,307 (32.2)	40 (22.3)	58,148 (32.1)	12 (6.7)	39,462 (21.8)	1 (0.5)	9,500 (5.2)	1 (0.5)	15,400 (8.5)	179	180,817	1,010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10,000이하 e: 10,000초과

註 :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纖維, 衣服의 海外投資도 대부분이 1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179건의 總投資건수중 1백만달러의 小規模投資는 125건으로 전체의 69.8%에 달한다. 그리고 2백만달러이하의 投資는 92.2%에 달해 다른 어느 업종보다도 소규모로 投資되고 있어 갑을 방적이 1989년 9월 스리랑카에 投資한 면사제조공장(KABOOL LANKA(PRIVATE))

LTD)을 제외하면 거의 전업종이 小規模로 投資되고 있다.

纖維, 衣服의 投資는 投資업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물원단, 나염 및 사염 색분야에 까지 다양하다. 특히 직물원단을 국내업체들이 海外에 進出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는 생산원가 경쟁에서 후발경쟁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海外進出은 동남아지역이 適地이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등은 임금이 우리에게 비해 10%에서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우리의 의류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둘째, 선진국의 관세 및 쿼터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영토인 사이판이나 카리브해 연안국가(CBI)에 많은 현지공장들이 進出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실증적인 사례들이다. 셋째, 국내의 遊休設備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동국무역, 갑을방적 등이 기존설비의 동남아 이전을 전제로 現地投資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 신발, 피혁

신발 피혁업체의 海外進出은 1978년 삼화의 필리핀공장 건설이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신발 및 피혁업계가 본격적으로 海外進出에 나선 것은 소위 '3高'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1987년부터이다. 지역별 投資現況은 다음 〈圖表9〉와 같다.

신발, 피혁의 海外投資는 총 46건에 5,450만 4천달러이다. 이중 동남아 投資는 36건으로 78.3%에 달한다. 금액에 있어서도 동남아投資 액수는 4,371만 1천달러로 80.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집중적으로 投資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기업들끼리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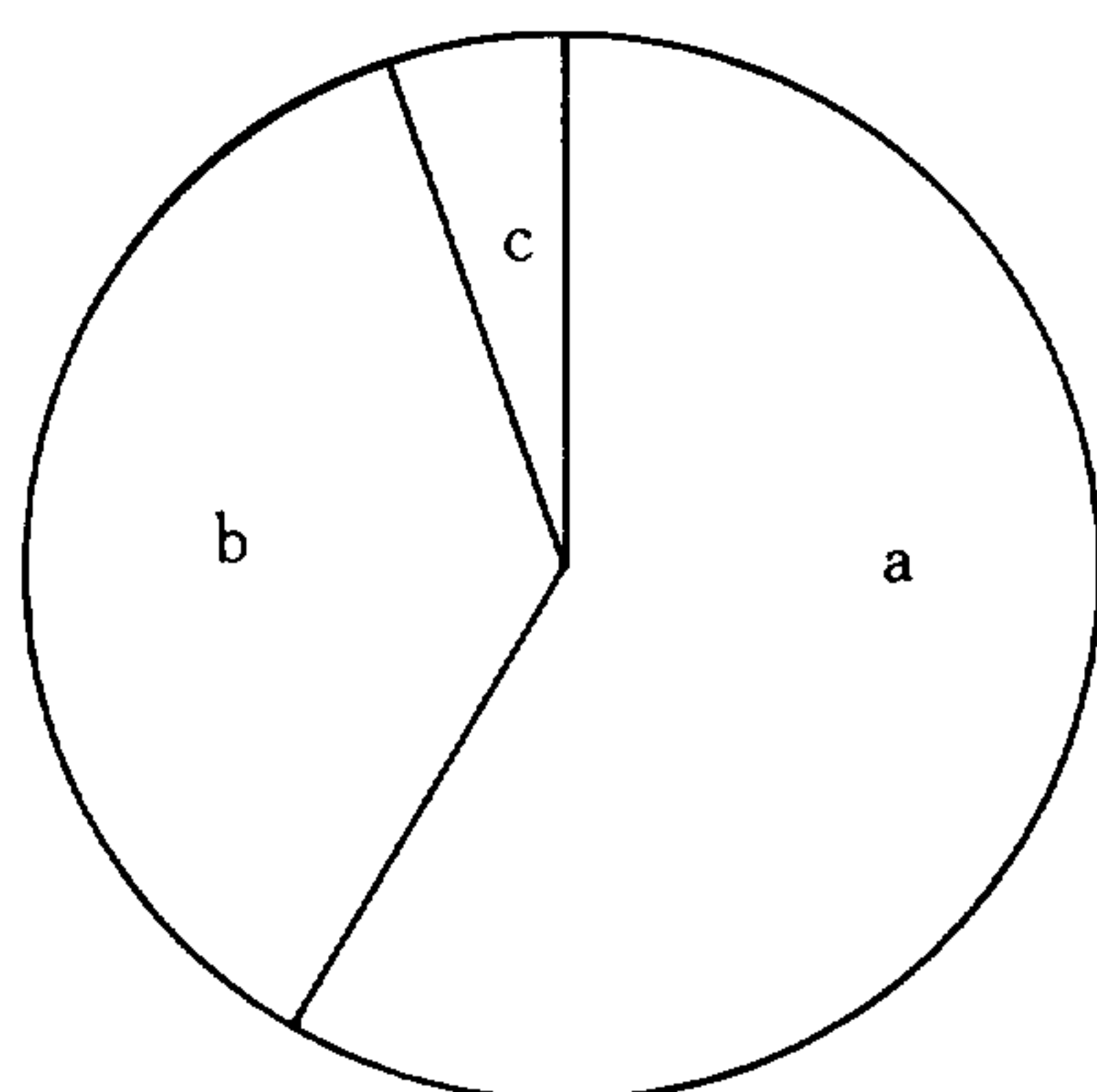
규모별 投資現況을 보면 總投資件數 46건중 1백만달러이하의 小規模投資는 28건으로 전체의 60.9%이다. 신발, 피혁의 海外投資는 전업종이 5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投資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신발업체의 海外進出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圖表9〉 신발, 피혁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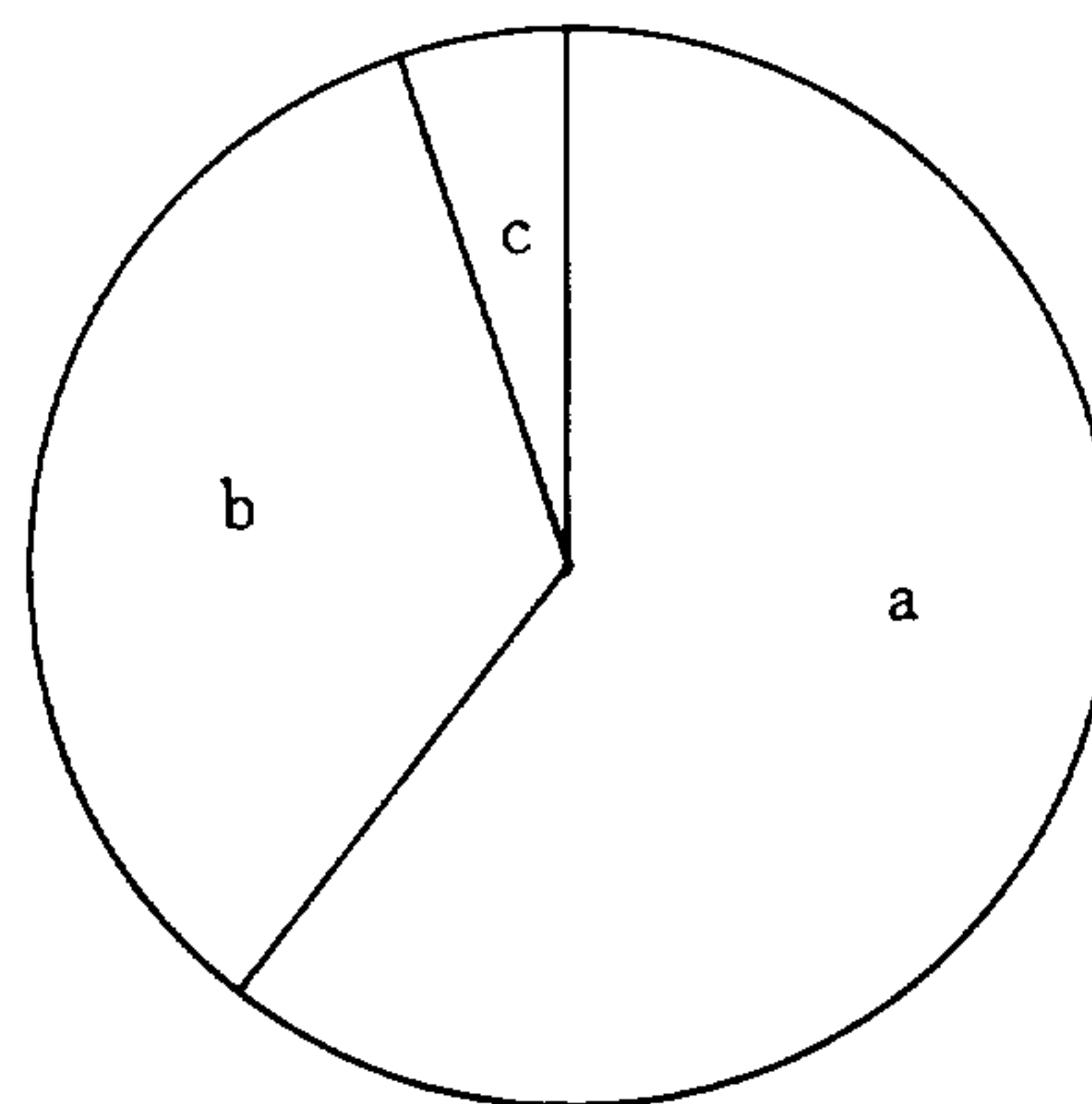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중 남 미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6 (78.3)	43,711 (80.2)	6 (13.0)	7,579 (13.9)	4 (8.7)	3,214 (5.9)	46	54,504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중남미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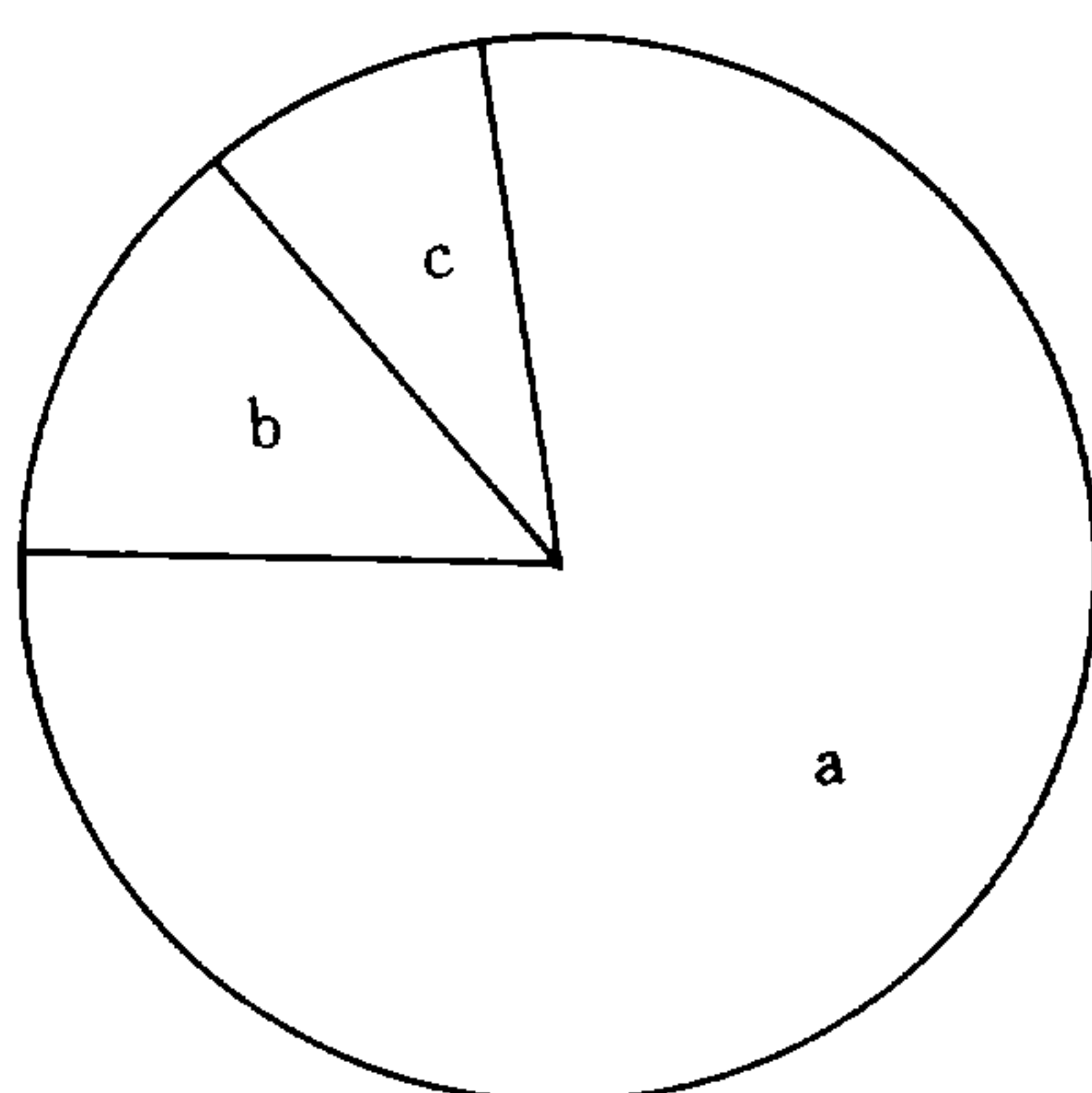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圖表10〉 신발, 피혁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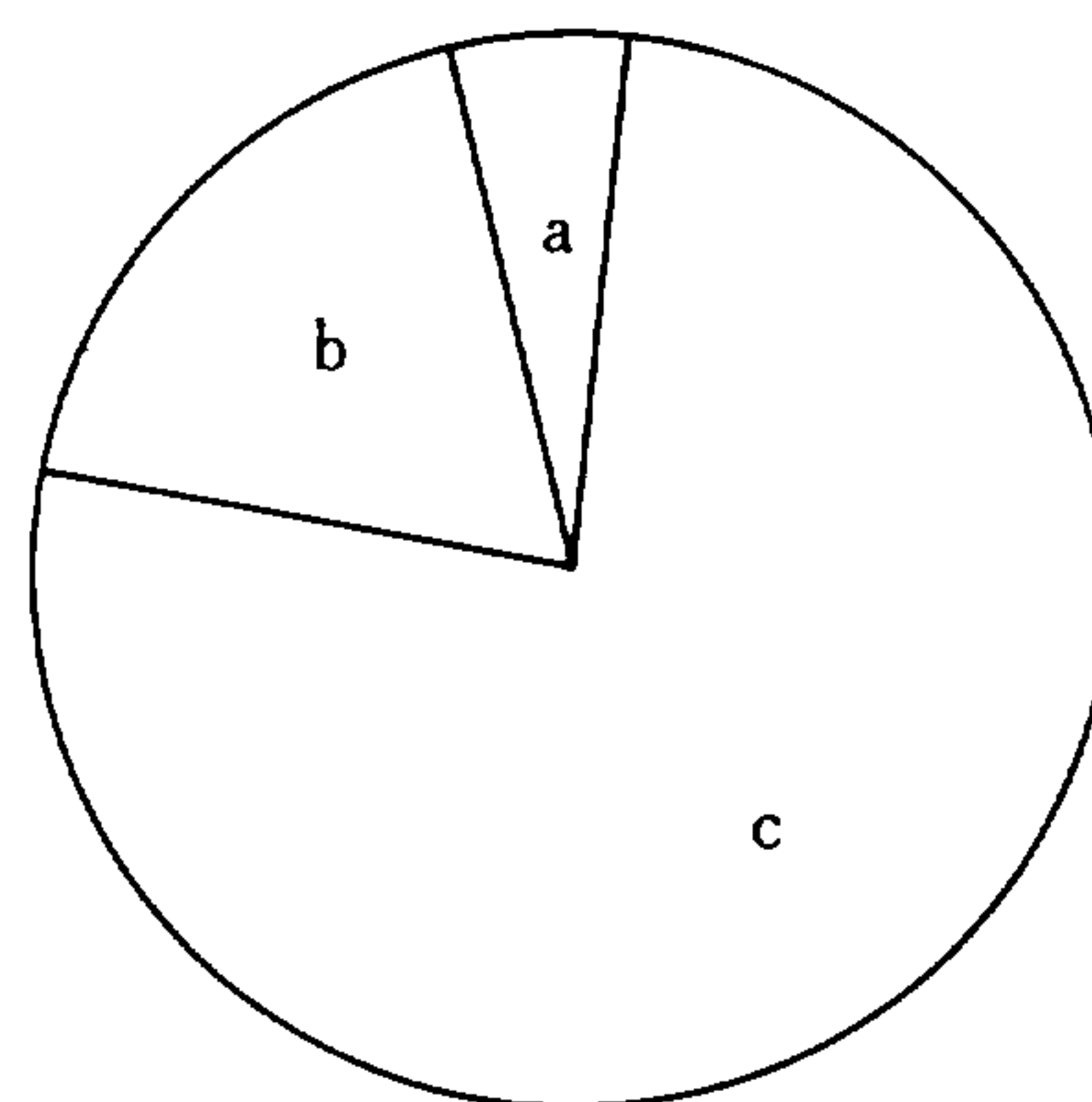
單位: 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28 (60.9)	14,558 (26.7)	11 (23.9)	16,886 (31.0)	7 (15.2)	23,060 (42.3)	46	54,504	1,185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라) 木材家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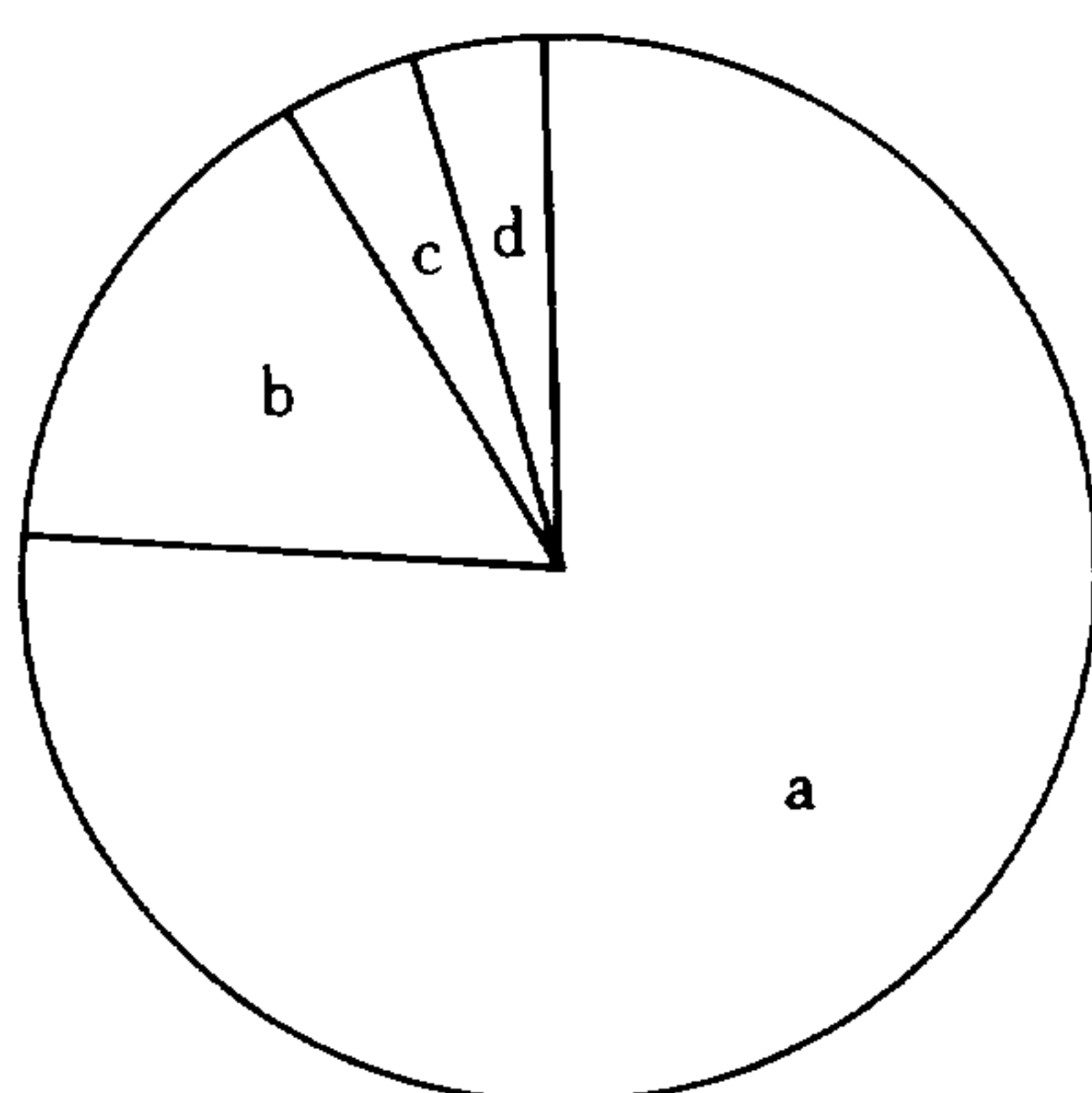
木材家具의 海外進出은 본사 원재료의 안정적조달을 위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木材家具부문의 지역별 海外投資 현황은 다음의 <표11>과 같다.

〈圖表11〉 木材家具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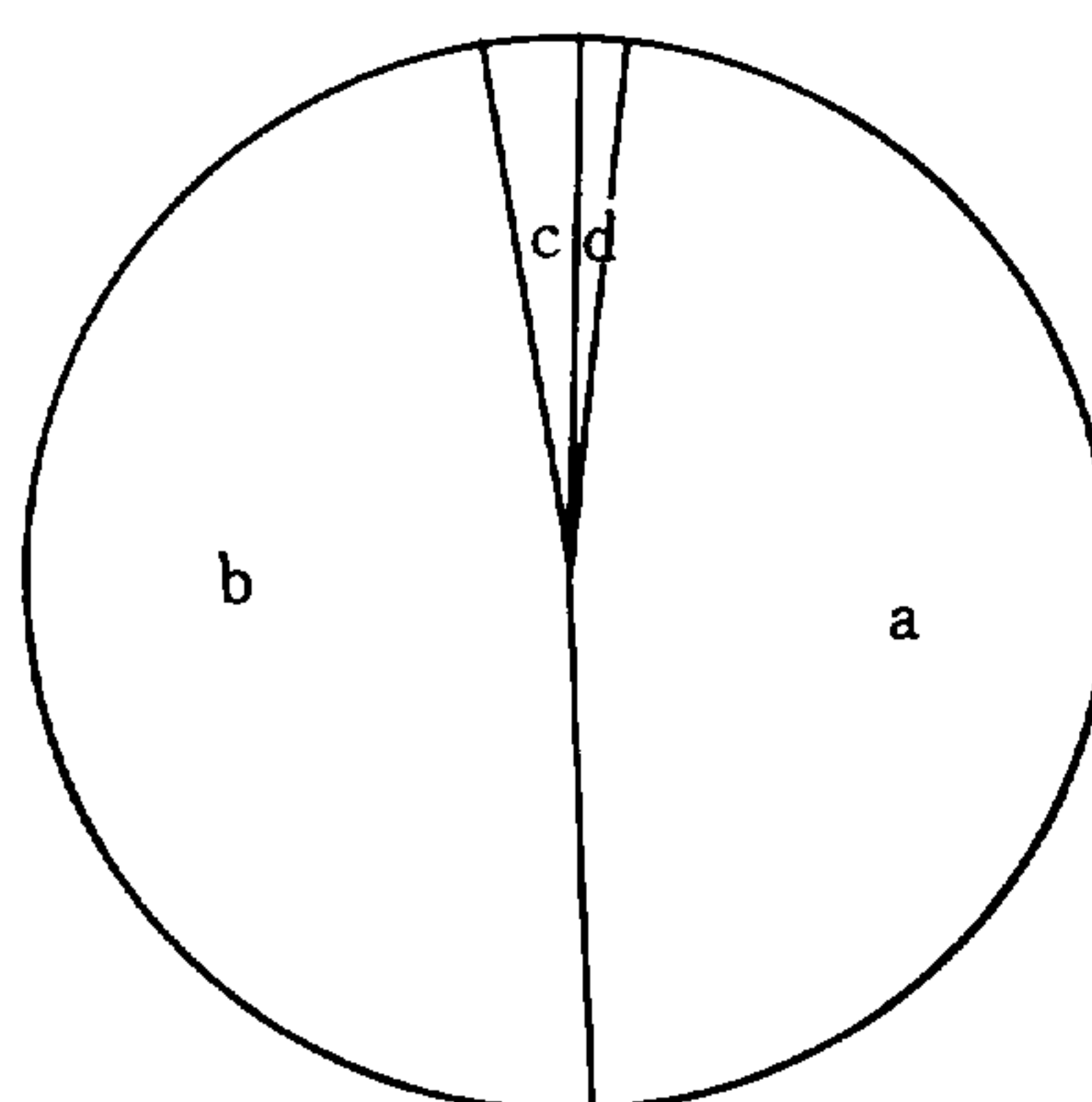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유 럽		대 양 주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 (76.9)	20,135 (48.5)	4 (15.4)	19,865 (47.9)	1 (3.8)	1,000 (2.4)	1 (3.8)	500 (1.2)	26	41,500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유럽 d: 대양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木材家具의 海外投資는 총 26건으로 4,150만달러이다. 木材家具의 投資는 건수로는 76.9%가 동남아에 집중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동남아와 북미지역에 96.3%에 집중되고 있어 두지역에 대해서만 投資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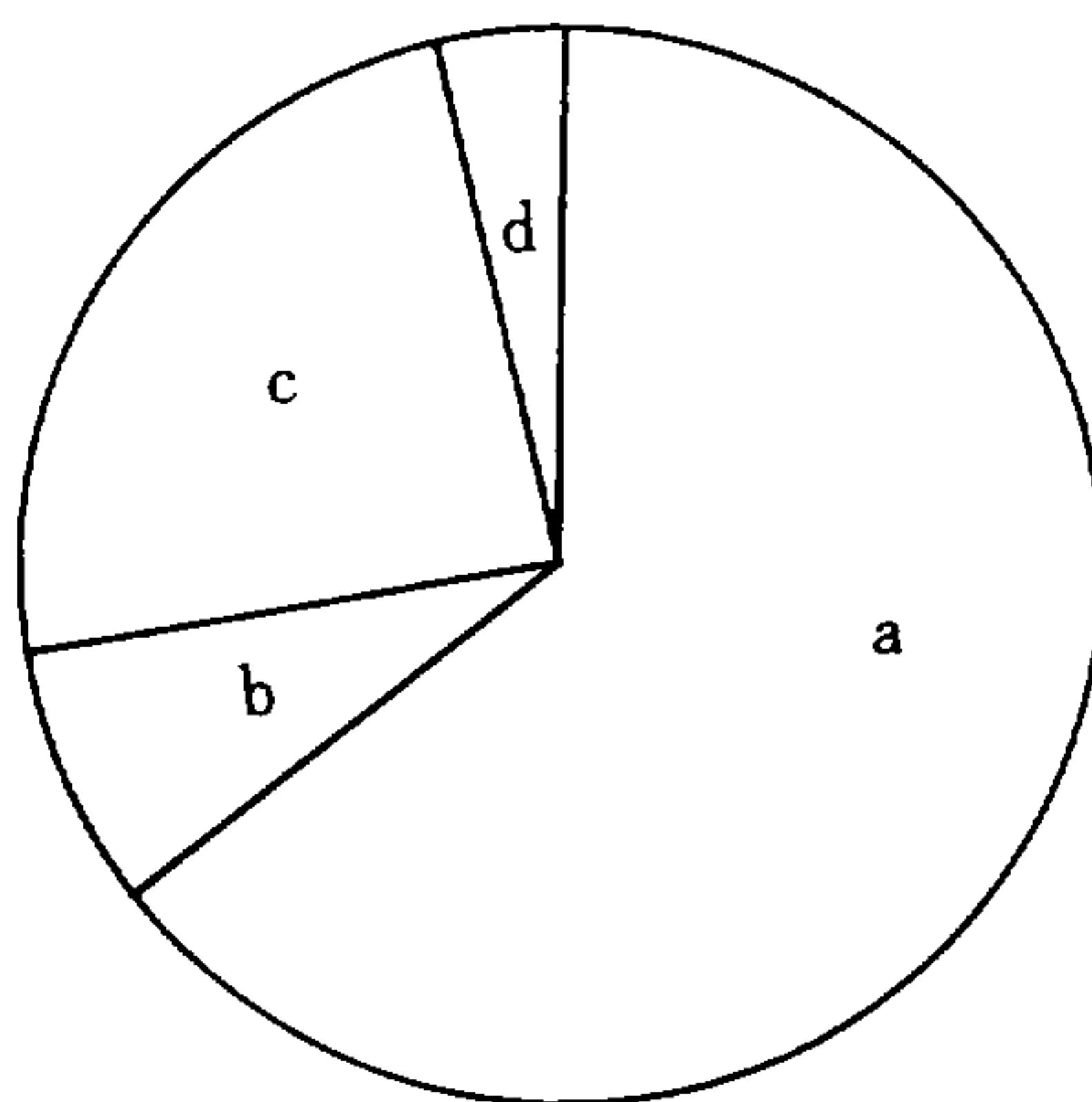
木材家具의 海外進出은 보루네오가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投資(1천 3백 3십 5만달러)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백만달러 이하의 小規模 投資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액면에 있어서는 2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이하의 投資도 6건을 차지한다.

〈圖表12〉 木材家具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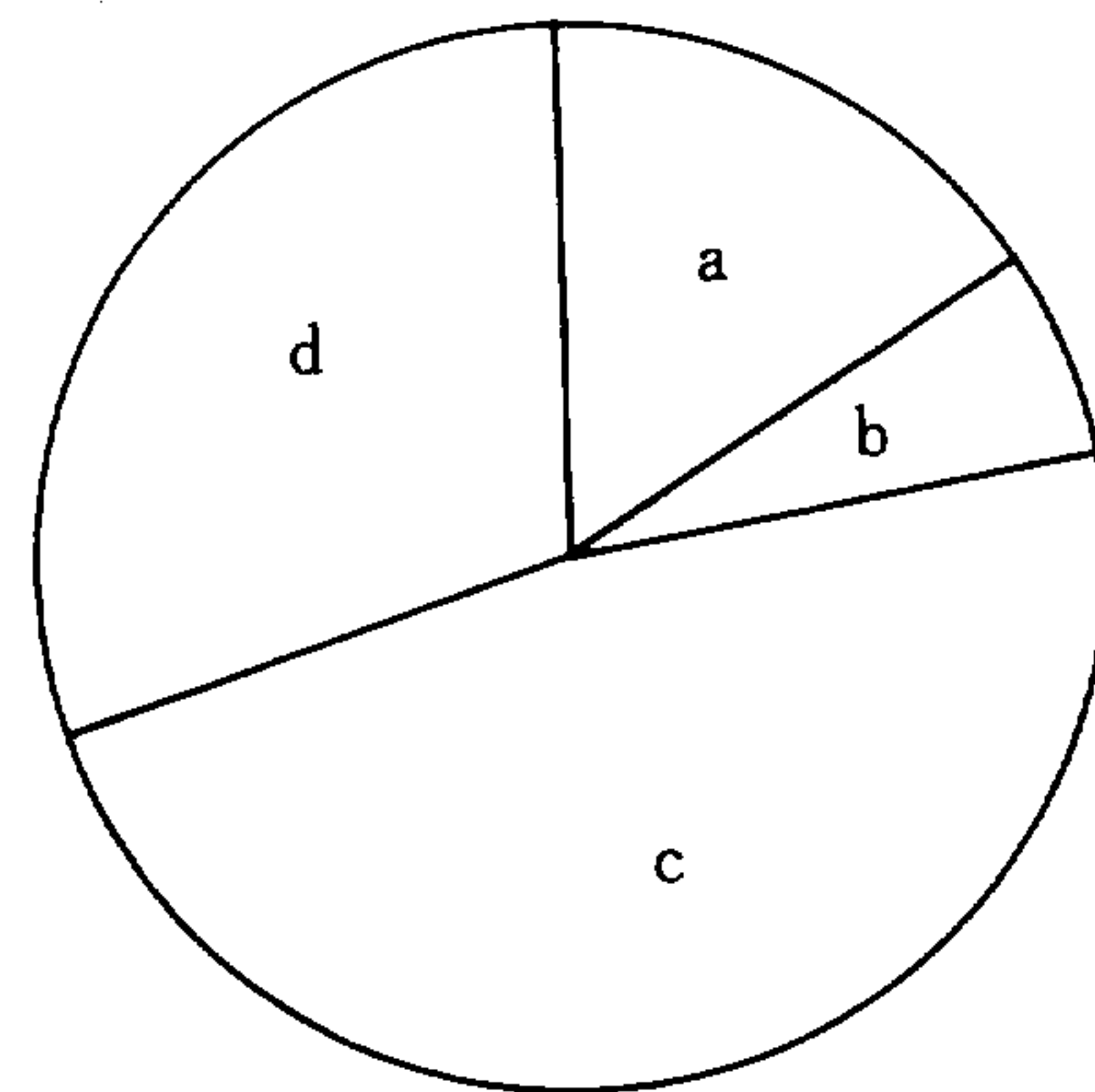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17 (65.4)	6,296 (15.2)	2 (7.7)	2,537 (6.1)	6 (23.1)	19,317 (46.5)	1 (3.8)	13,350 (32.2)	26	41,500	1,596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합판생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술이나 수출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후진국 뿐만아
니라 선진국投資도 가능하다. 가구는 이제 한창 수출확장단계에 있으며, 특히 중산층가
구, 사무용가구, 부엌용가구 등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료가 저
렴한 제3국에 進出하는 것이 유망한 업종이다.

(마) 종이 인쇄

종이 인쇄의 海外直接投資는 총 10건에 2,404만달러이다. 10건중 7건이 북미지역에 投
資되었고 동남아지역도 2건이 投資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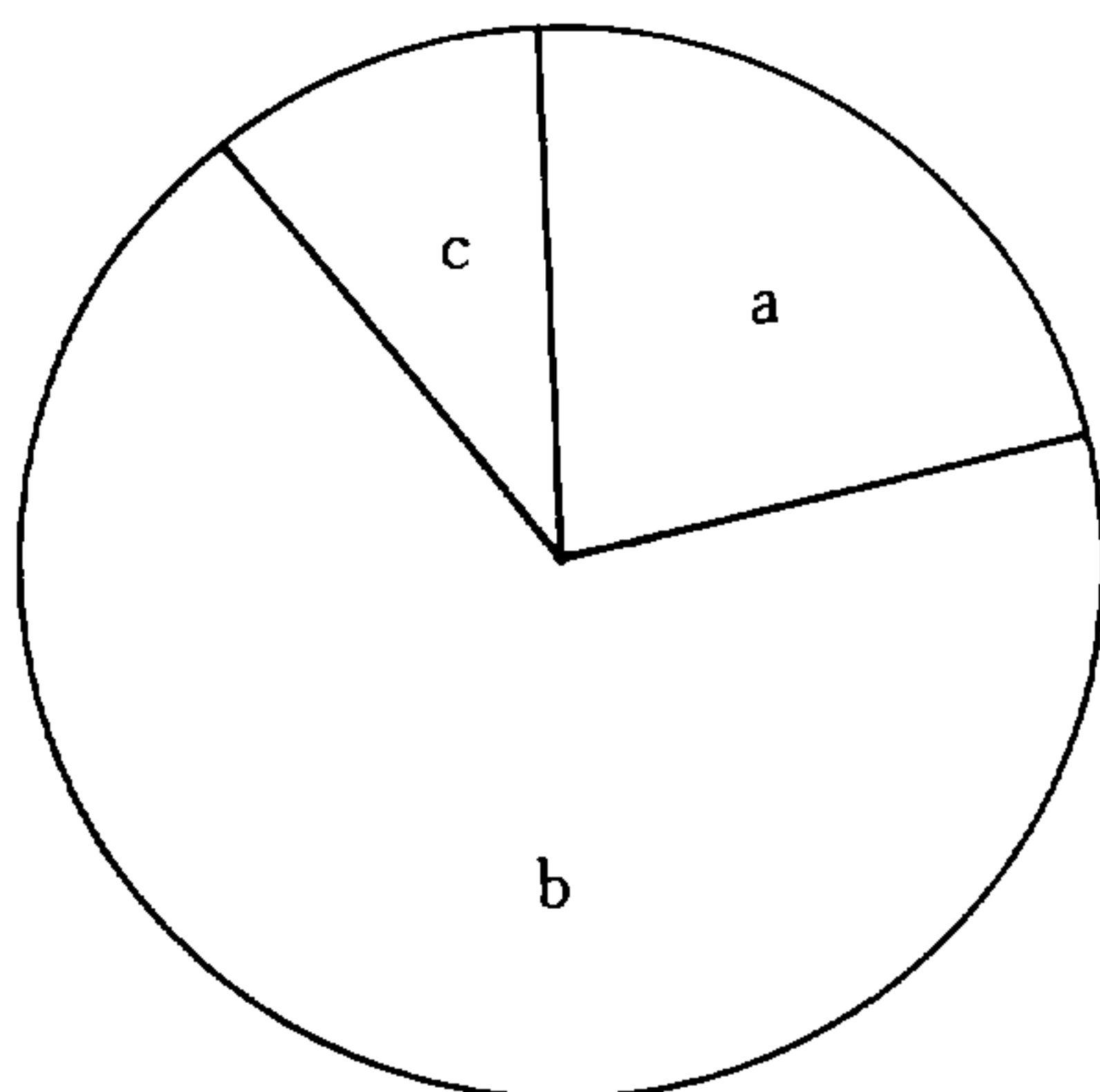
종이 인쇄부문은 비교적 중간정도의 投資規模를 보이고 있다. 비록 대규모의 投資는 한건

〈圖表13〉 종이 인쇄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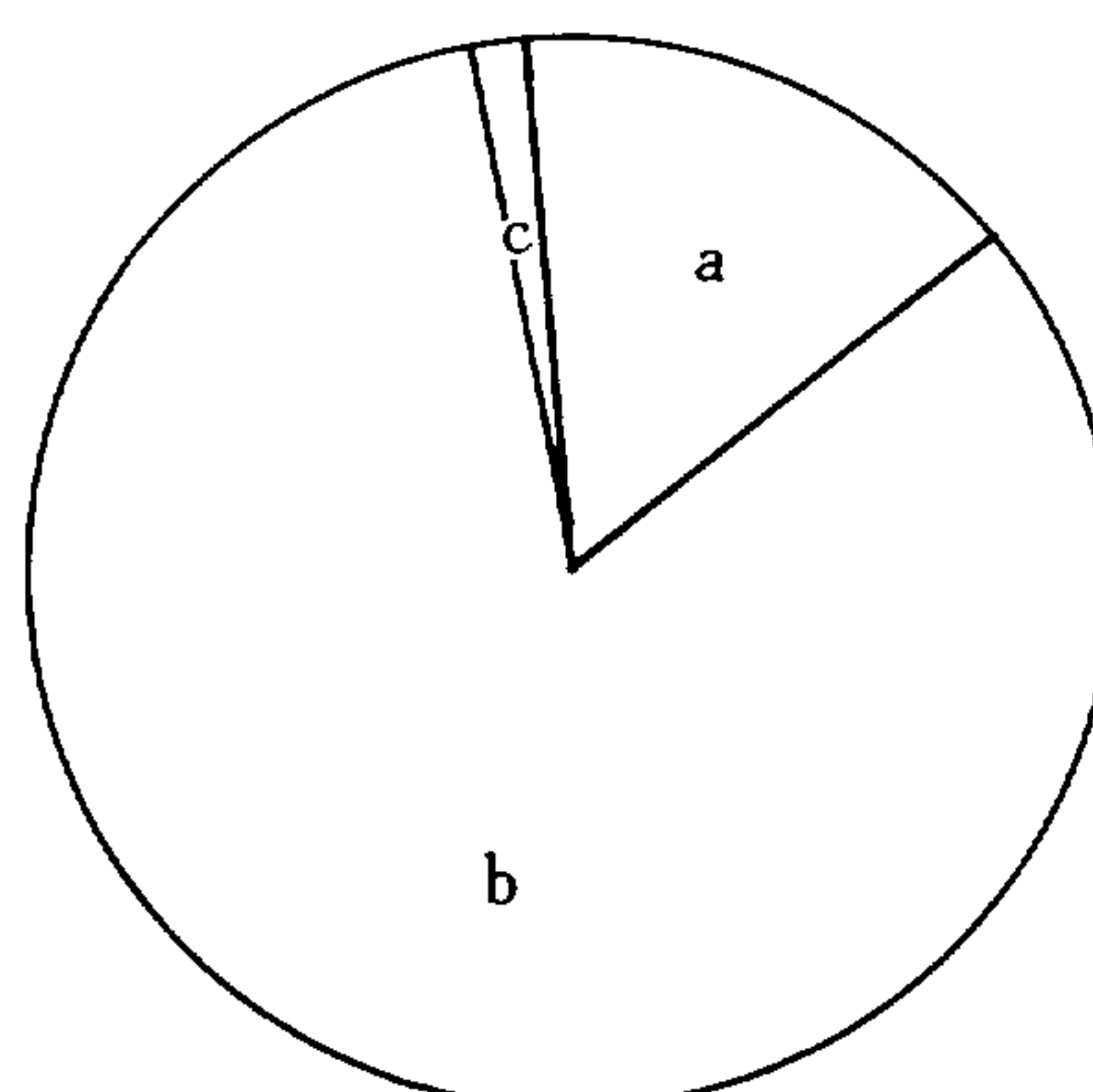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유 럽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20.0)	3,459 (14.4)	7 (70.0)	20,302 (84.5)	1 (10.0)	279 (1.2)	10	24,040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유럽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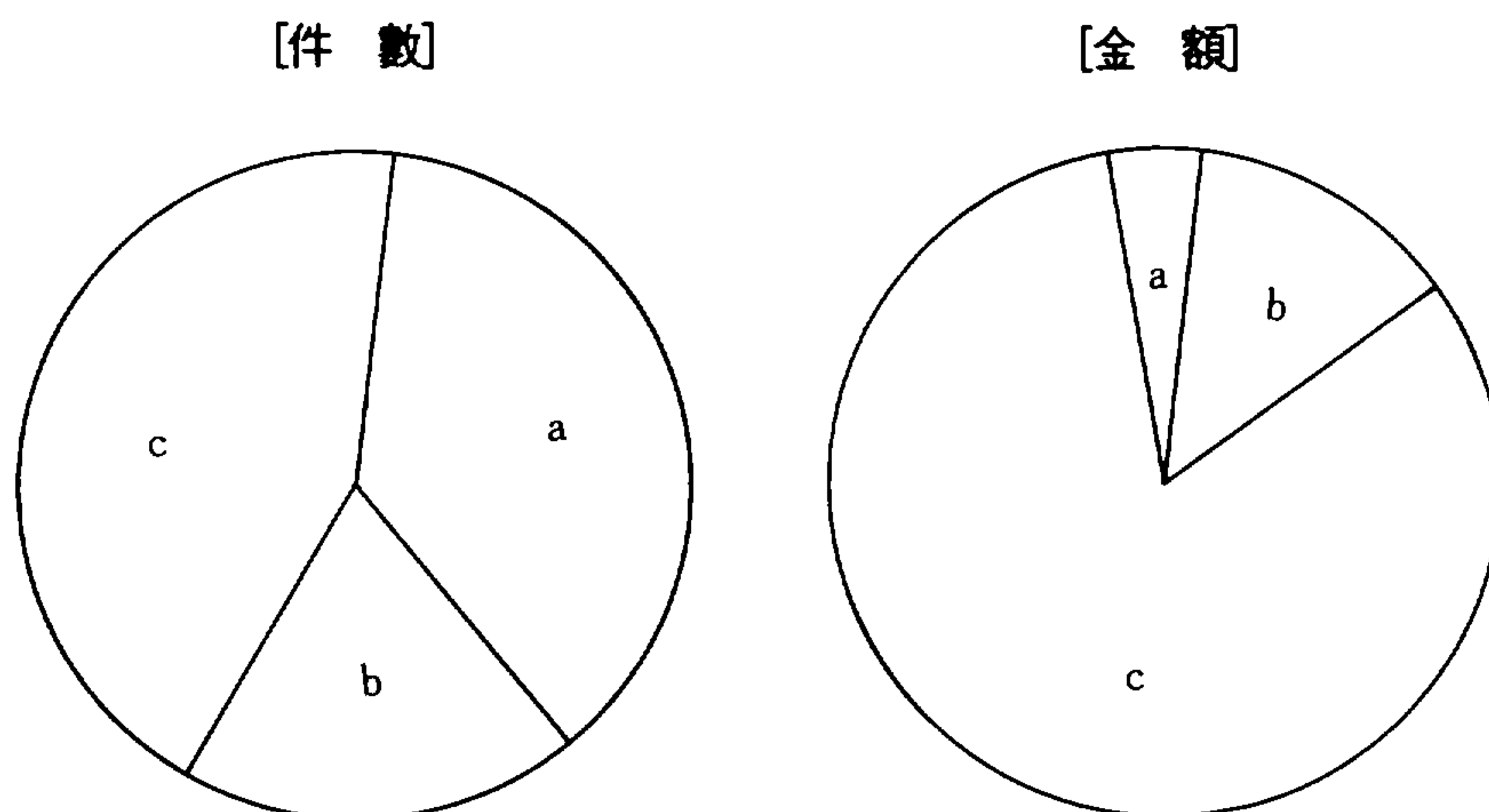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도 없었지만 2백만달러 이상 5백만달러 이하의 投資가 총 4건에 1,913만 6천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投資를 한 것은 미호제지가 미국에 投資한 8백5십만달러로 전체의 35.4%이다.

〈圖表14〉 종이인쇄 投資規模別 現況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4 (40.0)	1,445 (6.0)	2 (20.0)	3,459 (14.4)	4 (40.0)	19,136 (79.6)	10	24,040	2,404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바) 石油化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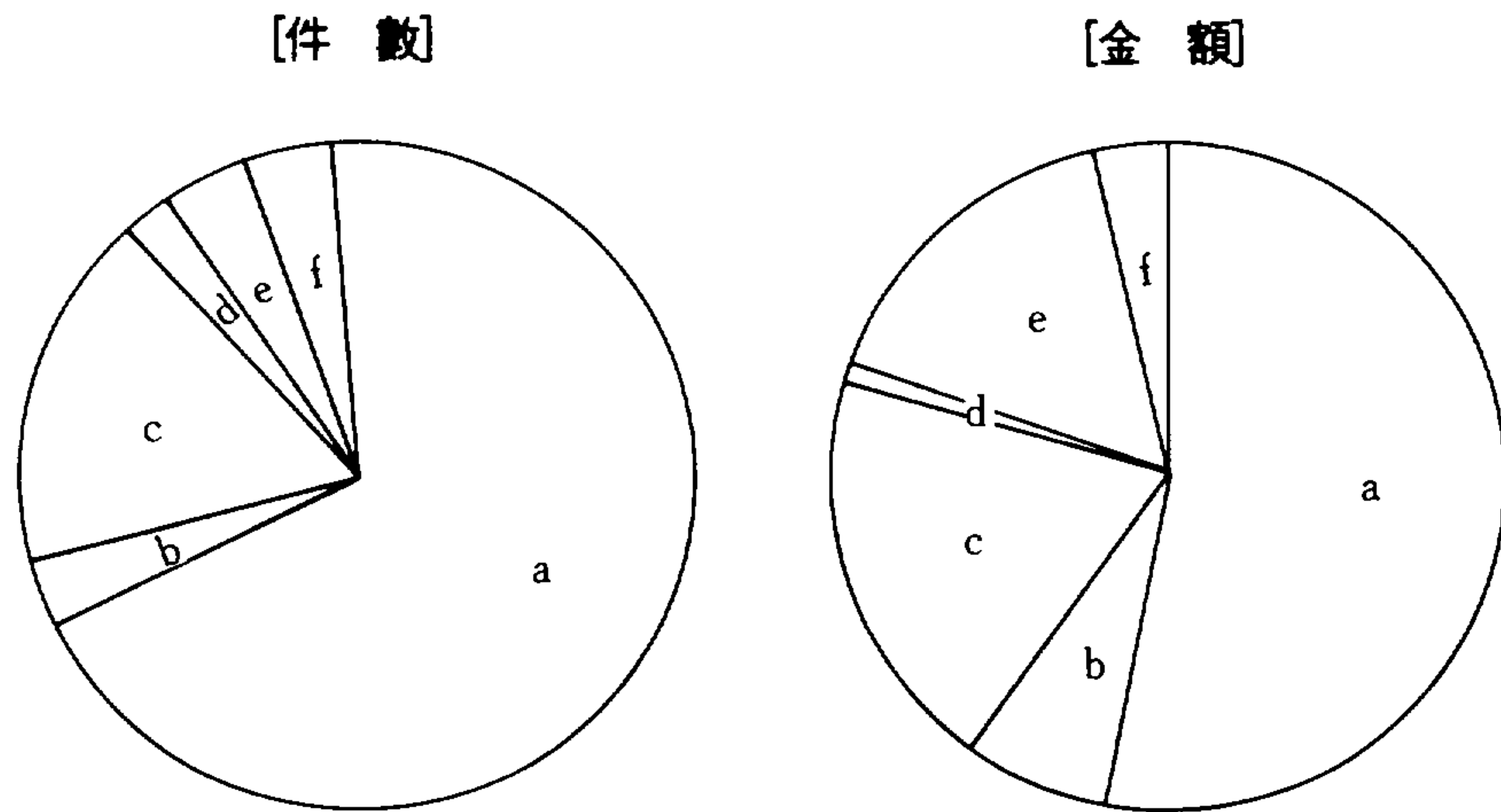
石油化學의 海外投資는 본사 원재료의 안정적 조달과 遊休技術을 이용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한다.

石油化學部門의 海外投資는 총 65건에 1억 6,718만 1천달러이다. 이중 동남아에 대한 投資가 전체중 70.8%인 46건에 달한다. 그리고 북미지역에 10건이 投資되어 이 두지역에의 투자는 86%에 이른다.

〈圖表15〉 석유화학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基準)

單位: 件, 천달러, %

동 남 아		중 동		북 미		중 남 미		유 럽		아프리카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6 (70.8)	88,055 (62.7)	2 (3.1)	12,956 (7.8)	10 (15.4)	31,057 (18.6)	1 (1.5)	683 (0.4)	3 (4.6)	26,640 (15.9)	3 (4.6)	7,740 (4.6)	65	167,181



a: 동남아 b: 중동 c: 북미 e: 중남미 d: 유럽 f: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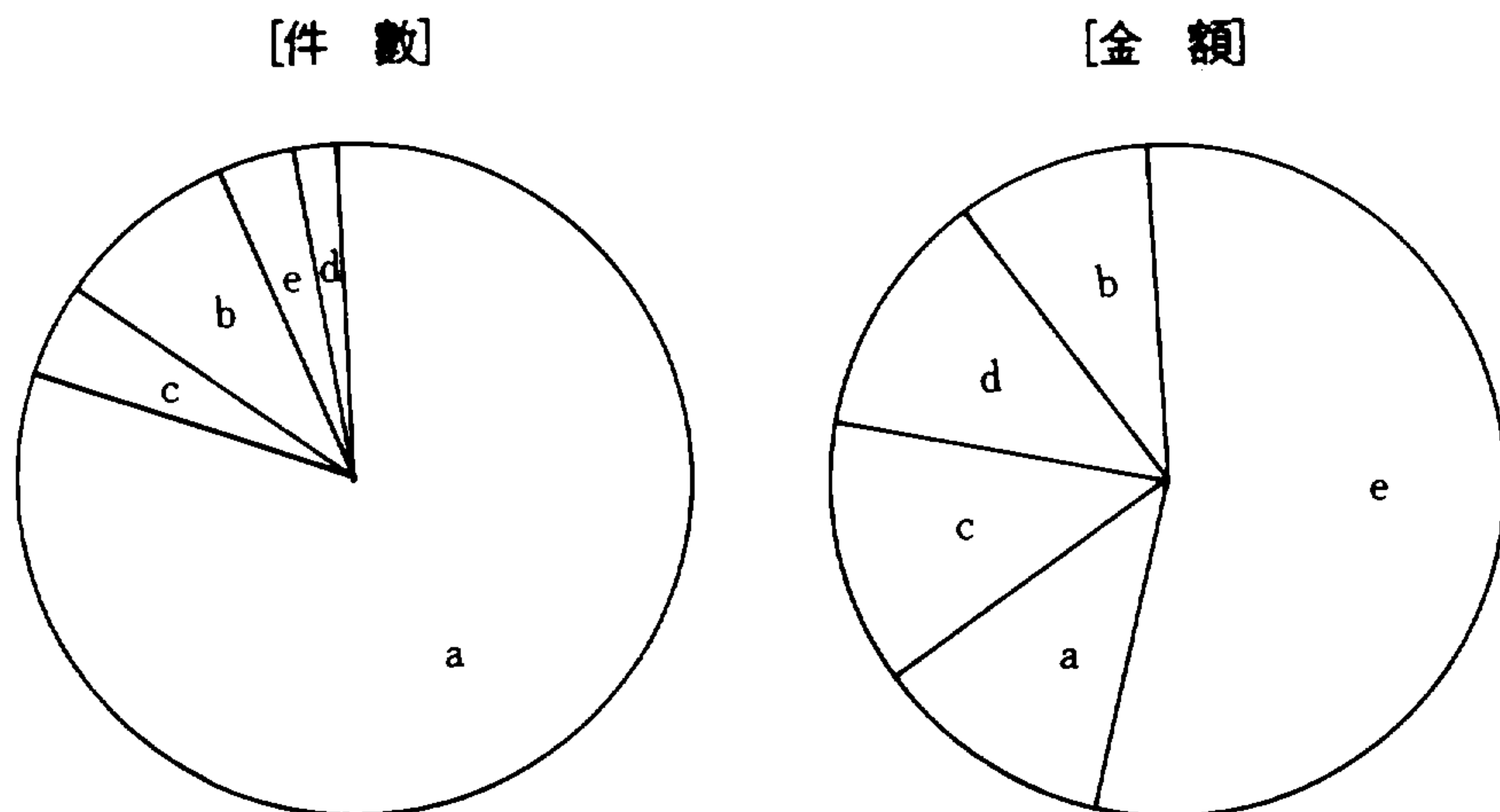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圖表16〉 석유화학 投資規模別 現況

單位: 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38 (58.4)	17,836 (10.7)	12 (18.5)	16,910 (10.1)	7 (10.8)	22,710 (13.6)	3 (4.6)	19,507 (11.7)	5 (7.7)	90,215 (53.9)	65	167,181	2,572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10,000이하
d: 5,000초과 -10,000이하 e: 10,000초과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石油・化學部門은 서통이 1990년 6월말에 미국 뉴욕에 投資한 접착TAPE製造業體(2천 4백만달러)와 새한미디어가 1987년 4월 아일랜드에 投資한 VIDEO TAPE製造業體(2천 2백 5십만달러), 그리고 서통이 1990년 1월 필리핀에 投資한 OPP FILM, CPP FILM製造業體(2천1백2십만달러)를 제외하면 石油化學製品의 기초원료를 生産하는 대형 PROJECT는 없고, 대부분 生産規模가 적은 고무장갑, 비닐, 프라스틱製品 등의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총 65건중 76.9%에 해당하는 50건이 2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投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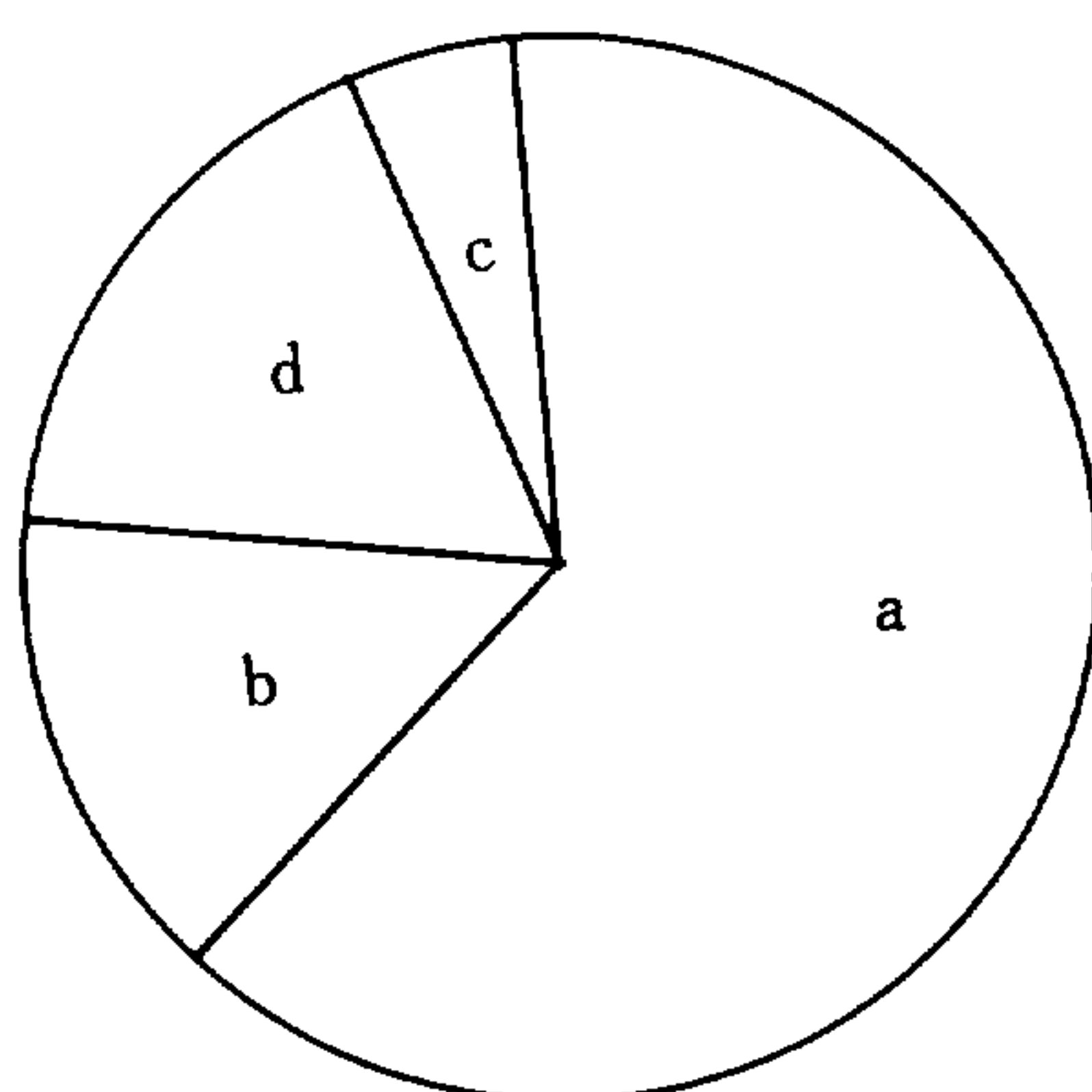
(사) 非金屬鑛物

〈圖表 17〉 비금속광물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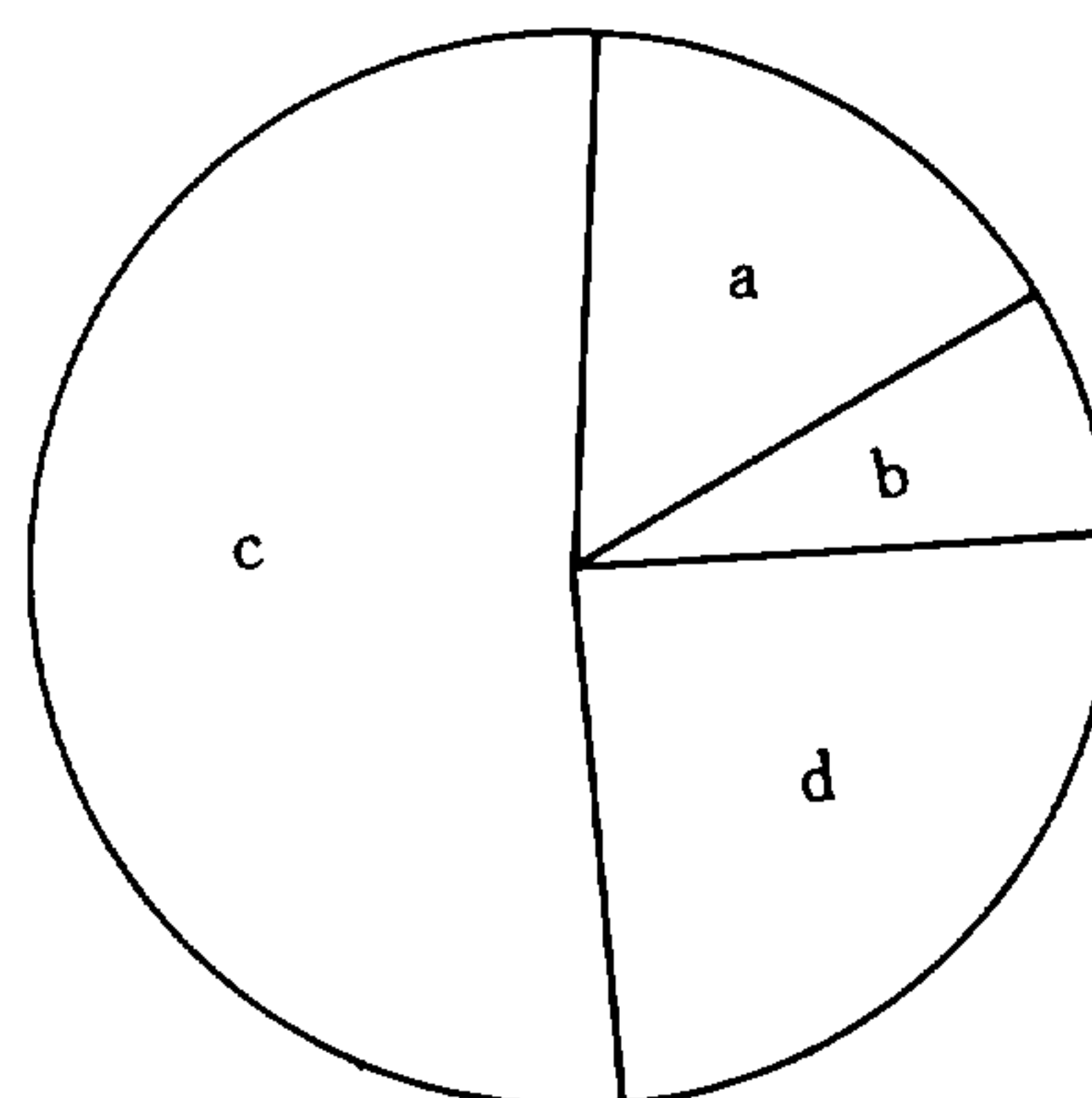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아프리카		대 양 주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 (82.6)	46,114 (96.6)	1 (4.3)	1,000 (2.1)	2 (8.7)	323 (0.1)	1 (4.3)	304 (0.2)	23	47,741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아프리카 d: 대양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非金屬鑛物の 海外投資는 총 23건에 4,774만 1천달러이다. 이중 82.6%인 19건이 동남아지역에 투자되었고 金額面에서도 96.6%인 4,611만 4천달러가 동남아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이처럼 非金屬鑛物の 투자는 동남아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남아지역의 투자를 나라별로 보면 인도네시아에 3건, 인도에 3건, 중국에 4건, 말레이시아 3건, 필리핀 2건, 싱가포르 1건, 스리랑카 2건, 태국 1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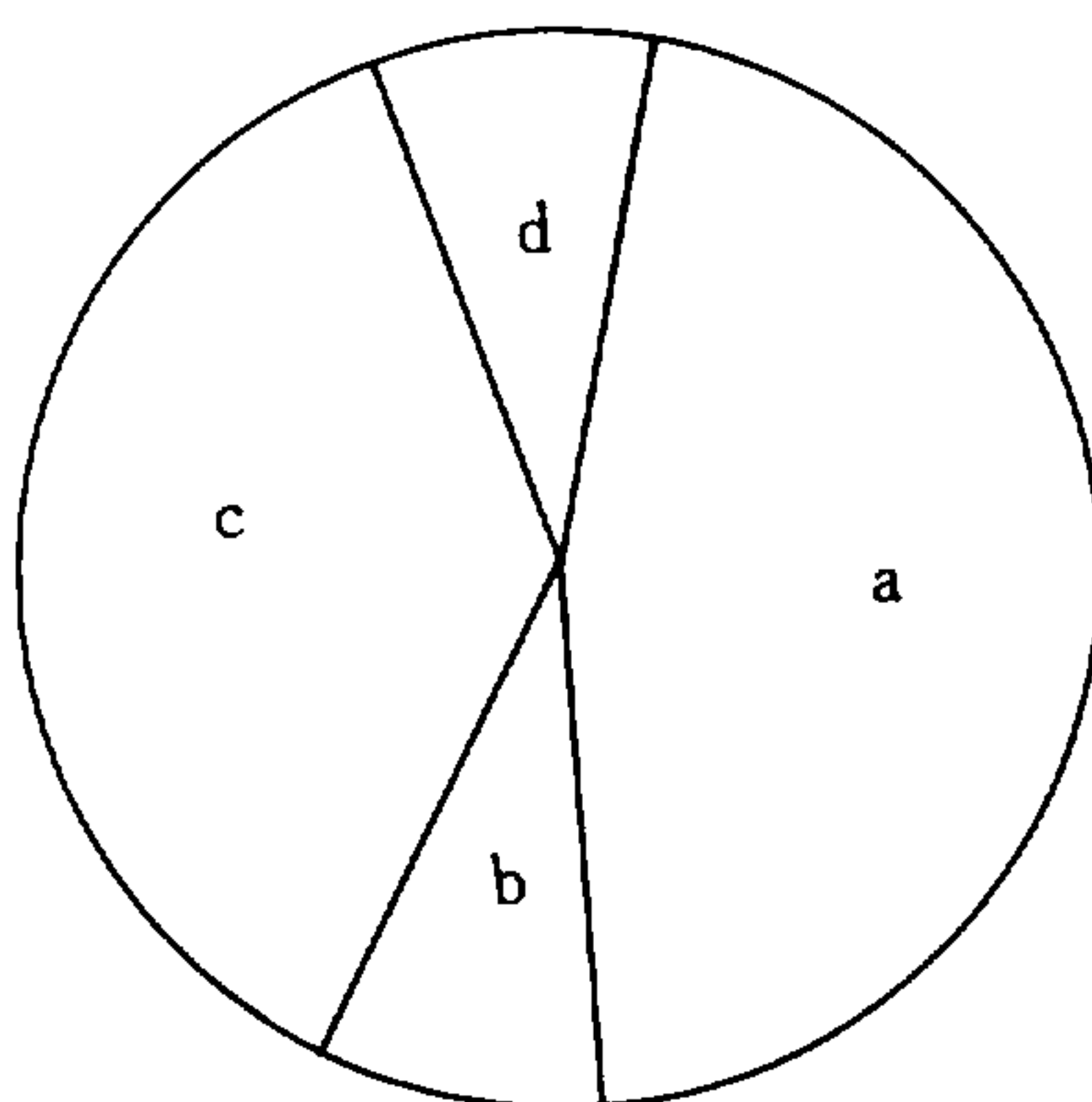
비금속광물部門에서도 한국중공업이 1981년 8월 말레이시아에 投資한 시멘트공장(2천 5백만 2천달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小規模 投資이다. 평균투자규모가 2백만달러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65%인 15건이 1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투자로 행해지고 있다.

〈圖表18〉 非金屬鑛物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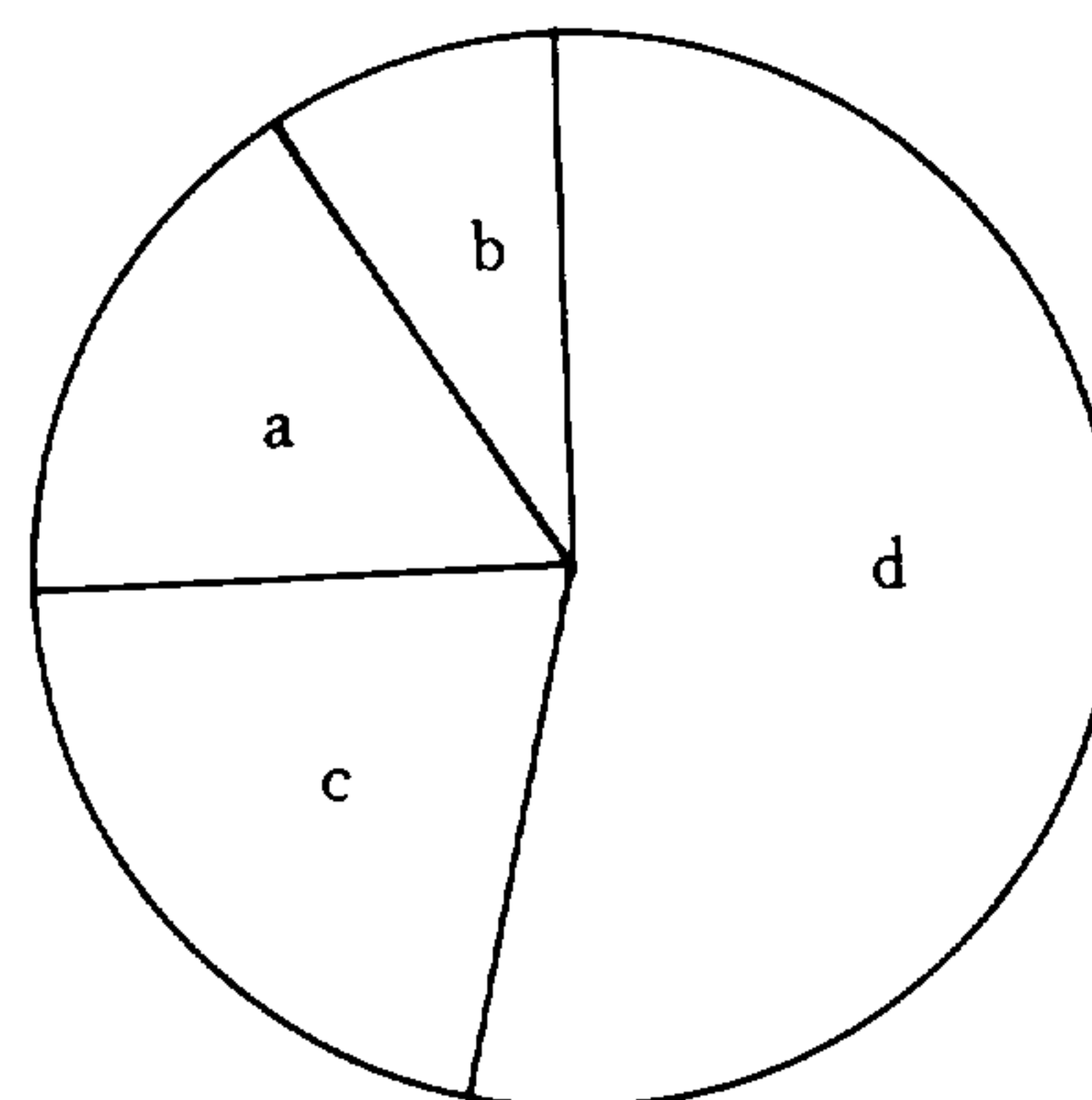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15 (65.2)	6,195 (13.0)	3 (13.06)	4,035 (8.5)	4 (17.4)	12,509 (26.2)	1 (4.3)	25,002 (52.4)	23	47,741	2,076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아) 1차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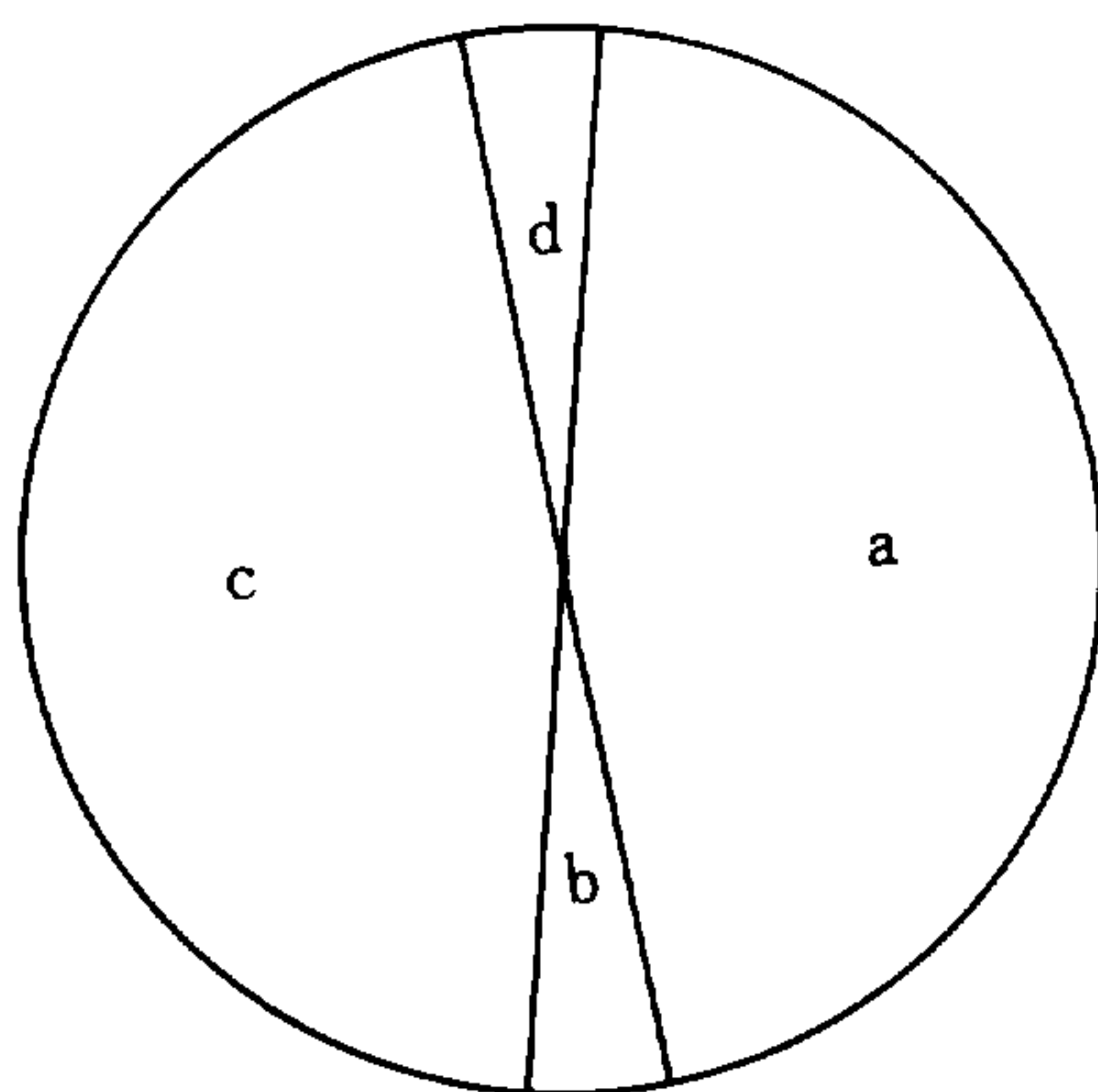
1차금속의 투자는 주로 선진국의 輸入規制強化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행해지고 있다.

〈圖表 19〉 1次金屬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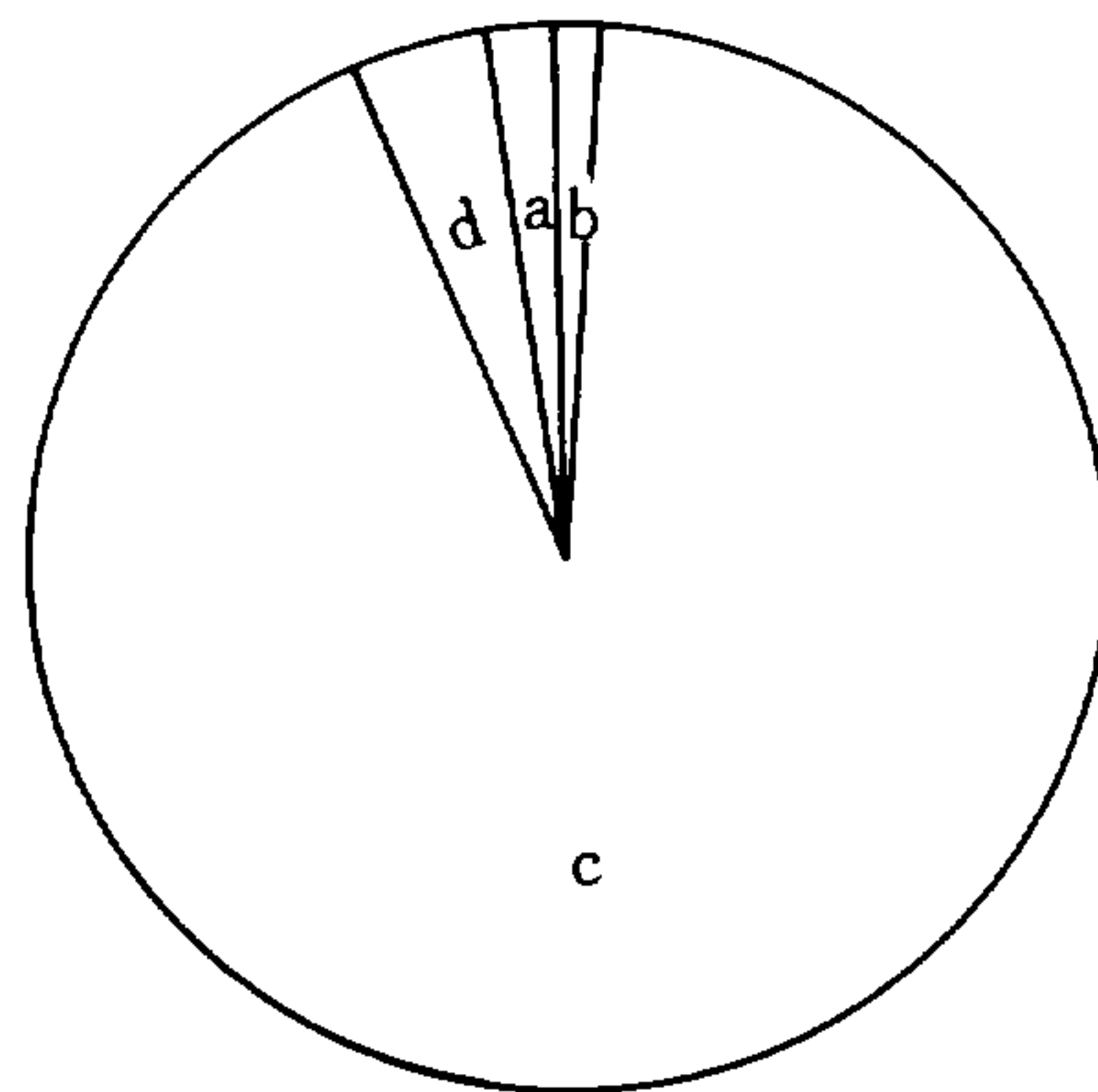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중 동		북 미		유 럽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 (41.7)	4,958 (1.9)	1 (8.3)	2,130 (0.8)	5 (41.7)	253,750 (97.3)	1 (8.3)	2,000 (7.6)	12	260,708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중동 c: 북미 d: 유럽

註：1991. 6. 30. 現況(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1차금속의 총 海外投資件數는 12건이다. 總投資金額은 2억 6,070만 8천달러 이다. 1차금속의 투자지역도 동남아와 북미지역에 거의 다 투자되고 있다. 동남아지역에는 50%가 북미지역에는 41.7%가 투자되어 이 두지역에 무려 91.7%나 투자되고 있다.

1차금속은 다른 업종보다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1차금속의 평균투자규모는 2,172만 5천달러로 가장 크다. 특히 1천만달러이상의 대규모투자도 3건이나 된다. 이는 포항종합제철이 미국 델라웨어에 投資한 PSAC(1억 2천 5백 8십 7만 5천달러), 삼미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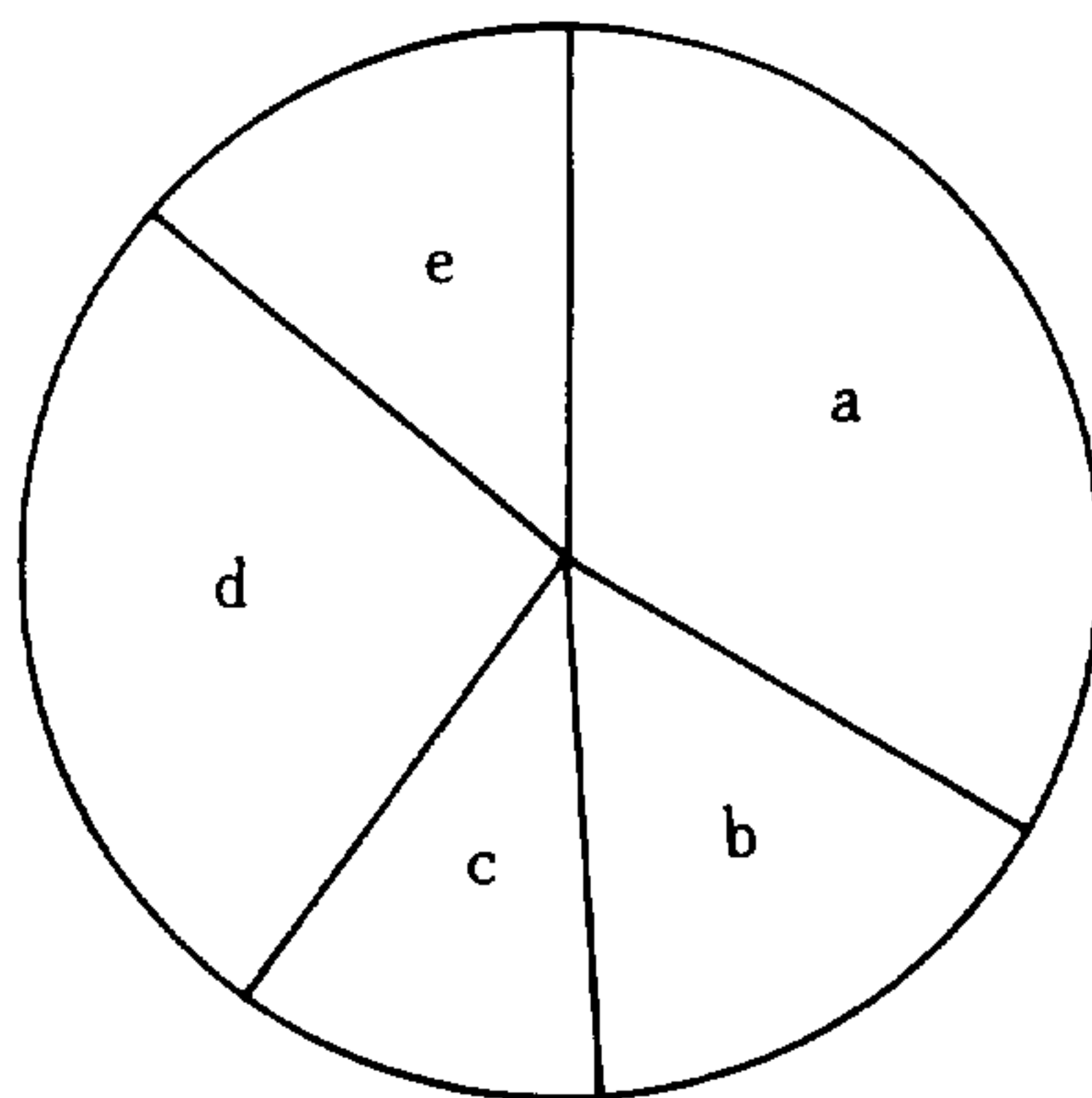
특수강이 1989년 6월 캐나다에 投資한 SCI(7천 8백 7십 7만 5천달러), 풍산이 1990년 2월 미국 아이오와에 投資한 PIC(3천 8백 8십만달러) 등으로 1차금속部門 전체 投資額중 93.4%를 차지하고 있다.

〈圖表20〉 1차금속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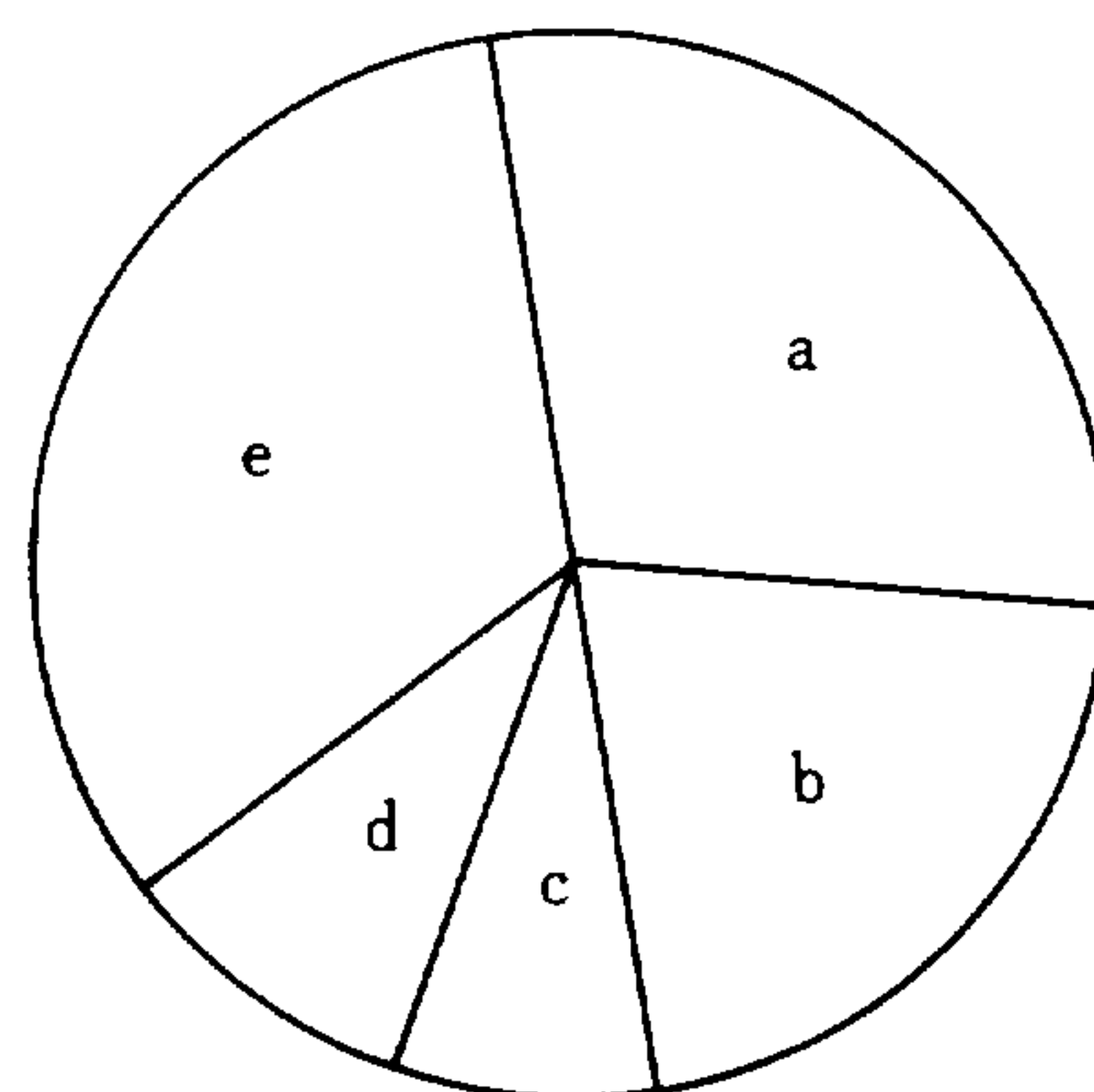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5 (41.7)	1,478 (5.7)	2 (16.7)	3,650 (1.4)	1 (8.3)	2,130 (8.1)	1 (0.8)	10,000 (3.8)	3 (25.0)	243,450 (93.3)	12	260,708	21,725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10,000이하 e: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자) 組立金屬

組立金屬部門의 해외진출은 선진국등 수입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습득, 라이벌기업의 경영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組立金屬部門의 해외진출은 이직까지는 技術의 열위로 인해서 선진국의 그것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製造業全體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몇몇 부품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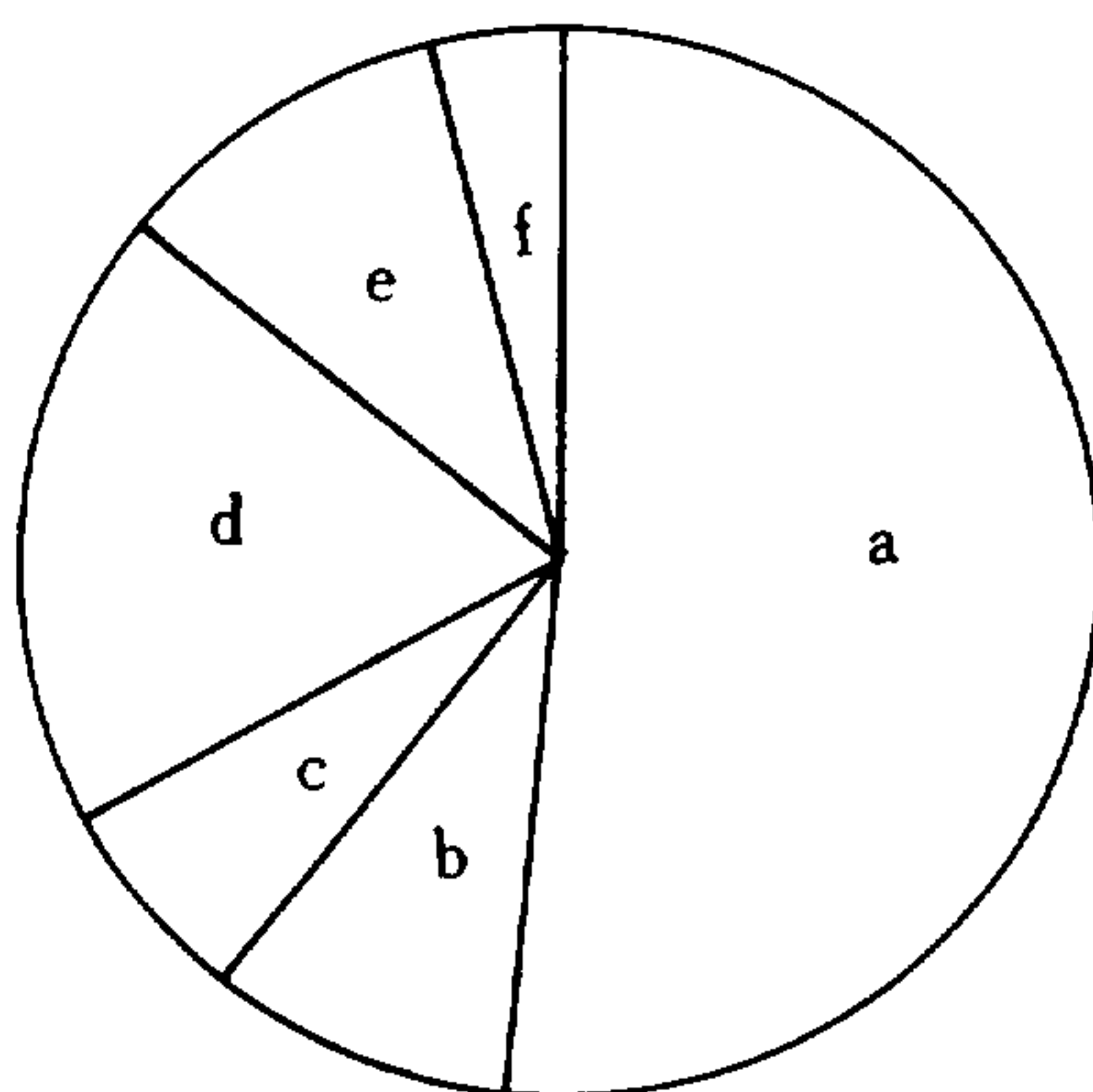
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직접회로, 퍼스컴, 電子交換機 등은 자체기술이 개발되어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다. 앞으로는 가정용 전자기기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용 전자기기 중심체제로 고도화될 것이다. 組立金屬部門의 지역별 투자현황은 다음 〈圖表 21〉과 같다.

〈圖表21〉 조립금속 地域別 海外投資 現況(投資 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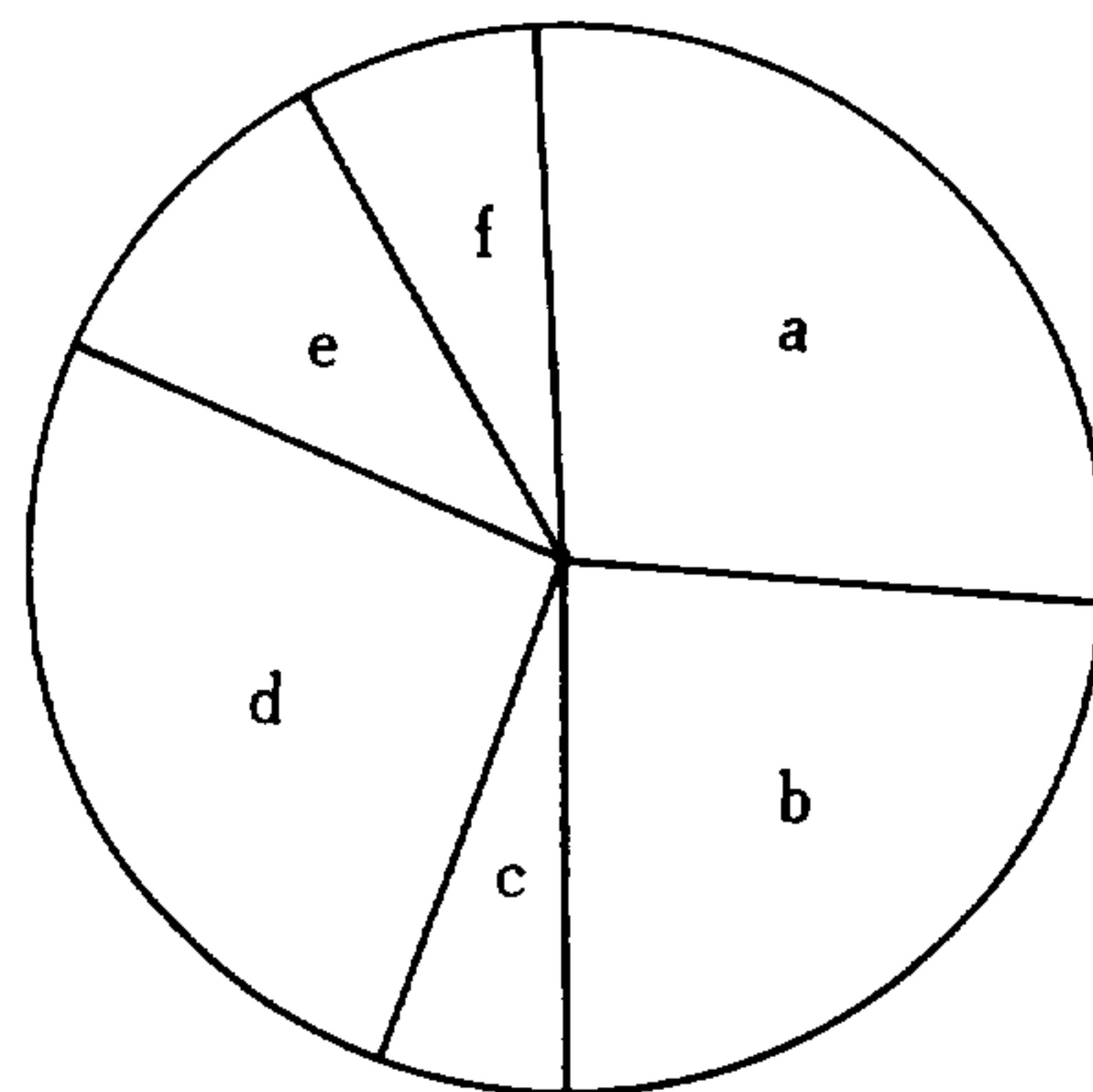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중 남 미		유 럽		아프리카		대 양 주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0 (62.5)	111,364 (32.5)	18 (16.1)	181,980 (53.0)	2 (1.8)	238 (0.1)	17 (15.2)	46,318 (13.5)	3 (2.9)	2,664 (0.8)	2 (1.8)	590 (0.2)	112	343,154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중남미 d: 유럽 e: 아프리카 f: 대양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組立金屬部門의 海外直接投資는 총 112건에 3억 4,315만 4천달러이다. 組立金屬部門의 해외진출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12건중 62.5%인 70건이 동남아에 편중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 18건, 유럽지역에 17건이 각각 투자되었다.

家電業體들이 海外投資를 시작한 것은 1981년 이었는데, 미국의 컬러 TV에 대한 덤핑 제소를 시작으로 하여 輸入規制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現地投資에 나섰던 것이다. 금성사

가 미국헌츠빌공장을 1982년부터 가동시켰고 삼성전자가 1983년 포르투갈공장을 완공시켰다.

그 이후 한해동안 주춤했던 海外投資가 1988년이래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1991년대이후에는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부문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관련 基礎工業의 기술기반이 취약하며 生産技術 부문은 높은 수준으로 單純加工과 組立技術은 선진국에 접근해 있으나 열처리 기술, 도장기술, 도금기술, 금형제작기술 등은 취약한 상태이다.

組立金屬部門의 해외투자는 평균 306만 3천달러이다. 조립금속 부문의 평균투자가 이처럼 다른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몇건의 대형투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組立金屬部門은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에 投資한 HACI(1억 2천 9백 5만 9천달러)외에 대형투자가 없으나, 쌍용자동차가 1988년 8월 영국에 투자한 스포츠카製造業體(2천 2백 8십 1만 5천달러)와 아남산업이 필리핀에 투자한 AAPI(2천만달러)도 비교적 많은 액수의 投資를 기록하고 있다. 組立金屬部門중 電子・電氣業種의 海外投資企業들은 대체로 2백만 달러 내외로 韓國銀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이 金額의 약 5-10배 現地金融 이상을 하기 때문에 〈圖表 22〉에 나타난 金額으로는 投資規模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電子・電氣의 消費財產業은 資本集約的이면서 勞動集約的이므로 선진국정부나 기타 지역기관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조건과 상당한 規模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며 유치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필리핀에는 금성사, 삼성전자가 모두 진출했다. 태국, 인도네시아는 노임이 낮고 現地販賣가 가능한 유리한 지역이다. 말레이시아에 대하여는 대규모 공단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선풍기, 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전자・전기제품 공장입지로 환영받고 있다. 터키는 EC의 길목으로서 각각 現地業體, 日本業體와 3국간 합작을 통해 진출했다. 그리고 중국지역에도 대우전자가 복주냉장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추가로 部品工場을 추진, 關心地域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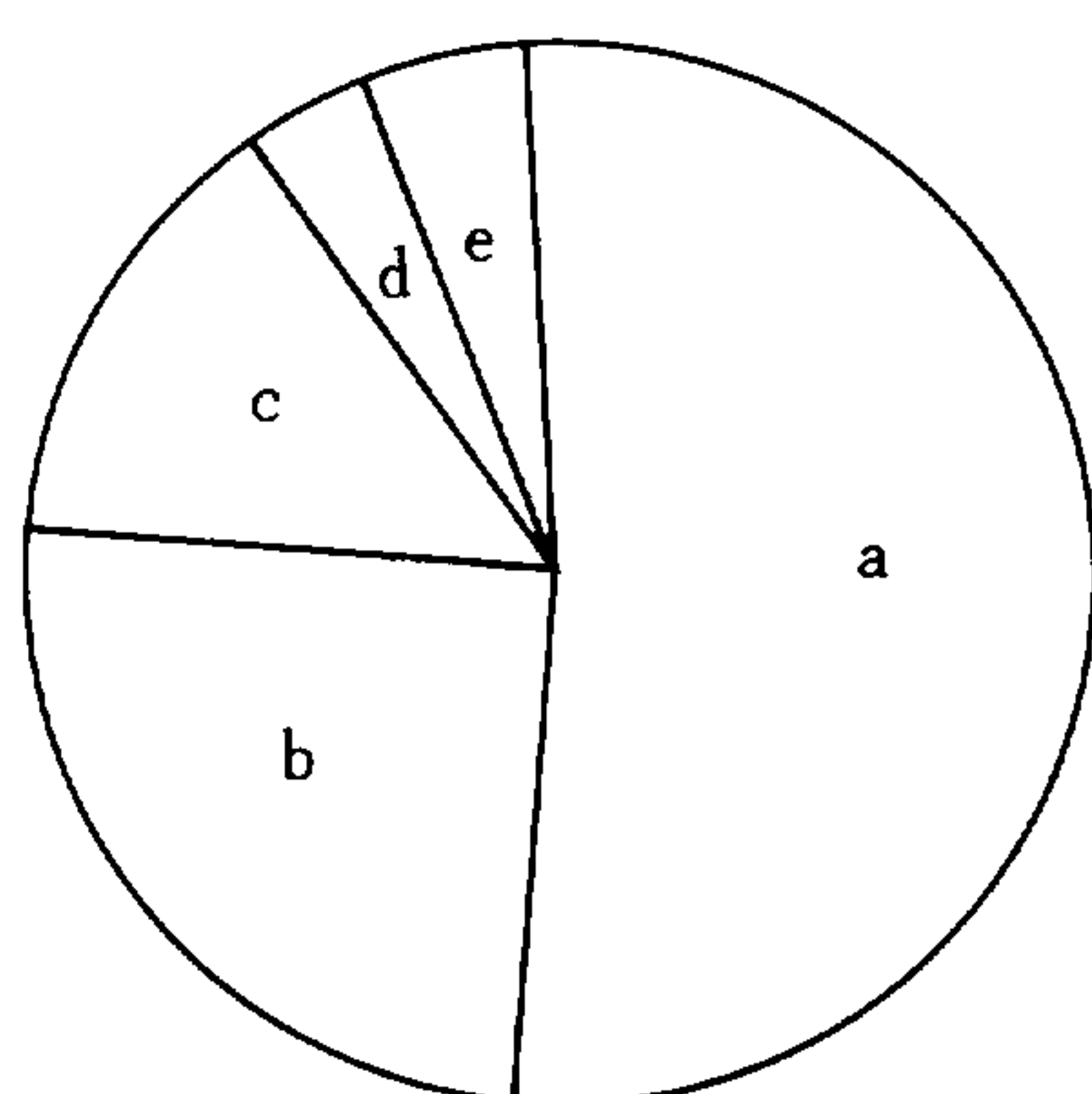
한편 EC투자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우는 1989년 프랑스와 영국에 각각 전자 레인지와 VCR공장을 완공, 가동을 시작했다. 家電業體들의 EC투자가 활발해진 것은 92년 EC통합을 앞둔 사전포석이며, 현상태로는 일단 전진기지가 구축된 셈이며 앞으로 시장동향을 보아가며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圖表22〉 조립금속 投資規模別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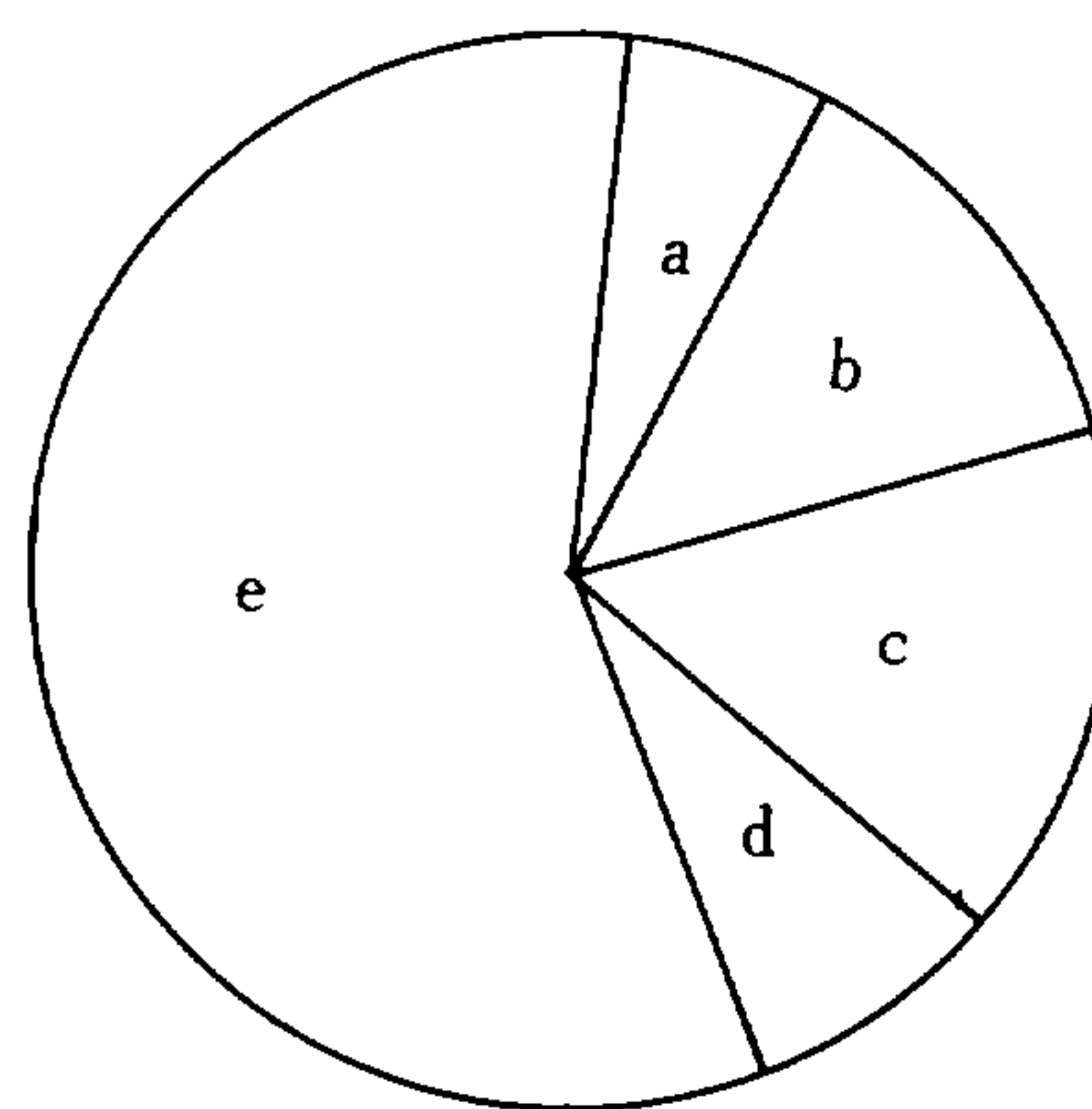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10,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59 (52.7)	23,976 (7.0)	28 (25.0)	41,594 (12.1)	16 (14.3)	53,105 (15.5)	4 (3.6)	24,300 (7.1)	5 (4.5)	200,179 (58.3)	112	343,154	3,063

[件 數]



[金 額]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10,000이하 e: 10,000초과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초보단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소형차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북미를 중심으로 海外輸出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先進國의 保護貿易으로 인해 海外組立生産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다.

(차) 機械裝備

機械裝備의 해외직접투자는 遊休技術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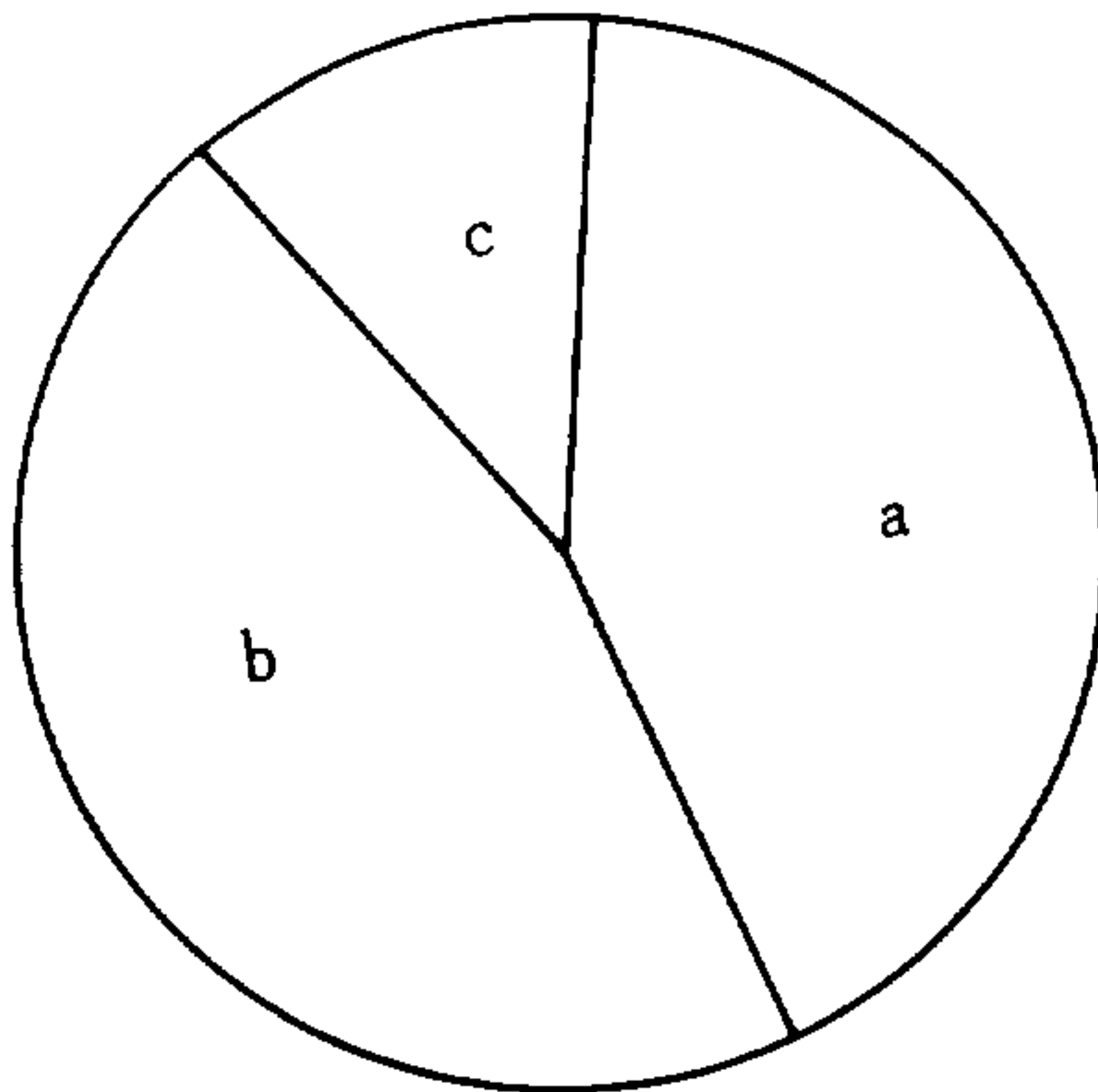
機械裝備의 海外投資는 총 28건에 2,812만 4천달러이다. 機械裝備의 海外投資는 다른 製造業에 비해 가장 조한 진출을 보이고 있다. 28건중에서도 25건이 동남아와 북미에 투자되고 있다.

〈圖表23〉 기계장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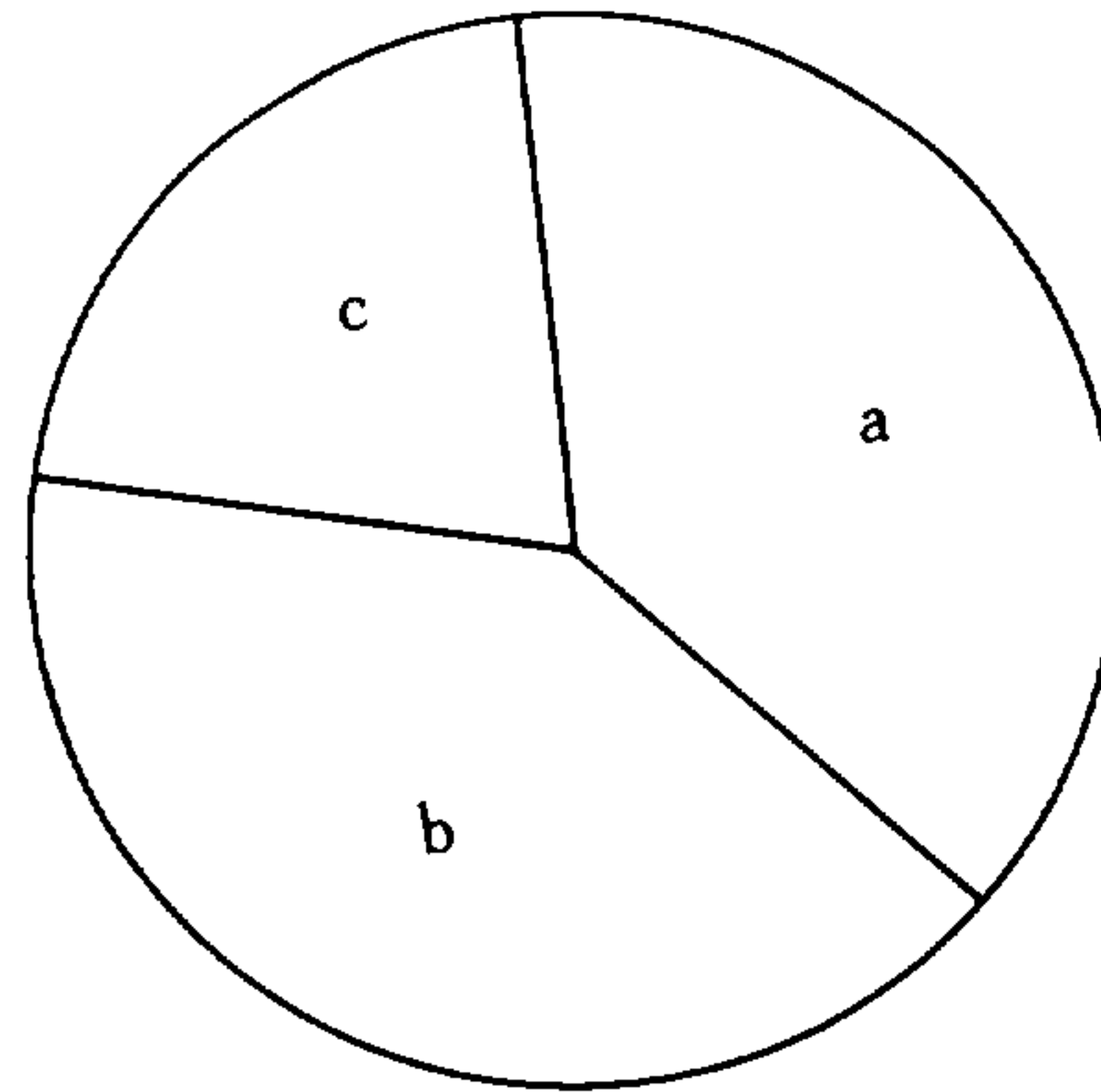
單位：件, 천달러, %

동 남 아		북 미		유 럽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2 (42.9)	11,819 (42.0)	13 (46.4)	9,468 (33.7)	3 (10.7)	6,837 (24.3)	28	28,124

[件 數]



[金 額]



a: 동남아 b: 북미 c: 유럽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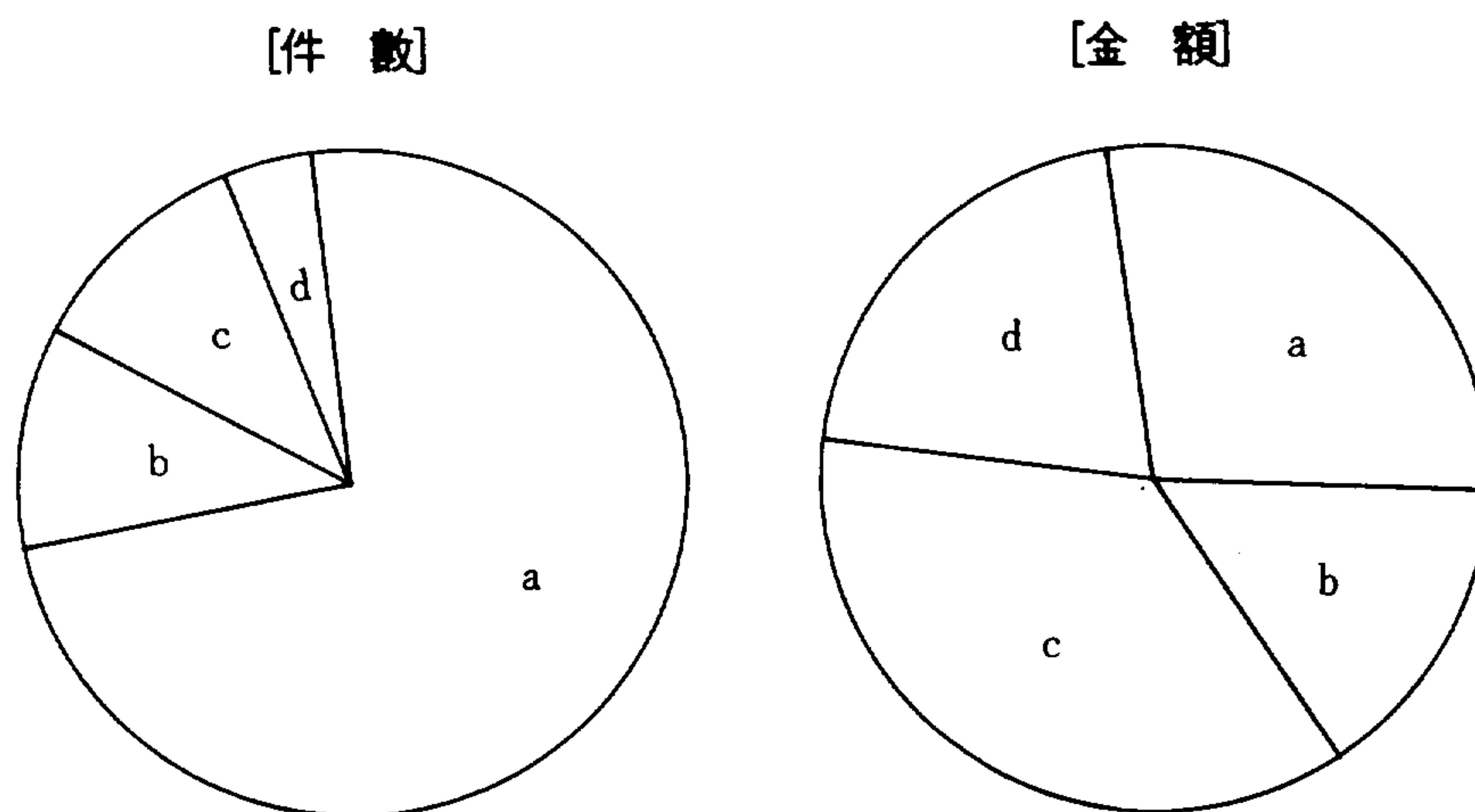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機械裝備의 海外投資는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투자(1990년 6월)가 6백만달러로서 가장 많은 投資額數를 나타내고 있다. 機械裝備의 平均投資金額은 1백만달러로서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圖表24〉 기계장비 投資規模別 現況

單位：件, 천달러, %

1,000이하		1,0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5,000이하		-10,000초과		계		평균투자 규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21 (75.0)	7,714 (27.4)	3 (10.7)	4,613 (16.4)	3 (10.7)	9,797 (34.8)	1 (3.6)	6,000 (2.3)	28	28,124	1,004



a: 1,000이하 b: 1,000초과-2,000이하 c: 2,000초과-5,000이하
d: 5,000초과-10,000이하

註: 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 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第 3 節 製造企業 發展段階別 分析

1. 産業別 海外投資 推移分析

우리나라의 製造業海外投資는 1968년 海外投資가 처음 시작된 이래 14년간은 한두건의 投資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전반기에 投資 실험기를 거쳐 80년대 후반부터 投資活性化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投資初期段階인 68년에서 75년사이 總海外投資는 약 9백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시기의 投資業種을 살펴보면 非金屬鑛物비 금속광물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쌍용양회공업이 73년 싱가포르에 시멘트 공장을 合作投資한 것으로 단 한건에 불과하다. 海外直接投資의 대부분은 飮,食料品을 중심으로 한두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현재는 飮,食料品은 전체의 35.7%를 이루고 있다. 石油化學이 6.0%, 1次金屬이 5.1%, 기타가 11.9%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중에서도 기타 잡화류들이 주종을 이룬다. 投資品目은 주로 조미료, 제빵, 신발, 의류, 인쇄, 타이어, 목재, 건축자재, 문구류 등이다. 또 이들은 대부분 消費

財이며, 鐵, 非鐵, 一般機械, 精密機械, 運送機械 등 資本財產業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電子, 電氣 업종도 거의 없다. 投資地域도 인근 東南亞 地域에 대부분 投資되었으며, 아프리카, 北美, 中東 등에 한두건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시기의 投資가 주로 소비재산업의 일반잡화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투자지역이 東南亞 地域에 몰려있었던 이유는 첫째, 企業이 大規模의 資本投資를 요구하는 자본재 산업의 海外移轉에는 아직도 海外產業의 경험이 부족할 뿐더러 기술수준도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근 東南亞 地域은 문화나 인종, 지리적 거리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市場정보를 획득하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다. 일부기업들이 現地 政府의 輸入規制나 기타 輸出의 어려움이 있는 산업을 골라 小規模로 現地市場에 直接 投資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6년에서 1986년사이 海外生産은 거의 고루게 분포된 편이었다. 이시기를 海外投資 정비기라고 할 수 있다. 産業別 投資現況을 보면 組立金屬이 전체의 41.9%인 약 1억 6천 달러를 投資해 가장 많은 액수를 投資했고, 그 다음이 1次金屬으로 32.7%인 1억 2천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組立金屬과 1次金屬이 74.6%라는 높은 投資를 나타낸 것은 86년 現代自動車의 캐나다進出과 84년 포항종합제철의 미국進出때문에 크게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기를 投資整備기 혹은 投資실험기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우선 포항제철이 1억불이 넘는 거대한 投資 PROJECT를 미국땅에 상륙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勞動資金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어 市場競爭原理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는 가장 선진화된 工業國이다. 포항제철은 세계시장의 중심지에서 모험사업을 벌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80년대후반 세계각국에서 國際生産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리 企業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現代自動車의 캐나다進出도 이 시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投資이다. 現代自動車는 이시기의 말기인 86년 7월 캐나다에 HACI를 설립하여 1억 2천만달러라는 國內企業으로서는 최대의 投資를 하였다. 얼마전 보도된 바에 의하면 캐나다 Ottwa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중 2대중 한대는 現代自動車라는 믿기 어려운 얘기까지 있다.

어쨌든 포항제철과 더불어 現代自動車의 海外進出은 이 시기를 海外投資를 위한 정비기 혹은 實驗期라고 불리게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70년대 말까지는 東南亞나 北美, 中東 등에 投資가 제한되어 있던 것을 80년대 초반 모직물, 가

방, 신사복 등의 纖維類나 비닐장판, 강판, 철물구조 그리고 電子, 특히 CTV업종 등이 추가되면서부터 投資地域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등 전세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초반 한두 開拓企業들의 해외사업성공담이 해당업계에 퍼져 나가자 80년대 후반 초기부터 輸出로서 해외경험이 풍부한 企業들은 海外投資로의 사업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관련투자 제도의 未整備나 投資를 돕기 위한 자본 정보제공 등의 기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87년에서 90년사이를 投資活性期라고 하는데 이시기에는 纖維, 의복에 가장 많은 投資가 있었고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등에 고른 投資가 있었다. 이 시기에는 각종 依類製品, 電子電氣製品, 運送裝備, 비닐製品, 고무製品 등이 海外進出에 줄을 이었다.

89년 초반기에는 각종 食品製造業, 水產物加工業, 一般雜貨類가 많이 추가되었고 특히 삼미특수강은 포항제철이 미국에 投資한데 이어 캐나다에도 또 하나의 대형 철강제조 PROJECT를 성사시켰다. 현재 삼미특수강은 9천 8백만달러로 韓國銀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總投資額은 2억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表4〉 製造産業別 海外投資 推移

單位：천달러%

구분 업종	68-75 (초기단계)	76-86 (정비단계)	87-90 (활성화단계)	1991.1-6 (괄호안은 허가금액)	합 계
음, 식 료 품	3,185	1,542	82,500	1,004 (1,956)	88,231
섬 유, 의 복	0	11,106	165,161	4,550 (23,251)	180,817
신 발, 가 족	0	2,147	51,227	1,130 (5,534)	54,504
목 재, 가 구	0	23,640	17,695	165 (5,149)	41,500
종 이, 인 쇄	0	0	24,040	0 (20,955)	24,040
석 유, 화 학	541	30,091	135,630	919 (10,396)	167,181
비금속광물	3,724	25,279	18,238	500 (8,414)	47,741
1 차 금 속	456	128,106	131,846	300 (4,305)	260,708
조 립 금 속	0	163,855	164,677	14,622 (57,043)	343,154
기 계, 장 비	0	2,790	25,297	37 (4,767)	28,124
기 타 제 조	1,073	2,891	47,082	2,747 (18,912)	53,793
합 계	8,979	391,447	863,393	25,974 (160,682)	1,289,793

註：1991. 6. 30. 현재(總投資基準)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2. 製造業 海外進出企業의 經營成果

한편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業種別 經營成果는 다음의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製造業 海外進出企業의 經營成果는 최근자료의 부족으로 부득이 1987년말 및 1988년말의 資料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表5> 製造業經營의 成果

經營成果 : 部分別實績/總投資金額, 천달러

구 분	외 화 획 득 실 적					대한지법인		취업인원
	이 익 금	대부이자	임 금	기 타	계	수 출	수 입	
	6,262	7,961	28,564	16,622	59,406	1,427,018	376,681	
경영성과(%)	1.8	2.4	8.7	5.1	17.8	431.1	113.8	1,620

註 : 1987년 12월 31일 현재

資料 : 韓國銀行,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製造業은 1987년 현재 이자배당수익이 전체投資액의 42%를 얻고, 기타수입(원부자재 또는 기계시설 등 자본재 판매수입이나 로열티수입은 51%이다. 製造業 投資收益率이 42%라면 상당히 經營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海外投資의 이익금, 送金額은 반드시 이익이나 이자送金額은 반드시 이익이나 이자送金額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現地法人의 對韓輸出은 1,427백만달러로서 投資金額의 무려 431.1%에 이르고 있어 製造業 海外投資가 輸出확대 효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수입은 377백만달러에 113.8%밖에 되지 않는다.

投資利益金の 송금방법은 본사에서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결제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그외에 로열티송금 기타 임금송금등에도 많이 포함한다. 따라서, <表 5>에서 임금 또는 기타 수입의 어느 정도는 投資企業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 投資利益金은 投資당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년은 지나야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海外投資는 최근에 부쩍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表 5>의 投資利益率은 經營實績의 지표로 정하기에는 약간 부적당한 감이 있다.

위의 <表 5>에서 보면 海外投資 現地法人(전업종)을 통한 우리나라 輸出入規模는 總量

面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87년 輸出의 경우 總 93.9%가 무역업 現地法人을 통한 것으로 現地法人의 기능이 海外投資 초보단계인 본사의 海外營業窓口 역할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製造業의 海外生産比率은 88년의 1.54%로 일본의 4.8%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83년)과는 비교조차 안되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表6〉 現地法人(全業種)을 통한 輸出入 動向

單位：천달러, %

	84	85	86	87	무역업(구성비)	제조업(구성비)
대현지법인수출(A)	3,680	5,082	8,294	10,733	10,077(93.9)	538(5.0)
대현지법인수입	3,521	3,577	3,480	6,572	6,253(95.1)	93(1.4)
A/총수출	12.6	16.8	23.8	22.7	(21.3)	(1.1)

註：1987년 12월 31일 현재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表7〉 製造業 海外生産 比率

單位：%

한 국		일 본		미 국 (83)
87	88	87	88	
1.39	1.54	4.0	4.8	17.3

註：1987년 12월 31일 현재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製造業 海外投資 法人의 現地 고용 효과를 살펴 보면, 纖維,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의 고용인원이 製造業 전체의 58%인 20,945명이며, 본국 파견이 현저한 地域은 북마리아나 사이판으로 纖維衣類業 10개 現地法人의 800명이다. 전체 고용인원에 대한 본국파견 比率은 7.5%로서 일본의 1.47%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表8〉 派遣要員 賃金 現況 및 雇傭效率

單位：천달러, %

	농·임업	수 산 업	제 조 업	건 설 업	무 역 업	기 타
임금합계	1,008	8,020	5,187	3,629	145	648
인 원	119	1,037	1,620	1,425	1,301	624
년평균임금	8.47	7.73	3.20	2.54	11	1.03

註：1987년 12월 31일 현재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表9〉 製造業 現地法人 雇傭效果

본국파견 (A)	현지인고용	제조업의 총고용인원	전업종의 본국파견인원 (B)	A/B (%)
2,681	33,237	35,918	6,000	44.7

註：1987년 12월 31일 현재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統計年報, 1990.

3. 海外進出企業의 清算 現況

海外에 進出した 企業들의 清算現況은 〈表 11〉과 같다. 1990년도말 總投資件數는 1,243건인데 이중 清算件數는 288건으로 이는 總投資件數의 23%에 해당한다. 金額面에서는 總投資金額 12억 4,300만달러중 清算金額은 5억 8,500만달러로 總投資의 17.5%에 해당한다.

〈表10〉 業種別 清算 現況

單位：백만달러, %

구 분	광 업	임 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무역업	부동산	기타	합 계
총투자건수	21	11	48	500	61	36	450	17	99	1,243
총투자금액	447	78	88	1,061	52	7	410	38	155	3,335
건 수	4	3	35	41	29	14	132	3	27	288
금 액	367	25	8	112	26	2	25	1	16	585

註：1990. 12. 31 현재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 現況, 1991. 6. 30.

製造業部門에서는 우리 企業의 投資歷史가 20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投資額중 철수비율이 件數로는 41건에 8.2%이며 金額으로는 1억 1,200만달러로 10.6%이다. 따라서 89.4%는 현재까지 성업중에 있거나 최소한 유지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投資는 國內投資의 投資成功率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清算比率을 가지고 업종간의 投資成敗率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자원개발형태의 投資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일반사업과 같이 投資PROJECT를 연장 혹은 확장, 감소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단기의 자원개발목적이 달성되거나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대부분 철수하고 投資PROJECT는 清算한다. 이 때문에 清算比率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製造業 清算件數中에서 현재까지 清算이유가 밝혀진 11건을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아래 〈表 11〉과 같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방법은 清算企業중에서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철수한 사례는 취급하지 않고 주로 海外投資 실패에만 원인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海外投資 실패사유는 사전사업분석의 부실이 전체 11건중에서 8건이나 차지한다. 따라서 이 분석은 海外에 進出하고자 하는 잠재적 投資企業에게는 投資를 실행하기전 投資 타당성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表11〉 製造業 海外投資 撤收 事例

投資者	개 요	투 자 목 적	철수 또는 실패요인
(주)제일모직	1982년 양모가공, 合作投資(44%), 509천달러 호주투자	원재료 안정적 조달(양모가공수입)	수요전망차질(선진국소비저하로 가격폭락, 가공수입 불필요) 投資타당성에 대한 연구부족
(주)동원물산	82년, 토관제조, 合作投資(44%) 231천달러 말레이시아 投資	現地市場 개척(토광 제조하여 現地に 공급)	市場調査부실(소문에 의해 投資결정) 合作投資에 대한 인식부족(개인 회사와 같이 독선적 운영) 經營不實
정 일 환	78년 뽕납제조, 合作投資(50%) 100천달러 태국 投資	現地市場 개척(뽕납 製造業)	사업의 영세성(자본금 2,000천 달러) 대표이사 사망하고, 사업 승계자는 잔류재산 없이 폐업
남미진흥(주)	84년 쇠고기 가공 98천불 아르헨티나 投資	원재료가공수입(쇠고기 가공하여 soup원료로 수입)	제도변경에 대한 대안 없음(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生産자동 중지)
현 대 중 전 기	82년 변전시설 보수, 210천불 나이제리아 投資	Plant輸出과 보완(변전 시설 輸出하고 보수 및 A/S담당)	사업타당성 조사 부실(投資하고 제조사에서 사업성없음을 발견) 合作投資자와의 불화(投資지연 기계부품만 버리고 철수)
삼원트레이닝	85년 후광물질기술 습득, 合作投資, 128천달러 서독 투자	기술습득(후광물질기술습득조건으로 合作投資)	목적달성 성공사례 서독現地 Partner에서 기술습득하고 철수
제철정비공업(주)	85년 철구조물 제조, 合作投資, 389천달러 캐나다 투자	現地市場공급(철구조물 제조 現地に 공급)	市場개척기능 부실(Partner에게만 전적으로 의존) Partner선정오류(合作회사 파산으로 자동폐 철수)

서 울 엔 지 니 어 링	88년 베어링 제조 500 천불 미국投資	現地市場공급(베어링 제조)	사업타당성조사 미비(投資자금 조달계획없이 시작) 개인企業으로 맹목적投資 실행, 자동폐쇄
삼 익 가 구 (거성 : 인수 企業)	85년 가구제조, 合作 投資(45%), 462천불 말레이시아投資	가구제조 제3국 輸出	본사도산(삼익가구 본사가 도산하면서 現地 法人 자동 부실) 海外經營능력부족(인수企業 거성은 海外經營 능력은 없고 海外투자에 대한 관심부족 철수) 사업타당성조사 부실(현재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이나 기회를 놓침)
현 대 중 공 업 (현 대 電 子)	83년 반도체生産, 5, 000천불 미국投資	반도체 기술 개발본사 이전, 반도체제로 現地공급	사업타당성 조사부실(자본회계, 공장 capacity계획 실패 : 자본계획이 큰 반면 수요 는 적고 生産capa는 너무확장) 기술개발예측 실패(기술변화에 따른 기술개 발 뒤처짐) 經營기술 부족(現地고급 기술자 經營실패) 製造業폐쇄하고 기술개발만 이행
(주)삼 품	76년 모직신사복 제 조, 엘사바도르 投資	Quota제한으로 인한 우 회生産	정치적 위험예측 실패(내전 돌발로 자산포기 하고 야간도주)

4. 製造業과 他産業과의 比較

業種別 海外直接投資現況을 살펴보면 <表 12>와 같다.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業種別 분포를 1991. 6. 30일 現在 件數基準으로 보면 製造業이 전
체 投資件數 1,463件중 629件에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貿易業이 520件으
로 35.5%를 차지하고 있다. 建設業이 61件으로 4.2%, 수産業이 57件으로 3.9%, 기타가
122件으로 8.3%순이다. 그 외에, 운수업 39件, 鑛業 24件, 不動産 18件, 林業 11件으로 모
두 합쳐서 6.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海外投資를 PROJECT件數別로 보면 製造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貿易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외 다른 업종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미미하다. 製造業과 貿易業 그
리고 鑛業이 金額基準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海外投資를 실
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件數基準으로는 35.5%를 차지하고 있는 貿
易業의 경우 金額基準으로는 18.4%를 차지하고 있어 件數基準의 경우처럼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貿易業의 경우는 대부분이 市場指向形動機(60.4%)로 압도적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農水産, 林業 및 鑛業의 경우는 資源確保形動機(45.8%)가 높다. 또한 建設 및 其他 서어비스業의 경우는 貿易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市場指向形動機(60.7%)에 의해 海外投資를 하고 있다.

進出地域別로는 先進國으로 진출시 市場指向形動機(59.8%)와 技術習得形動機(12.7%)가 많은 반면, 開發途上國으로 진출시에는 市場指向形動機(44.5%)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生産效率指向形動機(17.6%), 資源確保形動機(16.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先進國의 國際企業에 의한 것과는 달리 輸出을 촉진하거나 보조하는데 더 큰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業種別로 볼 때도 國內生産에 필요한 資源調達을 위한 目的이 대부분인 農水産, 林業 및 鑛業을 제외하고는 業種에 관계없이 輸出補助 및 促進을 위한 動機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企業들은 주로 生産性에 바탕을 둔 海外投資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表12〉 業種別 海外投資現況

單位：件, 천달러

		제조업	광업	임업	수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부동산	기타	총계
1968-82	件數	42	9	10	38	48	19	247	12	12	458
	金額	42,875	103,007	47,055	10,680	40,722	2,994	46,501	21,725	22,849	338,408
1983	件數	14	1	2	6	9	4	22	-	2	60
	金額	26,479	48,550	18,206	150	2,641	804	13,248	-	3,085	113,163
1984	件數	10	1	-	-	7	2	17	-	9	46
	金額	13,428	22,185	6,419	73	3,172	△84	8,260	-	3,521	56,974
1985	件數	11	2	-	2	2	1	17	1	4	40
	金額	20,105	70,835	3,211	2,089	2,898	58	12,138	2,785	3,703	117,822
1986	件數	20	-	-	3	1	1	18	2	5	50
	金額	70,104	73,678	469	3,831	1,910	74	14,343	2,897	4,693	171,999
1987	件數	32	3	-	4	4	3	36	1	8	91
	金額	157,746	202,153	247	2,329	2,758	1,010	20,273	800	9,919	397,235
1988	件數	64	2	1	4	8	5	66	3	12	165
	金額	74,500	64,965	450	13,618	5,165	496	40,545	7,473	5,707	212,919
1989	件數	136	1	-	9	3	7	78	-	20	254
	金額	223,091	76,403	16,350	39,349	12,914	2,034	59,966	-	62,389	492,496
1990	件數	212	6	1	17	8	9	81	1	33	368
	金額	545,099	152,019	10,350	23,853	6,130	1,635	220,662	3,960	56,036	1,019,744
1991.6 30. (누계)	件數	629	24	11	57	61	39	520	18	122	1,463
	金額	1,289,793	470,263	76,882	97,284	52,805	10,168	509,851	42,701	209,112	2,758,859

註：總投資基準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1991. 6. 30 累計는 韓國銀行, 海外投資法人現況)

〈表13〉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直接投資動機(全業種)

單位：%

投資動機	內 容	業 種 別				地 域 別		全 體
		製造業	貿易業	農水産業및鑛業	建設서비스	先進國	開發途上國	
市場指向的	○投資地域의 既存市場 確報 ○새로운 販賣市場 開拓	35.3	60.4	29.2	60.7	59.8	44.5	51.3
生産效率指向的	○貿易規制를 가하는 第3國에 迂廻輸出 目的 ○受容國의 韓國商品에 대한 輸入規制回避 ○現地の 낮은 生産費이용	33.7	13.0	16.7	12.2	9.8	17.6	19.4
資源確報的	○國內生産에 필요한 原資材 調達	13.3	13.0	45.8	-	11.7	16.7	14.4
技術・機械販賣的	○母企業이 開發한 機械, 技術販賣 ○時代에 뒤진 母企業의 機械設備 販賣	13.3	4.7	8.4	4.9	5.9	10.3	8.1
先進技術習得的	○投資地域의 先進技術 및 經營能力 習得	4.4	7.1	-	12.2	12.7	1.0	6.8

資料：大韓・서울 商工會議所, “國內企業의 海外直接投資實態分析 및 隘路點 調査”, 1987. 6., p. 11.

第 4 章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展望

지금까지 第2章에서는 企業의 多國籍化 過程에 대한 代表的 理論들에 대하여 概觀하였고 第3章에서는 韓國의 製造企業들의 多國籍化 動機, 過程 및 現況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韓國의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pattern은 일반적 理論 pattern들과 비교하면 유사한 점과 아주 상위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本節에서는 韓國 製造企業의 國際企業化하는 過程에서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몇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앞날의 진로를 展望해 보기로 한다.

第 1 節 多國籍化의 問題點

1. 主體側面

海外直接投資는 言語, 宗教, 風俗 및 慣習 등이 기본적으로 다른 社會에서 事業活動일 뿐만 아니라, 貿易을 통한 단순한 財貨의 移轉이 아닌 經營資源 全體의 移轉이며 文化와 文化의 접촉을 가져온다. 따라서 經營資源의 蓄積이 충분하게 되어있지 않은 우리 業體가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해 나가는 데에는 國內에서의 事業轉換이나 貿易 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 形態의 어려움과 부담이 수반된다.

아울러 投資 主體의인 側面의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뚜렷한 獨占的 優位の 不在이다.

둘째, 企業外部的 動機에 의한 投資가 주류이다.

셋째, 現地事業能力이 不足하다.

넷째, 海外投資情報가 不足하다.²⁹⁾

다섯째, 資金이 不足하다.

29) 海外直接投資要因중 情報蒐集力の 優位要因은 16위로 나타났다. (第4章 第2節 參照)

(1) 뚜렷한 獨占的 優位の 不在

海外直接投資를 하는 企業은 現地企業들과의 競爭에서 살아남아 現地事業에 成功하기 위해서는 現地事業이 所有하고 있지 못하거나 接近할 없는 企業特有的 獨占的 優位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독점적 우위는 하루아침에 所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친 研究・開發活動(R & D)을 통해서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韓國 企業들은 政府 支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R & D 活動을 等한시 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研究開發 投資가 높은 危險性和 不確實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基礎技術이 취약하고 資金能力이 부족한 韓國 企業들은 技術을 自力으로 研究・開發하기 보다는 外國技術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技術의 獨自性 내지는 固有性이 부족하여 海外進出에 制約이 되고 있다. 특히 韓國 企業들은 商標나 經營能力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세에 있으며, 그 동안 韓國 企業들이 優位要素로 가지고 있던 生産技術도 國際적으로 標準化 되고 있어서 製品의 差別化가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製品도 주로 價格競爭에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아 外國企業이나 受容國 企業들이 쉽게 市場參與를 할 수 있게 되어 長期的으로 現地事業이 어려워지고 있다.

(2) 企業外部的 動機에 의한 投資가 主流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에 있어서 自發的인 海外市場의 지배를 目的으로 하는 內部的 動機 보다는 기존의 輸出市場 保護 및 輸入規制回避, 現地の 낮은 生産費 利用 등 外部的 動機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존에 輸出을 행하던 企業들이 輸出増大의 장애요인인 關稅賦課, 쿼터 등 輸入制限과 높은 輸送費 등 各種 貿易障壁을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第3國 市場에 進出하는 形態의 海外投資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확실한 獨占的 優위가 없는 海外直接投資는 海外投資에 다른 높은 리스크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收益性의 악화 내지는 실패할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現地事業能力의 不足

그 동안 韓國 企業들의 海外進出은 長期的인 經營計劃下에서 海外直接投資가 수행된 것이 아니고 短期的인 利益追求나 企業擴張의 수단으로 종종 投資가 이루어 왔다. 특히 本社와의 均衡을 잃은 現地事業推進, 現地法人의 狀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施設投資,

現地法人의 非合理的 生産運營, 短期的 利益追求에 따른 現地人과의 불화 등이 投資事業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海外投資 清算事由중에서 現地法人經營不實이 全事業에 걸쳐 가장 큰 比重(42%)을 차지하고 있다.³⁰⁾

(4) 海外投資情報の 不足

企業이 海外直接投資時에 現地の 政治・經濟的 事情, 社會的 制度 그리고 文化的 環境 등 投資事業과 直接的・間接적으로 연관된 諸般投資環境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事業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韓國 企業들은 海外現地の 情報를 수집하는데 많은 費用과 時間이 드는 關係로 이러한 分析過程의 重要性에 대해 보편적으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投資를 게을리하고 있다.

(5) 資金의 不足

韓國 産業에서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하는 企業들은 대부분이 中小企業이다.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資金保有能力이나 資金調達能力面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며, 海外直接投資 業體들도 投資財源의 자체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전체 海外直接投資들에 대한 조사에서 現地에서의 資金調達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大韓商工會議所가 全産業에 걸쳐 海外直接投資를 실시하고 있는 125個 企業들을 對象으로 198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現地에서 資金調達が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問題點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問題點은 投資對象地域에이 先進國인 경우 30.9%의 企業, 開途國인 경우 47.9%의 企業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開途國으로서는 投資시 어려움의 정도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를 통해서 볼 때, 韓國 業體들의 海外直接投資가 대부분 中小企業에 의해 開途國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海外直接投資에 필요한 資金의 自體調達이나 現地에서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 池龍熙,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投資實態 및 支援方案”, 經商論叢, 第11輯(서강대학교, 1986. 3).

2. 管理側面

韓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上에 있어서 投資 管理的인 側面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外換管理의 일환으로서의 海外投資管理

둘째, 體系的인 海外投資管理體系의 미비

세째, 投資地域의 一部偏重

(1) 外換管理의 일환으로서의 海外投資管理

현재 海外投資를 管理하는 機關은 韓國銀行으로 그 管理根據는 外國換管理法 및 同規定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韓國銀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海外投資의 審査·承認·事後管理 등 일련의 管理過程은 주로 外貨의 유출입을 基準으로 하였기 때문에 海外投資政策이나 關聯制度가 海外投資에 대해 消極的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企業의 海外投資와 國民經濟 전체를 연결하는 노력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海外投資管理는 外換管理法의 일환으로서 國際收支防禦를 주된 目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海外投資를 적극장려하기 보다는 規制하는 입장을 취하였었다. 그리고 海外投資事業의 審査 및 事後管理에 있어서도 投資事業의 전반적인 國民經濟的 效果(誘發輸出入效果), 國內產業에 미치는 效果 및 經濟發展에 미치는 效果가 아닌 주로 숫자상의 外貨의 流出入을 基準으로 하고 있어 海外投資에 대한 國民經濟的 側面에서의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國際收支의 黑字 및 北方外交를 통한 通商 및 北方外交를 통한 通商 및 外交上の 협력증진으로 韓國 政府는 海外投資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體系的인 海外直接投資 管理體制의 微微

현재 海外投資管理 當國인 企業들과 마찬가지로 海外投資情報과 海外事業에 관한 專門家가 크게 부족하여 體系的인 海外投資管理體制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海外投資管理當國은 韓國銀行은 현재 自體的인 情報蒐集能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投資審査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他部處나 關聯機關의 협조가 있기는 하나 企業側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또한 妥當性 分析專門家の 부족으로 주로 投資者의 投資要件 충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海外投資의 事後管理에 있어서도 現地法人들이 제출하는 財務諸表 등 주로 숫자상의 經營實績의 정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現地法人들의 성공 및 실패와 事業不振 등에 관한 體系的이고도 심층적인 要因分析 및 綜合的인 海外投資의 國民經濟的 效果分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投資地域의 一部偏重

韓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地域的으로 편중되어 있는 問題點이 있다. 89년말 현재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現況은 總 1164件중 中南美 地域에 404件, 東南亞 地域에 395件으로 전체 投資件數중 6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投資地域의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對象地域의 投資環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纖維業體의 경우 先進國의 輸入規制回避와 生産코스트 節減 등을 통한 價格競爭力 제고에 目標를 두고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要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特定國 또는 特定地域으로 投資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中·南美 地域은 美國의 C.B.I.政策 수혜地域으로 美國의 쿼터規制를 회피할 수 있거나 規制를 받더라도 일부품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勞動力이 풍부하여 人件費가 저렴하고 美國으로 輸出時 輸送期日이 짧아 납기가 특히 중요시 되는 纖維産業에 유리하다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投資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최근 投資가 확대되고 있는 東·西南亞細亞는 낮은 人件費 및 現地國의 投資優待政策 등에서 유리하며, 北마리아나共和國은 美國의 자치령으로 쿼터規制는 물론 關稅도 없어 價格競爭力을 크게 높일 수 있는 利點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投資地域의 편중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야기시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問題點은 美國으로의 迂廻輸出을 目的으로 投資된 地域에 대한 美國의 輸入規制 움직임이다. 美國은 非쿼터地域이었던 방글라데시에 外國인 投資가 집중되고 對美輸出이 급증하자 輸入規制를 실시한 전례가 있으며, C.B.I. 地域의 일부국가와 北마리아나共和國에 대해 이러한 조치의 실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投資地域이 편중됨으로써 나타나는 또 하나의 問題는 現地에서 나타나는 國內業體間의 過當競爭이다. 특히 現地에서 인력확보를 위한 過當競爭은 이미 問題가 되고 있는 것으로, 現地の 기능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進出한 企業이 기능훈련을 시켜놓은 經驗이 있는 從業員을 파격적인 條件으로 스카웃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西유럽・中東・아프리카・中南美・大洋洲 등을 對象으로 한 投資地域의 多變化가 요구되었다.

3. 現地經營側面

(1) 經營上の 問題點

韓國 企業이 海外에 進出했을 때 經營上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現地企業의 經營活動上 발생하는 問題點들은 進出地域別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14〉에서 보듯이, 中南美 現地企業은 言語 또는 慣習上の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現地經營上の 큰 問題點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東南아시아의 경우에는 現地 租稅負擔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進出企業은 原資材 輸入時 負擔하는 輸入關稅를 환급받는데 소요되는 시일이 장기화되거나 빈번히 지연됨에 따라 겪게 되는 財政上の 불이익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성적인 外換不足現狀을 보이고 있는 國家에 소재한 現地企業들은 原資材 購買 또는 配當 送金에 필요한 外換確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現地에서 輸出대전을 회수하거나 國內에서 원・부자재 판매대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관련 信用狀(L/C)에 대한

〈表14〉 現地經營上の 問題點

單位：件

	중 남 미	동 남 아	북마리아나	계(구성비, %)
현지정세의 불안	3	2	-	5(5.6)
물 가	4	-	-	4(4.4)
외환확보의 어려움	7	5	-	12(13.3)
노동사정의 악화	4	-	6	10(11.1)
행정절차의 낙후	7	6	1	14(15.6)
조세 부담	3	6	-	9(10.0)
현지 자금조달의 곤란	4	2	2	8(8.9)
기간산업의 미비	2	1	1	4(4.4)
상관습상의 차이	4	1	-	5(5.6)
언어・의사소통 장애	11	3	-	13(15.6)
환 율	1	-	-	1(1.1)
기 타	3	1	-	4(4.4)

資料：輸出入銀行, 1989.

추심전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점이 資金循環上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외의 問題點으로는 開途國 특유의 속성인 行政節次의 번잡성, 形式主義(red tape)의 만연 등 行政上의 非能率을 들고 있다.

한편 北마리아나의 경우 대부분의 業體가 現地雇傭人力 確保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입지조건에 따라서는 電氣, 用水 등의 供給이 원활치 못한 점이 일부 業體의 生産過程上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現地 外國人 投資制度上의 問題點

投資對象國家의 投資環境에 따라 각 國家는 外國인 投資政策을 달리하고 있는데, 現地 纖維業體들의 經營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現地制度의 주요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리한 점으로는 ① 現地人 雇傭義務 ② 外換送金의 制限 ③ 出資比率의 制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유리한 점으로는 ① 自由貿易地帶의 運用 ② 法人稅, 營業稅 등의 租稅減免 ③ 設備 및 原·部資材 輸入關稅의 免除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15〉 現地政策上の 不利한 點 및 有利한 點

單位：件

		중 남 미	동 남 아	북마리아나	계(구성비, %)
불 리 한 점	출자비율에 제한	-	3	1	4(10.5)
	현지인 고용의무	5	3	4	12(31.6)
	현지국산화율 강제	-	1	3	4(10.5)
	외환송금의 제한	6	4	-	10(26.3)
	현지금융의 제한	4	3	1	8(21.1)
	가격통제의 실시	-	-	-	-
유 리 한 점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11	2	5	18(27.3)
	원자재 등 수입관세 면제	11	4	-	15(22.7)
	특별 용자의 수혜	1	1	-	2(3.0)
	동종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	-	-	-
	자유무역지에 운용	14	5	1	20(30.3)
	정부구매	-	-	-	-
	기간산업의 확충	1	-	-	1(1.5)
	인력공급	8	2	-	10(15.2)

資料：輸出立銀行, 1989.

第 2 節 多國籍化의 推進方向

1. 投資對象國別 戰略

海外投資는 投資動機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途國의 진출에 큰 차이가 있게 되고 이에 기인하여 投資形態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韓國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을 살펴봄에 있어 先進國과 開途國의 投資戰略을 구분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對先進國 海外直接投資 戰略

海外投資企業은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獨占的 優位要素를 所有하고 있어야만 外國에서의 企業活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 製造企業의 對先進國 直接投資의 경우 뚜렷한 獨占的 優位要素는 발견되지 않으며 그 動機에 있어서도 공격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인 投資性格을 띠고 있다. 즉 輸出이 企業活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企業이 關稅 및 쿼터規制 등 輸入障壁 때문에 先進國 輸出比重이 봉쇄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輸出市場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海外直接投資를 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 先進國에 대한 海外投資가 企業國際化의 長期經營戰略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海外生産을 통한 적극적인 企業利益 追求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先進國의 競爭企業에 대항할 수 있는 韓國 企業의 독자적 優位要素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企業의 자체 技術開發, 輸入技術의 소화개량 등을 통한 技術的 優位를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韓國的 經營特性 등을 최대한 발휘하여 海外現地 企業經營에 있어서 독점적 優位要素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對先進國 海外直接投資는 국가간 比較優位構造가 급격히 개편되는 과정에서 企業이 그 變化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에서 새로이 比較優位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產業의 尖端技術, 노우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對先進國 技術開發投資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對開途國 海外直接投資 戰略

우리나라는 國內 人件費의 상승, 後發開途國의 추격, 新興工業國과의 치열한 競爭 등으

로 勞動集約的 産業 혹은 技術이 표준화된 産業에서는 점차 比較優位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經濟發展過程에서 韓國 企業들은 이러한 産業分野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축적해온 企業特有의 優位要素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後發開途國에 投資를 할 경우 先進國의 多國籍企業에 비해 競爭的 優位要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韓國 企業이 開途國에 海外直接投資를 할 경우 先進國의 多國籍 企業이 거대한 資本을 배경으로 高度技術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中位水準의 技術을 바탕으로 하는 中小企業形 投資가 相對적으로 比較優位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는 中小企業 關聯業種으로서 比較優位를 점차 상실해 가는 技術이나 과잉유희설비 등을 韓國 보다 낮은 經濟發展段階에 있는 開途國 등으로 移轉, 再活用할 수 있어 유희자원의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 育成이란 側面에서도 中小企業의 海外進出은 金融 및 稅制惠澤 등 외생적인 인센티브 보다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자체성장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中小企業의 독자적인 활로를 찾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 投資企業은 勞動集約的인 中間水準의 生産技術을 海外投資를 통해 海外로 이전하고 그 여력을 製品의 고급화, 차별화 및 高附加價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比較優位 動態化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주로 開途國을 對象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資源開發投資는 다른 形態의 海外投資와는 달리 거대자본의 소요, 投資의 開發推進上的 높은 危險 때문에 資本調達能力이 있는 企業이 콘소시엄 및 合作投資의 形態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는 資金負擔輕減 및 開發리스크를 分散할 수 있는 利點이 있으며, 특히 合作投資의 경우는 開途國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 現地化政策인 페이드·아웃政策(fade out policy)에 대응하는 方案이 된다. 나아가 資源保有國의 經濟發展過程에 부응하여 所有權 혹은 經濟資源을 분할하여 投資하는 이른바 「新形態의 投資方式」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주식출자를 앗고 資金, 設備, 技術, 勞務 등을 提供하여 그 대가로 生産物을 분배받는 生産分配方式과 장기에 걸쳐 대량의 구매를 보증받는 長期購買契約 등이 이용될 수 있다.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 企業이 開途國에 進出하는데 있어서는, ①市場規模의 협소로 인한 現地企業과의 過當競爭, ②熟練勞動者의 不足에 따른 生産의 非效率,

③政治的 危險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³¹⁾

市場規模의 협소에 대한 長期對策으로는 첫째, 주변 市場의 開拓, 둘째, 迂廻輸出 戰陣 基地 構築, 셋째, 高稼得率 製品 爲主의 生産, 네째, 輸入代替産業에의 投資 등이 있을 수 있다.

勞働의 질에 대한 對策으로는 첫째, 現地實情에 맞는 勞務管理, 둘째, 技術人力의 양성, 셋째, 品質管理 및 分任活動의 전개, 그리고 政治的 危險에 대한 長期 對策으로는 첫째, 現地政府·住民과의 우호적인 關係維持, 둘째, 現地國 企業과의 合作投資, 셋째, 投資保障協定의 체결확대, 넷째, 特許시혜 만기에 대비 주변국으로의 공장 이전 대비 등을 마련해야 하겠다.

〈表16〉 對開途國 海外投資의 危險과 對策

위험 유형	장기 대책
시장규모의 협소 (small market size)	○ 주변시장 개척 ○ 우회수출 전진기지 구축 ○ 고가득율제품 위주의 생산 ○ 수입대체산업에의 투자
노동의 질 (quality of labor)	○ 현지실정에 맞는 노무관리 ○ 기술인력의 양성 ○ 품질관리 및 분임활동의 전개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 현지정부·주민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 ○ 현지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 투자보장협정의 체결확대 ○ 특許시혜 만기에 대비 주변국으로의 공장이전

資料 : 윤만호·김영호, “海外投資促進을 위한 金融의 役割”, 調查月報, 韓國産業銀行, 1987. 11, p. 14.

31) 趙東成, “海外投資企業의 危險管理方案”, 海外投資情報, 第13號, 1988. 9, pp. 3-5.

2. 支援制度의 強化

현재 政府는 海外直接投資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韓國輸出入銀行으로 하여금 海外投資 金融 및 海外投資保險制度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外國納付稅額에 대한 稅額控除, 海外資源開發事業投資의 경우 配當所得免除 등 各種 支援制度를 마련하고 있다.³²⁾ 또한 이와 같은 支援制度는 계속적으로 보완·확대되어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여지는 많으므로 계속적인 보완 및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 金融, (나) 保險, (다) 租稅 側面에서 그 支援制度의 改善方向을 研究해 보고자 한다.

(가) 金融支援制度의 改善方向³³⁾

金融支援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향후 급증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海外投資 投資資源의 확대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法定資本金早期納入, 國民投資基金에 대신할 수 있는 財政投融資金 支援의 확대, 자체 海外資金調達許容등 을 통하여 장기 안정적 資金調達方案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投資事業의 效率적인 推進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長·短期運營資金의 支援 등을 통한 資金用途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셋째, 貸出利率의 탄력적인 運營과 融資比率의 상향조정 등 金融條件의 전반적인 改善과 함께 현재 中小企業의 海外投資에 대한 우대조치를 지속·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改善方案 이외에도 經濟協力基金을 活用, 開發途上國에 대한 開發事業參與 등의 海外投資에 대해서는 유리한 條件의 支援를 制度化하는 方案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2)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支援制度, 1981. 2, pp. 1-45.

33) 金時慶, 國際企業經營論, 1991, pp. 414-416.

(나) 保險支援制度의 改善方案

保險支援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國內母企業의 現地法人에 대한 保證義務와 現地企業의 長期借入도 付保對象으로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主擔保對象인 수용·전쟁·송금위험 등의 傳統的 비상위험은 점차 發生可能性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擔保危險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 危險擔保制度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保險料率의 引下와 割引料率 適用範圍의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넷째, 國別危險集中度가 높고 보험사고 발생이 집중화되는 海外投資保險의 性格上 再保險制度의 도입이 요구된다.

다섯째, 中小企業海外投資에 대한 支援 필요성을 감안, 付保節次의 간소화, 保險料率 差等適用, 保險料率 分割納付制度 실시, 保險金 支給 猶豫期間 단축, 補償限度의 확대 등 中小企業 優待措置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租稅支援制度의 改善方案

租稅支援制度의 改善方案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間接外國稅額控除制度를 채택하여서 現地法人形態의 進出이 海外子會社 形態에 비하여 과중한 課稅負擔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둘째, 外國納付稅額이 控除限度를 초과할 경우 同超過額에 대하여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先進國들에게 채택되는 租稅延期制度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租稅延期(tax deferral)制度란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海外所得이 실제로 居住地域으로 送金될 때까지 居住支局에서 課稅를 연기해 주는 制度로 國家間에 稅率·延期期間·利子率·인플레이션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인플레이션과 利子率이 높은 시기에는 同制度가 실질세금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어 海外投資를 촉진하게 된다.

넷째, 海外投資損失準備金 積立 및 換入期間이 현재 準備金積立後 海外投資에 따르는 損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準備金을 積立 2년후부터 4년간 均等換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投資後 事業開始에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製造業 등에 대해서는 積立 및 換入期間이 요청된다.

다섯째, 未修交國과의 二重課稅防止協定締結을 더욱 확대하여 國內企業의 海外投資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3. 投資企業側面의 改善方向

(1) 國際競爭力의 確保³⁴⁾

우리 經濟는 低油價·低金利·低원貨 價値라는 소위 '3低 현상'에 힘입어 지난 1986-1988년 期間중 연평균 실질 經濟成長率이 12%를 넘었으며, 經常收支 黑字는 100억 달러대를 기록했고 物價上昇率 역시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國內의 經營環境의 變化로 經濟成長率, 國際收支 黑字가 1986-1988년의 기록에 비해 반감했으며 物價上昇率은 배증했다. 이러한 수치들은 우리 經濟의 國際競爭力 低下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 나라의 國際競爭力은 經濟的 側面에서만 보자면 比較優位에 따른 國際競爭力과 競爭優位에 따른 國際競爭力으로 구분할 수 있다. 比較優位에 따른 國際競爭力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賃金水準이 相對的으로 낮다든지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低平價되어 있어서 그 나라에서 生産된 商品과 서비스의 價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든지 하는데서 오는 國際競爭力이다. 따라서 比較優位에 따른 國際競爭力은 그 나라에서 經營活動을 하고 있는 企業이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國際競爭力이다. 이에 비해서 競爭優位에 따른 國際競爭力은 한 나라에서 經營活動을 수행하는 모든 企業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經營者가 經營資源을 투입하여 의식적으로 개발해 내야 하는 國際競爭力이다.

1960년대초부터 政府의 輸出主導 經濟開發政策을 배경으로 성장한 우리 企業의 國際競爭力의 원천은 우리 經濟가 國際市場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較優位였다. 國際市場은 製品의 價格과 特性을 基準으로 低價市場·中低價市場·中高價市場 그리고 高價市場으로 구

34) 李章鎬,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海外投資戰略", 서강 Harvard Business, 1990. 9-10, pp. 59-69.

분할 수 있다. 低價市場은 品質을 포함하여 製品의 特性이 經濟企業의 그것에 비해 떨어지며 따라서 經濟企業의 製品에 비해 저렴한 價格으로 製品이 팔리는 市場이다. 中低價市場은 製品의 特性이 競爭企業의 그것 보다 높은 편이지만 價格은 相對적으로 낮은 製品이 팔리는 市場이다. 中高價市場은 競爭企業의 製品 보다 높은 특성을 가진 製品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市場이다. 高價市場은 최고의 특성을 가진 製品이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는 市場이다. 우리 企業은 지금까지 低價市場에서 우리나라의 比較優位를 이용해서 國際市場에 지분을 늘려갈 수 있었다. 우리 企業들이 低價市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比較優位 때문이었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누려온 比較優位는 대략 낮은 賃金, 낮은 원貨價值, 잘 조직된 輸出支援制度라는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國內外 經營環境의 變化는 우리 企業들에게 比較優位를 찾아 海外로 進出하든가 또는 단순한 比較優位에 요즘에는 低價市場에서의 競爭으로부터 탈피하여 한 단계 높은 市場으로 進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國內外 經營環境의 變化로 우리 企業이 더 이상 比較優位를 이용한 低價市場 擴大戰略을 계속할 수 없다면 우리 企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보아 세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企業이 그 동안 지켜온 전통적인 低價市場을 방어하기 위하여 比較優位를 찾아 海外로 나가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지난 2-3년간의 國際收支 黑字에 힘입어 많은 企業들이 사용했고 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方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라져 가는 比較優位를 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새로운 競爭優位를 개발하는 方法이다. 이것은 傳統的인 低價市場으로부터 中低價市場 내지는 中高價市場, 그리고 高價市場으로의 進出을 겨냥하는 戰略이다.

마지막 선택은 사라져 가는 國內의 比較優位를 回生시키는 方法이다. 앞의 두 方法은 전향적인 선택이나 이 方法은 國民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다. 賃金水準을 동결하고 원貨平價切下를 단행하며 輸出金融을 확대함으로써 과거의 比較優位를 되찾는 선택이다. 그러나 이것은 21세기에 先進國 進入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比較優位로 先進國에 進入한 국가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가) 比較優位の 確保

海外投資를 통하여 比較優位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企業은 低價市場에서의 國際競爭力을

회복할 수 있다. 比較優位란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後發開途國의 추격에 의하여 우리 商品이 國際競爭力을 잃고 있다면 勞務費·材料費·에너지 費用·工場敷地 確保費用 등이 저렴하고 통화가 低平價되어 있는 後發開途國으로 生産基地를 移轉하는 선택이다. 이는 신발·纖維·電子産業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企業들이 최근 수년간 선택한 戰略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情報化社會의 출현으로 國際競爭力 提高에 중요한 比較優位の 성격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人件費·原料費·에너지 費用과 같은 단순한 比較優位가 國際競争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技術과 情報處理 能力의 발달로 世界需要를 리드하는 研究開發 活動과 같은 보다 복잡한 比較優位の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한 일본의 企業들이 에너지 절약적인 製品의 世界市場 供給을 통하여 성공하는 것과 같이 一國의 比較優位가 오히려 企業家の 혁신노력을 자극하여 國際競爭力 提高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다. 比較優位 확보를 위한 海外投資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現地 産業의 競争狀況과 現地 需要의 특성이 그 나라에 위치한 企業으로 하여금 世界需要의 혁신을 수행하도록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技術開發³⁵⁾

海外直接投資를 위한 競争優位の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技術과 經營能力 등 企業 특유의 탁월한 知的 資産이다. 이러한 知的 資産을 보유하고 있는 企業은 生産技術 또는 마케팅 技術의 차이에 따라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차별화된 製品을 生産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知的 資産은 그 특성상 이유를 보유하고 있는 企業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 드는 限界費用이 적는데 반하여 이를 갖지 못한 企業이 이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면 많은 費用이 소요되기 때문에 탁월한 知的 資産을 보유한 企業은 海外直接投資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하겠다.

韓國 企業이 競争優位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技術開發에 주력해야 하나 아직도 技術開發投資는 미흡한 실정이다. 製造業에 종사하는 企業體의 研究開發費는 1987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9.2%가 증가한 1조 1,147억원이었다. 賣出額 對比 研究開發의 比率

35) 池龍熙, “韓國企業의 國際化 戰略”, 서강 Harvard Business, 1990. 1-2., pp. 35-36.

은 1986년 보다 0.2% 포인트가 높아져 1.83%에 달했다. 그러나 이 比率이 일본과 서독의 경우는 3%, 미국의 경우는 3.8%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技術開發 投資는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先進國의 경우 특히 研究開發費는 매우 높다. 美國의 경우 1985년도 이 比率은 화학 및 의약품공업은 8.4%, 전자기기 공업은 9.6%, 항공기·미사일 공업의 경우 17.5%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1987년도 이 比率이 의약품 공업의 경우 6.96%, 통신·전자·전기계측기 공업의 경우 5.78%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에서 韓國 企業들이 技術集約 産業에 성공적으로 進出하고 지속적으로 競爭優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研究開發 投資를 대폭 증대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韓國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는 12.5명으로 美國이나 일본의 30여명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전체 規模面에서도 美國의 17분의 1, 일본의 9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연간 1인당 研究開發費도 적어 美國의 4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研究開發 能力은 크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比較優位에 입각한 集中戰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 企業은 研究開發 能力이 미흡한데도 專門化의 정도가 낮아 研究開發 活動이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專門技術分野를 확보하지 못해 國際競爭力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技術개발 能力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技術導入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技術先進國들은 技術保護障壁을 높여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한 技術導入戰略도 마련해야 한다. 韓國 企業들은 전통적인 技術導入 方法인 라이선싱이나 合作投資 이외에도 연구소를 技術 先進國으로 진출시키거나 技術集約的인 外國企業의 매수, 모험자본 (venture capital)의 海外進出, 교포 과학자나 技術者의 유치, 外國 技術者나 研究機關에의 委託開發, 구체적인 研究開發 課題의 해결을 겨냥한 目的指向的 海外研修 및 留學 등 海外에 進出하여 技術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方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韓國 企業들은 技術의 자체개발과 技術導入 이외에도 다른 企業들과의 技術交流와 협력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技術의 變化速度가 빨라지고 있으며 製品壽命週期도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며 尖端技術 産業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따라 危險負擔은 크게 증대될 것이지만 신속한 技術革新이 企業의 競爭優位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技術革新에 따르는 危險負擔을 줄이고 技術革新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國內의 다른 企業들과는 물론이고 外國企業들과의 技術情報 交換·共同研究·相互 라이선싱 등 다양한 技術交流와 協力方案도 모색해야 한다. 메커

트로닉스(mechatronics) 技術 등 技術의 복합화 현상도 뚜렷하므로 技術交流와 協力은 同業種間에는 물론 異業種間에도 활성화될 것이 요망된다. 이와 더불어 企業은 大學 및 政府出演 研究所와의 협동연구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다) 地理的 視野 擴大

지금까지 우리의 무역이 政治的 이유로 인해서 동서무역에 국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海外投資 역시 地理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生産費 節減과 貿易規制 回避를 위한 迂廻輸出을 하는 企業은 東南亞과 카리브만 國家들로 進出했으며 貿易障壁을 뛰어넘으려는 企業들은 北美로 進出했다. 최근에는 1992년의 EC 統合에 대비하여 서구로 진출하는 企業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재의 世界에서 우리 企業은 地理的 視野를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 동구권은 저임의 技術者가 풍부한 나라이며 비록 지금은 개혁의 혼돈 속에 잠겨 있으나 유럽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의 선벨트(sun-belt)라고 할 수 있는 南部유럽의 여러 나라들 보다 유럽내의 성가가 높다. 서독은 지금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에 資金과 技術을 투입하여 아시아의 新興工業國(NICs)을 제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본까지도 제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東아시아가 일본의 무대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구는 서독의 무대가 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동구에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非西歐 國家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美國의 제네랄 일렉트릭사는 헝가리의 백열전구제조회사인 텅스램(Tungsram)社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달러를 投資하고 있다. 헝가리 技術者가 받는 임금이 네덜란드나 서독 技術者가 받는 임금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企業 역시 동구의 양질의 技術과 저임을 이용하여 통합된 EC에 製品을 공급하지 않고는 유럽에서의 競爭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 合併과 引受(M&A) 利用

지금과 같이 國內外經營環境이 급변할 때에는 공장시설을 통한 海外投資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 市場과 技術이 1-2년 이내에 큰 變化를 보이는 시점에서 공장건설에 몇년을 소비한다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M & A는 신속한 進出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技術의 입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M & A를 통한 進出에는 여

러 가지 不確實性이 따른다. 우선 M & A는 보통 10週内外에 買入 意思決定이 내려져야 하며 협상이 지연되면 실패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정교한 技術을 가진 공장의 수익展望을 10週内外의 짧은 期間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려면 고도로 훈련된 專門家가 필요하다. M & A에 성공하려면 M & A 專門會社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판단은 會社가 내려야 하므로 社內에 M & A 專門家を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몇몇 產業에 속하는 企業들은 적지 않은 數의 海外投資를 이미 단행했다. 그러나 그러한 海外投資는 쿼터 실시에 대응한다든지 덤핑規制에 대응한다든지 하는식으로 지구적 관점에서 통합·조종된 投資가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比較優位를 한 나라에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細部 經營活動別로 각기 다른 나라에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기는 지구적 차원에서 比較優位에 따라 細部 經營活動을 배치하고 이를 통합·조종하는 것이 國際競爭力 提高의 지름길이다.

本社の 經營者는 生産·마케팅·財務·研究開發面에서의 經營戰略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關係企業이 위치해 있는 特定國을 하나의 분리된 製品市場이나 資本 및 金融市場 또는 生産이나 研究開發의 기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地域的(더 나아가서는 世界的) 테두리의 일부로 파악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效率性を 提高시키기 위하여 본사와 각 關係企業들 또는 關係企業들 상호간의 經營戰略을 서로 정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生産 및 마케팅面에서 시스템 統合戰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經營者는 우선 自社の 製品들에 대한 市場이 世界 어느 곳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한 후 目標 市場國들을 선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製品의 製造費用, 保管·取扱·輸送을 위한 兵站費用(logistic cost), 各國의 輸入制限措置 및 諸般 企業環境 등을 綜合적으로 分析하고 비교하여 目標市場國들에 가장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生産基地로 선정하여 關係企業으로 하여금 특정 製品의 生産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母企業과 각 關係企業別로 製品 生産面에서 國際的 專門化와 規模의 經濟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사와 각 關係企業이 모든 製品系列을 生産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品質이나 原價面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製品을 生産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面에서도 시스템 전체의 效率性を 높이기 위해서 市場地域과 마케팅 活動을 상호 조정해야 한다. 이 밖에 財務와 研究開發 등의 側面에서도 統合을 추진할 수 있다.

韓國 企業들이 國際的인 시스템 統合戰略을 추진하려면 본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과감

히 탈피해야 한다.

(바) 國際經營人의 養成

韓國 企業들이 國際經營能力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際的인 안목을 갖고 企業 經營의 모든 側面에서 國際的 차원에서의 대안을 개발하고 최적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이른바 ‘國際經營人’을 서둘러 養成해야 한다.³⁶⁾

國際經營者 養成에 있어서 지적할 것은 現地 經營者를 育成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궁극적으로는 本社의 經營陣에까지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企業이 과거와는 달리 國內에서 만든 물건을 海外에 내다파는 단순한 國際經營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企業은 이제 經驗과 知識, 그리고 技術을 外國人 종업원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우리 기업내에서 제한되어 있다면 그들로부터 진정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國內環境과 상이한 現地에서의 事業活動에는 예상외의 어려움이 따르며, 이 경우 技術, 資本 등이 제한되어 있는 國內 企業으로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世界의 大企業과는 달리 個人의 能力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 처럼 國內企業에서는 海外事業의 성공여부가 파견요원의 자질과 행동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를 촉진하는 企業은 現地에서의 事業活動에 필요한 제도와 실행 등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을 쌓게 하여 정통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長期的이고도 體系的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³⁷⁾

이 밖에도 特定 國家나 地域의 사정에 정통한 이른바 ‘地域專門家’들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양성에는 長期間에 걸쳐 많은 投資와 훈련이 필수적이므로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요망된다.

(2) 海外合作投資의 擴大

海外直接投資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纖維業體는 대부분이 中小企業들이며, 海外

36) 池龍熙, 前掲書, p. 38.

37) 池載鉉,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活性化 方案”, 경기대 論文集, 1990. 7. p. 363.

直接投資形態는 지분의 100% 所有形態인 單獨投資가 주를 이루고 있다.

一般的으로 中小企業은 資金調達能力이나 情報蒐集能力 등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하며 나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能力面에서 大企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中小企業은 이러한 海外直接投資 能力에서의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方案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方案으로서는 大企業과의 合作投資, 中小企業간의 콘소시엄 형성,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 등이 고려될 수 있다.

海外合作投資란 一般的으로 2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特定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전개하는 共同事業體로서 國際經營에서는 국적을 달리하는 主體간의 협력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事業形態를 뜻한다. 海外合作投資를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長點은 다음과 같이 經濟的인 側面과 政治·社會的 側面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³⁸⁾

먼저 經濟的 長點은 ① 파트너들이 결합하여 輸入한 資源의 가치 보다 더 큰 가치의 회수를 실현할 수 있으며, ② 現地國의 民族主義的 반발을 유화시키면서 現地國에 進出할 수 있다. ③ 現地國이 제공하는 資金調達上的 편의, 借款에 대한 支給保證, 稅金減免, 利子, 元利金の 자유로운 상환 등의 유인을 이용하여 運營利益金뿐만 아니라 追加利益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現地合作 파트너를 통해 필요로 하는 原資材, 勞動力, 經營者, 마아케팅 能力을 장악하고 있는 유통기구, 원만한 對現地國 政府關係 등을 확보 또는 제공받을 수 있다. ⑤ 比較的 企業資源이 부족한 企業이 동일한 投資額을 가지고도 좀 더 많은 市場國에 進出하여 現地 마케팅, 現地 生産活動을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政治·社會的 長點으로는 ① 外國人 企業들에게 부과하는 現地國의 차별적 행동을 회피할 수 있다. ② 政治的 危險을 감소시키고 提高하는 手段을 제공받는다. ③ 現地 企業體를 인정받게 되므로 불매운동 등의 對象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現地 企業體로서 現地 政府關係, 社會的 이미지, 勞使關係, 從業員 사기, 大衆關係 등을 改善시킬 수 있다. ④ 合作投資 企業의 現地採用從業員의 사기는 完全所有 子會社 從業員의 사기 보다 높은 것이 一般的이다.

한편 海外合作投資는 이와 같은 長點이 있는 반면 파트너간 目標과 요구가 상이함으로써 나타나는 갈등, 이익배분에서 나타나는 問題, 그리고 單獨投資의 경우 독점할 수 있는 이익을 파트너와 나누어야 하는 이익축소 등의 短點이 제기되기도 한다.

38) 潘柄吉, “中小企業의 海外合作投資戰略”, 海外投資情報, 1987. 6., pp. 5-6.

海外合作投資가 갖는 長・短點의 兩面性에도 불구하고 現地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合作파트너를 선정할 경우 現地의 각종 情報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社會 및 商慣習의 습지가 용이하여 現地企業의 經營을 원활히 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危險管理方案의 모색³⁹⁾

모든 經營活動은 불투명한 장래로 인하여 불확실성에서 행해지므로 항상 危險을 수반한다. 특히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해 나가는 企業은 國內와는 상이한 環境속에서 事業活動을 전개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現地國의 政治的 危險, 經濟的 危險 그리고 社會的・文化的 危險이 발생할 可能性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항은 韓國 海外直接投資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 企業들은 危險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하며, 國際經營環境의 變化에 따른 對應方案을 수립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海外直接投資 企業이 고려하여야 할 危險管理 方案은 ①投資實行前의 方案, ②投資實行後의 方案, ③危險發生時의 方案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危險管理方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海外直接投資를 시행하기 이전, 즉 준비단계에서 취해야 할 危險管理 方案으로서 는 ①投資對象地域에 대한 철저한 環境分析, ②合作投資를 통한 危險의 분산 및 신중한 合作파트너의 선정, ③合作投資時 명확한 權利・義務 內容의 문서화, ④撤收戰略의 事前 樹立, ⑤投資保險의 이용, ⑥獨占技術 및 技術開發 등의 現地 노출방지 등이 있다.

둘째, 海外直接投資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危險管理方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方案으로서 는 ①중요한 環境變化에 대하여 계속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 投資戰略을 적절히 수행해 나간다. ②現地國 政府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投資企業의 이익추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現地國 政府의 목표에 부응하도록 事業을 전개해 나간다.

셋째, 海外直接投資 企業에 危險이 발생한 후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즉 效率的인 事後 對策으로서 ①協商能力의 배양 및 새로운 協商方法을 계속적으로 開發하여야 한다. ②清算實務 담당팀을 구성하고 效果的인 清算方法을 開發하여야 한다. ③本國 政府나 기타 관련 外國 企業들과 共助體制를 유지한다.

39) 趙東成, 前掲書, pp. 3-5.

이와 같은 危險管理 方案들은 韓國 纖維産業의 海外直接投資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海外直接投資에 임하는 우리 企業들은 충분한 戰略을 수립하여 現地事業 活動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언급된 危險管理方案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4. 製造業 海外直接投資 展望

(가) 年度別 海外投資 展望

先進國이나 都市國家型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年 海外投資許可가 國民總生産에 차지하는 比率은 대체로 0.2-0.8% 사이에서 높았다 낮았다 한다. 海外投資의 양이 결정되는 경제변수로는 國際收支 均衡問題와 수출규모의 확대 등이 아주 큰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경제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國內生産에 대한 일정한 양이 海外生産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國際間 교역에는 여러가지 불안전 요소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海外生産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정부의 海外投資 활성화조치에 편승해 과거보다는 海外投資 발전속도가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GNP對 總 海外投資許可 比率이 0.1%로 변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다. 80년 이전 13년간은 어느해도 0.1%이상을 초과한 연도는 없었다. 이것이 1981-1985년 사이에는 0.1%에서 0.2% 사이에 머물렀다. 또 1986-1989년 사이에는 0.4%까지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GNP對 海外投資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大型資源開發 PROJECT 하나가 성사되면 比率이 갑자기 높아지는 심한 굴곡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안정적 比率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1억달러 이상의 대형 PROJECT가 갑자기 生産된다 하더라도 전체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의 <表 17>은 製造業의 年度別 海外投資 展望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까지의 GNP는 매년 성장율이 0.6% 정도로 예측한 상태에서 계산한 것이다. 그리고 海外投資許可가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일본을 비롯한 先進國의 경우 海外投資 활성기에 있어서 0.2-0.8%에 달하므로 우리나라도 그 비중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는 GNP의 0.68%로 海外投資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 期間에 GNP對 投資殘額으로 보면 1.24-1.395정도가 되며, 製造業의 投資는 投資殘額중 50%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1993-1996년간 4년사이에는 GNP의 0.7%로 海外投資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20억- 23억달러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投資殘額基準으로는 1.65- 2.29%정도가 예측된다. 그리고 製造業의 海外投資도 全體 投資殘額중 製造業比率이 50%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1996년도에는 製造業投資殘額이 3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展望된다.

1997-2000년간 4년간 사이에는 GNP의 0.8%가 예측된다. 그리고 投資殘額比率도 2.63-3.50%가 예측된다. 製造業의 海外投資도 50%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製造業 投資殘額은 2000년도에는 75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表17〉 製造業 年度別 海外投資 展望

單位 : 백만불, %

연도	GNP	연총투자 허가전망	GNP : 총 허가비율	투자잔액	GNP : 투자 잔액비율	제 조 업 투자잔액	투자잔액 : 제조업비율	비 고
1980	60,455	23	0.03	142	0.23	33	23.2	
1981	66,828	108	0.16	174	0.26	37	21.3	
1982	71,338	122	0.17	290	0.41	43	14.8	
1983	79,524	83	0.10	393	0.49	69	17.6	
1984	86,951	70	0.08	445	0.51	83	18.6	
1985	89,702	220	0.25	476	0.53	103	21.6	
1986	102,794	359	0.35	633	0.62	172	27.1	
1987	128,919	356	0.28	966	0.75	331	34.3	
1988	172,784	479	0.28	1,119	0.65	405	36.2	
1989	211,198	927	0.44	1,444	0.68	628	43.5	
1990	237,984	1,600	0.67	2,335	0.98	1,173	50.2	
1991	254,642	1,732	0.68	3,157	1.24	1,578	50.0	전 망
1992	269,920	1,835	0.68	3,751	1.39	1,875	50.0	
1993	286,115	2,002	0.70	4,720	1.65	2,360	50.0	전 망
1996	340,765	2,385	0.70	7,803	2.29	3,901	50.0	
1997	361,210	2,889	0.80	9,499	2.63	4,749	50.0	전 망
2000	430,205	3,441	0.80	15,057	3.50	7,528	50.0	

註 : 1) 1991년-1992년의 GNP예측은 GNP성장율을 7%로 보고 계산한 것임.

1993-2000년의 GNP예측은 GNP성장율을 6%로 보고 계산한 것임.

자료 : 본인이 직접 계산한 자료임.

(나) 産業別 海外投資 展望

産業別 海外投資의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海外投資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금액상으로 몇개 대규모 Project에 의해 産業別 신장율이나 産業間 比率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시대마다 예상치 않았던 돌발적인 경제환경 변화에 海外投資를 통한 대처방법이 각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産業別 海外投資 예측은 갑자기 대형 Project 몇개만 성사되면 별의미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海外投資가 여러가지 면에서 정착된다고 가정하면 産業間的 어느정도 비슷한 흐름은 있을 것이라고 展望된다. 따라서 향후 産業間 海外投資에 대해 예측보다 정책적으로 産業間 균형된 投資를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전한 投資計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投資가 활성화되고 있었던 시기인 1986-1990년사이게 組立金屬部門에서 短期間에 너무 많은 부분이 海外生産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전자, 電氣業種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1차금속에서 이루어지는 海外投資 특히, 포항제철의 미국投資, 그리고 삼미의 캐나다投資는 金額基準으로 전체에서 이 품목의 비중을 가장 높게 끌어 올렸다.

製造業部門에 갑자기 많은 投資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國內 전자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가전3사가 1986년이후 앞을 다투어 海外生産基地를 확보하여 현지시장도 노리고 輸出市場도 잃지 않기 위해 해외로 새활로를 찾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버드대학의 닉코보코크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과점시장에서 Leader가 事業戰略을 변경하여 海外投資로 나서면 Follower들도 한꺼번에 事業戰略을 변경하여 Leader를 따른다는 것이다. 즉 이들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존 市場占有率을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期間에 海外投資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업계의 海外投資러시는 최근 몇년을 고비로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공해업종이 많이 있는 石油化學部門에 앞으로 海外投資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 일반기계나 정밀기계 또는 운송기계부분의 海外投資도 상당히 호전될 展望이다.

2000년대 海外投資를 産業別로 예측하면 飮,食料品은 전체의 5%인 376백만달러, 纖維, 衣服, 신발가죽, 機械裝備는 각각 전체의 10%인 752백만달러, 石油化學은 전체의 20%인 1,505백만달러, 組立金屬은 전체의 15%인 1,129백만달러, 그리고 非金屬鑛物 및 1차금속

은 각각 전체의 7.5%인 564백만달러, 목재가구, 종이인쇄는 전체의 각각 2.5%인 188백만달러로 예측된다.

〈表18〉 製造業의 期間에 따른 産業別 比率(投資基準)

單位：%

업종 \ 기간	68-75 (초기단계)	76-86 (정비단계)	87-90 (활성화단계)	1991. 1-6
음, 식 료 품	35.5	0.4	9.6	3.9
섬 유, 의 복	0.0	2.8	19.1	17.5
신 발, 가 족	0.0	0.5	5.9	4.4
목 재, 가 구	0.0	6.0	2.0	0.6
종 이, 인 쇄	0.0	0.0	2.8	0.0
석 유, 화 학	6.0	7.7	15.7	3.5
비 금 속 광 물	41.5	6.5	2.1	1.9
1 차 금 속	5.1	32.7	15.3	1.2
조 립 금 속	0.0	41.9	19.1	56.3
기 계, 장 비	0.0	0.7	2.9	0.1
기 타 제 조	11.9	0.7	5.5	10.6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1991. 6. 30)」을 기초로 본인이 직접 계산하였다.

〈表19〉 製造業 海外直接投資 産業間 展望

單位：%

업종 \ 기간	음, 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발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광 물	1 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제조업종 투자예측
1993 ~ 2000	5.0	10.0	10.0	2.5	2.5	20.0	7.5	7.5	15.0	10.0	10.0	2,360 ~ 7,528 (투자잔액) (100%)

자료：본인이 직접 계산한 자료임.

〈表20〉 製造業 産業別 海外投資 展望

單位：백만달러

업종 \ 기간	음, 식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발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광 물	1 차 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제조업종 투자예측
1993	118	236	236	59	59	472	177	177	354	236	236	2,360
1997	237	475	475	118	118	949	356	356	712	475	475	4,749
2000	376	752	752	188	188	1,505	564	564	1,129	752	752	7,528

자료：본인이 직접 계산한 자료임.

(다) 製造業 地域別 海外投資 展望

2000년대 海外投資 展望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과거의 경험과 投資環境을 미루어보아 2000년대의 投資地域을 展望해 보면 北美地域이 30%인 2,258백만달러, 동남아地域이 20%인 1,505백만달러, 中南美와 유럽地域이 15%인 1,129백만달러, 10%인 753백만달러, 중동과 아프리카地域이 5%인 376백만달러로 예측된다.

〈表21〉 製造業 地域別 海外投資 展望(2000년도)

單位：백만달러, %

지역	동 남 아	중 동	북 미	중 남 미	유 럽	아프리카	대 양 주	계
비율	20	5	30	15	15	5	10	100
금액	1,505	376	2,258	1,129	1,129	376	753	7,528

자료：본인이 직접 계산한 자료임.

第 5 章 結 論

1. 要約 및 結論

本 研究는 企業의 多國籍化 pattern에 대한 一般理論은 先進諸國 學者들의 先行研究를 검토하였으며 韓國 製造企業의 國際化 pattern에 대하여서는 韓國政府機關이 公表한 第2次 資料를 統計적으로 分析함으로써 韓國 製造企業의 多國籍化 過程의 諸特徵과 問題點을 발견하고 앞으로 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韓國 製造企業의 國際化 pattern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製造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特定地域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 東南亞과 北美地域에 집중되고 있다. 件數基準으로 볼때 이 두 地域에 投資된 比率이 1991년 6월말 현재 전체 投資의 78.1%나 된다.

둘째, 製造業의 海外直接投資는 特定產業에 집중되고 있다. 件數基準으로 볼때 製造業 전체 投資 件數 629件중 纖維·衣服이 179件, 組立金屬이 112件으로 이 두 部門이 전체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몇년전과 비교해 볼때 비교적 改善된 것이다.

셋째, 海外에 進出한 製造企業들의 經營面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現地國 마아케팅 環境에의 적응이 어렵고, 變化에 대응할 餘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製造企業들은 先進國의 輸入規制回避를 위한 海外生産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새로운 販賣市場 開拓 그리고, 낮은 生産費를 이용한 生産效率追求를 위해 海外直接投資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進出業體의 投資規模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91년 6월말 현재 629건중 66%인 415건이 1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전체의 95.4%가 5백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PROJECT에 속해있다.

여섯째, 產業間에 따라 海外進出의 시기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技術向上의 단계에 따라서 산업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곱째, 進出地域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海外直接投資 초기에는 생산비가 저렴하고 勞動集約的인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업체가 주로 東南亞地域에 진출하였다. 그후로

는 북미, 유럽 등 先進諸國에의 投資가 급증하였다.

여덟째, 海外지점들을 조속히 현지 법인화 함으로써 現地企業化를 달성하여 현지금융 조달에 원활을 기하고 貿易障壁을 보다 쉽게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홉번째, 勞動集約産業의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GSP와 저임금을 획득키위하여 개 開發國으로 進出하여 多國籍化를 가속화 해나갈 것이며 技術集約 産業의 기업들은 선진국들의 新保護貿易主義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고기술 勞動力을 획득키 위하여 先進國이나 周邊經濟權으로 進出하여 多國籍企業化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2. 本 研究의 問題點

本 研究는 韓國 製造企業의 海外進出 現況을 分析하여 그 方向을 제시하는 데 目的을 두었다. 그러나 研究過程上에서 다음과 같은 限界點이 노출되었다.

첫째, 本 研究는 韓國政府機關이 公表한 2次 資料에 거의 의존하여 실질적인 내용과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各 政府機關別로 數値나 內容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資料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實證的 資料의 不足이라는 점이다. 本 研究者의 時間과 費用의 限界로 인해 實證的인 調査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海外에 進出해 있는 企業의 經營事情 등은 거의 대부분 2次 資料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2次 資料 조차도 各 企業이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蒐集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세째, 급변하는 環境變化에 적응하기 위한 各 製造企業의 戰略을 제시하는 데는 不足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네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구권으로의 進出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中國, 蘇聯 등과의 交流는 최근 매우 뚜렷한 變化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本 研究의 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研究의 改善方向

本 研究論文은 研究過程上에서 많은 問題點이 발견되었다. 특히 製造企業의 多國籍企業化 方向을 제시하고자 했던 本 研究者의 의도와는 다르게 2次 資料의 分析에 그쳐, 結論

으로 제시한 여러가지 方案들에 대한 現實性이 의문시되어 버렸다.

따라서 앞으로 이 部門을 研究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이 改善되어야 하겠다.

첫째, 各 企業의 戰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企業內的環境 및 外的環境의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實證的인 調查를 통해 이를 分析해야 하겠다.

둘째, 本 研究는 政府機關에서 발표한 資料에 의존하다 보니 現實과는 다른 資料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앞으로의 研究는 直接 設問調查 등을 통해 보다 現實性있는 資料를 蒐集하여 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급변하는 環境變化에 적합한 研究를 수행하여야 하겠다. 특히 동구권의 市場開放化 움직임에 편승한 投資戰略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研究課題라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I. 國內書籍 및 論文

- 강봉균, 韓國의 經濟開發과 大企業의 成長, 대우증권조사월보, 1990. 3.
- 강태구, 韓國企業의 對中國 製造業 直接投資戰略, 무역학회지, 1990. 3.
- 구본호, 우리 經濟의 座標와 進路, 政策, 1990. 1.
- 김경진, 海外投資가이드 && : 태국, 經營과 技術뉴스, 1990. 3.
- 김선광, 國際企業 環境變化에 對應한 企業의 國際經營戰略, 경남대 산업경영, 1986. 9.
- 김선식, 海外進出企業의 撤收要因에 관한 研究, 숙명여대경제연구소 논문집, 1990. 3.
- 김시경, 國財企業經營論, 三英社, 1991.
- 김시경, 國際企業經營論, 三英社, 1991.
- 김재원, 韓國經濟의 展望과 當面課題, 시멘트, 1990. 3.
- 김종순, 多國籍 企業論, 三英社, 1975.
- 김중배, 日本企業의 海外直接進出戰略, 경원대학술연구논문, 1990. 3.
- 김창규,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課題, 대구직할시시정연구, 1989. 12.
- 김해진, 投資베타의 推進方法, 경남대논문집, 1989. 12.
- 김호영, 國際化 企業의 政治的 危險管理 : Risk Control과 Risk Financing을 중심으로, 생산성, 1990. 2.
- 나원찬, 對開途國 直接投資의 現況과 展望, 세계경제동향, 1990. 5.
- 나원찬, 우리나라의 對동남아 製造業投資現況, 세계경제동향, 1990. 1.
- 노정구, 多國籍企業의 國際마케팅 活動에서의 代替的戰略 方案 : 標準化 對 現地適應化를 중심으로, 부산경상전문대 논문집 제9집, 1989. 1989. 12.
- 드러커·피터, 多國籍企業들의 經營環境 變化, 韓國機械工具, 1986. 6.
- 류호찬,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現況分析, 수은조사월보, 1989. 12.
- 민상기, 韓國製造業의 海外直接投資 황병준外 4人編「韓國經營論」, 1985.
- 박명섭, 製造企業을 위한 전략형 投資決定方案, 기술과 벤처, 1990. 7.
- 박진환, 海外進出 韓國企業의 所有形態에 관한 研究, 고려대경영연구, 제42집, 1989. 12.

- 반병길, 國財經營論, 博英社, 1990.
- 반병길, 國際經營論, 博英社, 1987.
- 반병길, 多國籍 企業論, 博英社, 1985.
- 반병길, 多國籍企業論, 博英社, 1988.
- 반병길, 中小企業의 海外合作投資戰略, 海外投資情報, 1987. 6.
- 변병문, 韓國企業의 技術革新: 韓國企業의 座標, 民族知性, 1990. 6.
- 상공부·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나라 製造業 海外投資 現地法人의 運營現況實態分析”, 1988.
- 설영기, 多國籍企業經營論, 日新社, 1990.
- 손세영, 釜山地域신발業體의 海外投資戰略, 부산경상전문대논문집 제9집, 1989. 12.
- 송하진, 投資有望地域으로 부상하는 西南亞, 세계경제동향, 1990. 4.
- 신동수, 多國籍企業論, 貿易經營社, 1982.
- 심병구, 韓國企業의 國際化와 資金의 調達 및 運用에 관한 研究, 서울대 경영논집, 1987. 9.
- 심의섭, 中小企業의 對中國 投資進出, 보증월보, 1990. 6.
- 심재현, 多國籍企業經營論, 경음사, 1989.
- 심재현,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 方案, 경기대논문집, 1990. 7
- 안태호, 金澤完, 國財經營論, 博英社, 1975.
- 양성모,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에 관한 研究, 동의대상경논집, 1990. 3.
- 양한수, 韓國企業의 國際化에 따른 經營戰略, 마산상의, 1987. 11.
- 옥선준, 多國籍企業經營論, 法文社, 1989.
- 유일선, 美國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低下要因分析, 입법자료분석, 1990. 6.
- 윤영호, 韓國의 Venture Capital의 現況 및 改善方向, 외환은행월보, 1990, 6.
- 이만기, 國際競爭力을 강화를 위한 企業體質 改善, 수출보험, 1985. 3.
- 이병걸, 韓國企業의 海外投資撤收에 관한 研究, 복지행정연구, 1989. 12.
- 이병근, 國際化 過程에서의 關稅行政 方向(上), 관세, 1990. 6.
- 이용기, 韓國의 對소련·동구 進出 條件: 進出契約 要件과 主要業種別 投資 有望國家, 매니지먼트, 1990. 6.

- 이장호,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海外投資戰略, 서강 Harvard Business, 1990. 9-10.
- 이종동,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회계와 세무, 1990. 6.
- 이찬구, 海外直接投資와 多國籍企業論, 에코노미아, 1990.
- 임탁사 譯, 美國 多國籍企業의 技術開發과 技術戰略, 기술관리, 1990. 4.
- 정용민, 國財企業經營論, 博英社, 1988.
- 정재훈, 우리나라의 對ASEAN 投資現況과 展望 &&, 조세, 1990. 2.
- 정재훈, 우리나라의 對ASEAN 投資現況과 展望 &&, 조세, 1990. 4.
- 정재훈, 우리나라의 對ASEAN 投資現況과 展望 &&, 조세, 1990. 5.
- 정재훈, 우리나라의 對ASEAN 投資現況과 展望 &&, 조세, 1990. 3.
- 정한구, 소련 극동지역의 合作投資와 有望分野 : 경제특구설치 가능성을 전망하며, 아태, 1990. 5.
- 조동성, 韓國企業의 國際化와 經營戰略, 계간경향, 1987. 4.
- 조동성, 韓國企業의 戰略評價 : 韓國企業의 座標, 민족지성, 1990. 6.
- 조동성, 海外投資企業의 危險管理方案, 海外投資情報, 制13號, 1988.
- 조동성·백동성, 4個 國際化 企業群의 多角化 水準에 관한 比較研究, 서울대 경영논총, 1983. 3.
- 조현정, 海外直接投資企業의 政治的 危險管理 : 對ASEAN 諸國을 중심으로, 계명대경영경제, 1990. 3.
- 조환익, 製造業 競爭力 向上을 위한 生産性 向上과 技術革新, 경영계, 1990. 9.
- 조환익, 海外技術 導入에 따른 로알티가 증가하고 있다. : 國內産業 技術投資를 위한 助言, 企業經營, 1990. 5.
- 지용희, 韓國企業의 國際化 戰略, 서강 Harvard Business, 1990. 1.
- 지용희, 韓國企業의 國際化 戰略, 서강 Harvard Business, 1990. 1-2.
- 지용희, 韓國企業의 國際化 : 韓國企業의 座標, 민족지성, 1990. 6.
- 지용희,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投資實態 및 支援方案, 서강대학교, 경상논총, 제11집, 1986.
- 지재현,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活性化 方案, 경기대 논문집, 1990. 7.
- 진병화, 政府의 海外投資 支援制度, 경영과 기술뉴스, 1990. 1.
- 채점길, 多國籍企業의 資質과 特性에 관한 考察, 창원전문대논문집, 1989. 9.

- 최동규, 創造的 思考方式이 技術成果 높인다. : 技術競爭力 沮害하는 企業內部要因들, 상의주보, 1990. 5.
- 최백열, 開發途上國의 海外直接投資 理論에 관한 研究, 전북대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990. 2.
- 최성용, 韓國企業의 國際系列化 戰略에 관한 考察, 고려대경영논총, 1985. 3.
- 최성용·김희택, 韓國企業의 製造戰略에 관한 研究 :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인문사회과학논총, 1989. 12.
- 최원석, 中國의 投資環境과 外國人 投資現況, 경제브리프스, 1990. 3.
- 표정호, 國際企業의 海外子會社에 대한 影響力 研究, 순천향대학논문집, 1989. 12.
- 한국기계공업진흥회 編, 아시아地域 投資環境 및 向後 展望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기계공업, 1990. 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多國籍 企業의 利害와 對應,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1982.
- 한국기술개발사 編, 國內外 VENTURE CAPITAL의 現況과 展望, 기술과 벤처, 1990. 5.
- 한국수출입은행, 海外投資支援制度, 1981.
- 한국은행외환관리부, 우리나라의 海外投資, 1988.
- 한선민, 主要 外國企業의 對公産國 進出에 관한 研究, 동의대산경논집, 1989. 3.
- 한선민, 韓國企業의 海外市場進出實態分析에 관한 研究, 동의대산경논집, 1990. 3.
- 한승수, 國際化 過程에서 通商問題의 解消, 서울대행정논총 272호, 1989. 12.
- 한일은행 編, 美國에 있어 外國人 直接投資増大의 背景과 그 效果, 한일월보, 1990. 1.
- 홍석일, 우리나라 海外投資現況分析, 세계경제동향, 1990. 3.
- 황삼생, 企業의 海外進出要因 研究, 호서대사회과학 연구 제8집, 1989. 12.
- 황재호, 多國籍企業 行動과 國際市場 統合, 상지대논문집, 1989. 9.
- 황진성, 海外市場開拓위한 情報蒐集戰略, 企業經營, 1990. 5.

II. 日本書籍 및 論文

小宮隆太郎, 國財經營學研究, 岩波書店, 1975.

江夏建一, 多國籍 企業論, 文眞堂, 1984.

III. 外國書籍 및 論文

Aharoni, Yair, On the Definition of A Mutinational Copoation, A. Kapoor, and Phillip D. Grub, Editors, The Mutinationals Enterprise in Trasition, Darwin Press, Princeton, New Jersey, 1973.

Ball, George W., "Cosmo Coporation : The Importance of Being Stateless" in Contry C. Brown, ed., World Business (New York, 1970).

Barlow, E.R., Management of Foreign Manufacturing Subsidiaries, Boston : Division of Research, Harvard Business School, 1953,

Behrman, J.H., Some Patterns in the Rise of the Mutinational Enterprise (Chapel Hill, 1969).

Behrman, J.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ns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Soverignty, Columbis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4 (March, 1969)

Bernon, R.,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UNCTAD, 1972.

Brash, D.T., American Investment in Australian Indust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Brash, D.T., American Investment in Australian Indust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Brooke, Michael Z and Remmers, H. Lee, The Strategy of Mutinational Enterprise : Organization and Finance, (London, 1970).

Chaandler, A.D. Jr., Strategy and Structure, M.I.T., 1962.

Dunning, J.H., "Explaining Chag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 In Defense of the Eclectic Theor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 Statistics, 41(No).

- Dunning, J. H., American Investment in British Manufacturing, London, Allen & Urwin, 1959.
- Dunning, J. H., American Investment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London : Allen & Unwin, 1985.
- Dunning, John H. ed., The Mutinational Enterprise(London,1971)
- Dunning, John H. ed., The Mutinational Enterprise(London,1971).
- Emergency Committee on American Trade, The Role of the Multinational Copo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World Economies, Washington, D. C., 1972.
- Fatemi, N., Phalle, T. and Keefe, G., The Dollar Crisis, Rutherford, N. J., Fairleigh Dickinson Press, 1963
- Fayerweather, John.,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 A Conceptual Framework, N. Y. : McCraw-Hill, 1969.
- Franko, L. G., Joint Survival in Mutinational Coporations, New York, Praeger, 1972.
- Hymer, S. and Rowthorn, R., "Mutinational Coporations and international Oligopoly" in C. P. Kindlebu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Cambridge 1970).
- Hymer, S. and Rowthorn, R., Mutinational Corporation and International Oligopoly; The American Challenge, A Symposium, The M. I. T. Press, Hymer, S., United States Investment Abroad, A Paper Presented to the Third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Sydney, Aug. 1970.
- Kicher, D. P., "Now the Transnational Enterprise", H. B. R., Mar. - Apr., 1964.
- Kindleberger, C. P., American Business Abroad, Yale University Press, 1969.
- Kindleberger, Charles P.,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1969) p.18.
- Maisonrouge, Jacques, "Pro 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the Mu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State Department",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State, 14 Febuary 1969, Mimeograph.
- McInnes, J. M., "Financial Control System for Multinational Operations : an empl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71.
- Mikesell, R. F. and Others, Foreign Investment in the Petroleum and Mineral Industries, Baltimore, 1971.

- Mira Wilkines, *The Emerge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 American Business Abroad from the Colonial Era to 1914*,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Perlmutter, Howard V., "The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4, 1969.
- Perlmutter, H. V. and Heenan, D.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Development*, Addison-Wesley Pub. Co., 1979.
- Robinson, Richard D., "Beyo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unpublished manuscript, 1973).
- Roddaway, W. B., *The Effects of United Kingdom Direct Investment Overseas : An Interim Report*, Cambridge, Department of Applied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1967.
- Rolfe, S. 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 C. C., 1969, P. 18.
- Rolfe, Sidney E.,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Perspective" in Sidney E. Rolfe and Walter Damm, eds.,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1970).
- Rugman, A. M., *International as a General theory for FID : A Reappraisal of the Literature*,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6, Heft 2, 1980.
- Stopford, J. M. and Wells Jr, L. T., *Manag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Basic Books, 1972.
- Task Force on the Structure of Canadian Industry, *Foreign Ownership and the Structure of Canadian Industry*, (Ottawa, 1968)
- U. S. Chamber of Commerce,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mittee on Finance, U. S. Senate Feb., 21. 1973, 93rd Congress, First Session.
- U. S. Department of Commerce, *Policy Aspects of Foreign Investment by U. S. Multinational corporation*, Jan., 1972.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 Vernon, Raymond, *Sovereignty at Bay* (New York, 1971).

Wilkins, Mira., The Emergence of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Wooster, J. T. & Thoman, G. R., "New Financing Priority for MNC", Harvard Business Review (May-June, 1974).

ABSTRACT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Manufacturing Firms ; Pattern and Perspective

Yun Yeong Sang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patterns and direction of Multinationalization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theory on the pattern of Multinationalization of Firms used in this study is commonly referenced major study previously completed in this field.

The patterns of Multinationalization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are determined by Statistical analysis of secondary data on direct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A major feature of pattern of multinationalization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are as follows :

First, Direct Foreign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s concentrated in a specific region, that is, Southeast Asia and North America.

Second, Direct Foreign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is concentrated in a specific industry, that is, the textiles and clothes industry are 46.3 percent of the total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ird, most Multinational Firms in overseas are in great difficulties for operation on the spot.

Fourth, motives for direct foreign investment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are ; 1) to avoid import regulations by an advanced nation, 2) to expand markets by selling abroad, 3) to acquire foreign resources.

Fifth, a scale of investment by Korean Manufacturing firms is mostly a small scale.

Sixt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ime of overseas expansion, Moreo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ime of overseas expansion by regional groups.

In conclusion, Direct Foreign Investmen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should be directed fundamentally

towards ; 1) Smoothness of financial favors

2) Advancement in a backward country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3) Advancement in an industrially advanced nation of a technology-intensive industry.

부록

單位：천달러

투 자 자 명	현지법인명	허가일자	투자지역	사 업 내 용	비율	허가금액	투자금액
현대자동차	HYUNDI AUTO CANADA INC.	86. 7. 10	카 나 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	98. 40	130,685	129,059
포항종합 제철	POHANG STEEL AMERICA CORP	84. 9. 20	미 국 델 라 웨 어	철강재 가공 및 판매사업	100. 00	168,001	125,875
풍 산	PMX INDUSTRES CO., LTD.	90. 2. 1	미 국 아 이 오 와	동 및 동합금 판매	100. 00	46,000	38,800
미 원	INDO MIWON CITRAINT'L P.T.	89. 1. 18	인도네시아	조미료	50. 00	37,550	37,550
한국중공업	PREAK-HAN JOONG STMEN SDN. BHD.	81. 8. 11	말레이시아	시멘트	30. 00	25,002	25,002
서 통	STC TAPE CORPORATION	90. 6. 27	미 국 뉴 욕	접착 TAPE	100. 00	24,000	24,000
쌍용자동차 쌍용양회 공업	PANTHER CAR CO., LTD.	88. 8. 19	영 국	스포츠카	98. 30	22,815	22,815
새한미디어	SAEHAN MEDIA IRELAND LTD.	87. 4. 21	아 일 랜 드	VIDEO TAPE	100. 00	22,500	22,500
서 통	BEST CHEMICA LS & PLASTIC INC.	90. 1. 12	필 리 핀	OPP FILM CPP FILM	100. 00	31,000	21,200
아남산업	AMKOR ANAM PILIPINAS INC	90. 5. 9	필 리 핀	반도체	40. 00	29,075	20,000
갑을방직	KABOOL LANKA (PRIVATE) LTD.	89. 9. 12	스 리 랑 카	면 사	100. 00	18,900	15,400
삼성물산 제일제당	CHEIL SMSUNG ASTRA P.T.	89. 1. 18	인도네시아	조미료, LYSINE	75. 00	15,000	15,000
삼성물산 삼성전자 외1	SAMSUNG ELEC- TRON DEVICES (MALAYSIA) SDN,BHD	90. 12. 20	말레이시아	칼라브라운관	100. 00	36,211	14,905
대우중공업	APPIAN TECHN OLOGY INC.	86. 7. 30	미 국 캘리포니아	조립, 금속	35. 10	13,400	13,400
보루네오 가구	BORNEO INT'L FURNITURE INC.	83. 1. 28	미 국 캘리포니아	가구조립·판매 및 동부대업	100. 00	13,350	13,350
럭키금성상 사, 럭키	NATIONAL PLASTIC CO. (IBNHAYYAN)	83. 11. 17	사 우 디 아 라 비 아	VCM/PVC 수지제조	15. 00	18,000	12,415
동진화성 공업	DONGJIN INDO- NESIA P.T.	90. 4. 18	인도네시아	발포제	80. 00	10,100	10,100

삼미종합 특수강	SAMMI STEEL AMERICA INC.	89. 6. 24	미 국 캘리포니아	스텐레스강	100.00	11,500	9,500
유 공	HONGKONG PET- RO CHEMICAL	89. 7. 28	홍 콩	석유화학제품	30.00	7,194	7,194
대 우	INT'L TYRE MFG. & DISTRI- BUTION CO., LTD.	78. 7. 20	수 단	타이어 제조 판매	50.00	7,000	7,000
대 우 대우전자	DAEWOO ELEC- TRONICS MYANMA	90. 6. 8	미얀마	전기, 전자제품	55.00	6,600	6,600
고려제강	KISWIRE CO. SDN. BHD.	89. 4. 11	말레이시아	WIRE ROPE	100.00	6,500	6,500
한국남방 개발	KODECO HEAVY INDUSTRY P.T	90. 6. 8	인도네시아	컨테이너	85.00	6,000	6,000
흥아공업	HUNG-A INnDON- ESIA P.T.	91. 5. 3	인도네시아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 튜브, 림스트림	95.00	11,700	5,700
현대정공	HYUNDAI STEEL INDUSTRIES INC.	84. 9. 14	미 국 캘리포니아	라면류, 스낵류	100.00	5,233	5,233
한양화학	UNION INCORP- ORATED	90. 5. 4	미 국 캘리포니아	라 면	100.00	5,000	5,000
성전자	MICRON TECHN- OLOGY INC.	86. 10. 15	미 국 아 이 다 호	반도체 및 관련시스템	2.76	5,000	5,000
대우전자	DAEWOO ELEC- TRONICS U.K. LTD.	88. 11. 5	영 국	VCR	100.00	5,000	5,000
한일합성섬 유공업	HANIL-ADETEX P.T.	90. 7. 27	인도네시아	아크릴 방적사	51.00	13,376	4,970
서 일	SEOIL INDO PRIMA TAMA P.T.	89. 11. 13	인도네시아	음료용빨대 및 동부대사업	65.00	4,940	4,940
스타원	STARWAIN INDO- NESIA P.T.	88. 11. 4	인도네시아	신발 및 동부대사업	95.00	4,900	4,900
럭 키	HENKEL RIKA SDN. BHD.	89. 6. 8	말레이시아	지방 알콜	20.00	6,314	4,850
한라공조	HALLA CLIMATE CONTROL CANADA INC.	89. 6. 8	카 나 다	자동차부품 등	100.00	4,835	4,835
세계물산	MYANMAR SEG- YE INTERNA- TIONAL LTD.	90. 3. 30	미 양 마	바 지	60.00	4,750	4,750
금성사	GOLDSTAR OF AMERICA INC.	81. 4. 23	미 국 알 라 바 마	전자, 전자기기 및 수출입업	100.00	4,500	4,500

동신제지	SHIN HO CANADA LTD.	90.10.30	캐나다	펄프	86.80	28,366	4,421
삼성물산	SAMSUNG COST-ARICA LTD	88.10.4	코스타리카	신사복	100.00	4,400	4,400
한국남방개발	KODECO BATULICIN PLYWOOD P.T.	81.6.5	인도네시아	합판 및 제재목생산 판매업	49.00	4,295	4,295
뉴맥스	NATIONAL MIC-TRONETICS, INC.	90.1.21	미국 뉴욕	컴퓨터 주변기기	51.00	4,200	4,200
맥슨전자	MAXON SYSTEM (PHILIPPINE)	88.12.5	필리핀	전화기	100.00	4,000	4,000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MALY	89.12.29	말레이시아	MWO	100.00	12,069	4,000
삼성코닝	MICRO ELECTRONIC PACKAGIN	87.11.13	미국 아리조나	반도체관련 세라믹소재	13.10	3,950	3,950
코오롱상사 고려포리머	KOPOLCO INDONESIA	89.11.1	인도네시아	양모피, 컨테이너백	95.00	4,150	3,850
삼양사	DEWAN SALMAN FIBRE LIMITE	90.3.13	파키스탄	POLYESTER, STAPLE 섬유	16.70	3,833	3,833
쌍용양회 공업	SSANGYONG CEMENT (SINGAPORE) LTD.	73.12.31	싱가포르	시멘트	27.30	3,724	3,724
동인석재 산업	DISCO STONE INDO PRIVATE LTD.	89.5.31	인도	묘석제품	100.00	3,600	3,600
신홍목재 공업	WOOAMI MALAYSIA SDN BHD	90.3.22	말레이시아	가구재, 제재목, 물당재	100.00	4,000	3,600

資料：韓國銀行, 海外投資現地法人現況, 1991. 6. 30.

